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르완다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

르완다

KOICA WORLD FRIENDS KOICA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

르완다

Contents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 르완다

Part. I 르완다는 어떤 나라일까?

1. 국가 기본 정보 009
2. 외교 동향 023



'함께'라는 기쁨, 르완다 생활 백과사전

Part. I 현지 정착 관련 필수 정보

1. 짐 싸기 전에 028
2. 짐 싸기 029
3. 교통, 통신 및 인터넷 034
4. 우편 및 환전 042
5. 현지 언론 소개 045
6. 은행 046
7. 주택 048
8. 현지 물가와 마트 054

Part. II 유용한 생활 정보

1. 긴급연락처 062
2. 의료기관 063
3. 안전관리 074
4. 여가생활 079
5. 외국어 학습 방법 083
6. 음식문화 085
7. 유용한 사이트 092
8. 기타 093

제3부

같이 웃는 즐거운 내일, 르완다 즐기기

Part. Ⅰ 지역 소개

1. 수도 키갈리 소개 096
2. 지방 주요 도시 소개 097

Part. Ⅱ 봉사활동 정보

1. 보고서 관련 사항 104
2. 현지 적응훈련과 OJT 107
3. 안전교육 및 현지 평가회의 109
4. 단원 우수보고서 소개 111
5. 활동물품 지원 119
6. 봉사활동 지원비 집행 방법 121
7. 현장사업과 협력활동 125
8. 새마을 봉사단 소개 138
9. 선배 단원들의 조언 142
10. 타국 봉사단체 현황 149

부록

1. 응급상황별 현지어 152
2. 알아 두면 유용한 의학 용어 153
3. 르완다 참고 도서 및 영화 154
4. 현장사업 결과보고서 견본 160
5. 키갈리 시내 지도 161
6. 집필진 소개 및 후기 162
7. 안내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164

제1부




아프리카 대륙의 심장,
르완다

Part. I

르완다는 어떤 나라일까?



2010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 76계단 상승, 5년간 GDP 성장률 2배, 15년 평균 경제성장률 8%, 르완다의 최근 경제 성적표는 그 발전 속도를 가늠하게 한다. 정부 주도의 개혁을 통한 지표 개선뿐 아니라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정책,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환경 정책, 고속성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균형발전 정책, GDP 규모에 걸맞지 않은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자국을 강소국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원으로 생활하면서 생활 전반에 녹아 있는 아프리카 특유의 정신, 농경과 과도기적 도시 문화,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문화 전반을 경험한다면 르완다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기본 정보

1) 사회

르완다의 정식 국가명은 르완다 공화국(Republic of Rwanda)으로 아프리카 대륙 중동부에 위치해 있다. 탄자니아, 부룬디,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바다를 인접해 있지는 않다. 국기는 하늘색, 노란색, 녹색의 3색에 태양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르완다 국기>

국토 면적은 2만 6,338㎢으로 한반도의 1/10, 남한의 1/4 정도의 크기이며 이는 경상남 · 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다. 면적에 있어 세계 148위를 차지해 작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에서 약 2,500m에 이르는 고산지역이다. 르완다 국토에는 5개의 화산, 23개의 호수, 그리고 수많은 강이 위치해 있다. 특히 5개의 화산은 가장 높은 카리심비 산(4,507m)을 비롯해 무하부라(Muhabura, 4,127m) 산, 비소케(Bisoke, 3,711m) 산 등 해발 3,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콩고의 미케노(Mikeno, 4,437m) 산을 비롯한 3개의 화산을 포함한 8개의 화산이 모여 비룽가(Virunga) 산맥을 이룬다. 서쪽에는 국토의 약 1/10을 차지하는 키부(Kivu) 호수가 있으며 동쪽은 높은 고원이 낮아지면서 탄자니아와 국경을 이루는 아카게라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다. 북쪽에는 비룽가 산맥의 화산 봉우리와 넓은 열대 우림이 펼쳐져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경작지와 목초지로 염소, 소, 양,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야생동물로는 코끼리, 사자, 고릴라, 침팬지, 물소, 영양, 멧돼지, 얼룩말, 하마 등 다양하며 아카게라 국립공원 또는 북서쪽의 고릴라 트레킹(Tracking)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르완다, 출처: www.therisingcontinent.wordpress.com>

르완다의 인구는 약 1,140만 명(2014,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ry 4)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당 420명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다. 성별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여성은 52.2% 이고 남성은 47.8%(2014, The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4)로 1990년대 초기 전쟁과 대학살로 인해 많은 남성이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르완다의 인종은 흔히 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후투(Hutu), 투치(Tutsi), 트와(Twa)족으로, 전체 인구에서 후투족은 약 84%, 투치족은 14%, 트와족은 1% 정도이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서구인들이 르완다에 처음 왔던 19세기 당시에 투치는 왕족의 이름이자 소수 엘리트 계급과 동의어였으며, 목축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투치는 언제나 인구의 15%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투치가 소를 대부분 잃으면 후투(농부)가 되고 후투가 소를 열 마리 이상 소유하면 투치가 되는 식이었다. 1884년 독일의 식민통치를 시작으로 1919년 벨기에가 신탁통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 투치-후투를 세습되는 종족으로 고착시켰고 기득권 세력인 투치족을 앞세워 나라를 다스렸으며, 1962년 르완다가 독립할 때까지, 르완다의 독립투쟁사는 후투족의 반 투치 투쟁사와도 겹친다. 이의 절정이 1994년 제노사이드(Genocide, 대학살)로써, 이후 르완다 정부는 그러한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종족 간의 구분을 짓지 않으며 르완다 국민으로써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인에게 종족을 묻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므로 삼가는 게 좋다.

르완다의 사회적 분위기는 무척 온건하며 개도국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나 종교적 이유로 금주를 하기도 한다. 담배도 술과 비슷한 이유로 환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의 남자 어른인 경우 음주를 즐기는 것이 대다수이며 대낮에 맥주를 즐기기도 한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정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이다. 가정부와는 고용인-피고용인 관계지만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한 경우에는 가족 같은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르완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적인 국가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타인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기도 한다.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기독교와 가톨릭이 주를 이룬다.

- 공휴일

일반적으로 알려진 르완다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하지만 아래의 날이 꼭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전날 밤 라디오로 다음날이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현지인에게 미리 물어보면 좋다. 만일 휴일이 주말인 경우,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설정하여 주중(대부분 월요일)에 휴일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Eid al-Fitr(이드 알피트르)와 Eid al-Adha(이드 알아드하)는 르완다 무슬림협회에서 매년 공지한다. 이 외에도 국가 행사, 선거 등의 이유로 휴일이 정해지기도 한다.

<르완다의 공휴일>

New Year's Day(1월 1일)	Day after New Year's Day (1월 2일)
Heroes Day(2월 1일)	Good Friday (4월 첫째 혹은 둘째 금요일)
Genocide Memorial Day (4월 7일)	Labour Day(5월 1일)
Independence Day(7월 1일)	Liberation Day(7월 4일)
Umuganura-National Harvest Day (8월 첫째 금요일)	Assumption Day(8월 15일)
Eid al-Fitr(매년 변동)	Eid al-Adha(매년 변동)
Christmas Day(12월 25일)	Boxing Day(12월 26일)

2) 지역 정보



<르완다 신 행정구역 지도, 출처 : Rwanda Social Study Atlas, McMillan, 2009>

Tip 1. 2006년 행정 개편에 의해 각 행정단위는 키냐르완다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활용된다. 르완다는 수도인 키갈리와 4개의 Province(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Province는 여러 개의 District, 그 이하 Sector, Cell, Village 순으로 나뉜다.

Tip 2. 주소를 쓸 때에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써 나간다.
예) Nyarubande Village, Nyarutarama Cell, Byumba Sector, Gicumbi District, Northern Province

① 행정구역

수도인 키갈리(Kigali)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동서남북 4개의 인하라(Intara, Province)가 1차 행정 단위를 구성한다. 이는 2006년 1월 1일. 12개였던 1차 행정 단위를 5개로 개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 군, 면, 동에 해당하는 2차, 3차, 4차, 5차 행정 단위인 아카레레(Akarere), 우무렝게(Umurenge), 아카가리(Akagari), 우무두구두(Umudugudu)로 세분화된다.

② 지방 소개

- 수도 키갈리(Kigali)

  키갈리는 3개의 District(구)으로 나뉘며 전국으로 뻗어 가는 도로망의 주요 분기점이 되는 도시이다. 특히 키갈리 시내와 주변 중심부는 세 구의 교점이며 국가 행정 · 경제의 중심지이다. 단원의 주요 활동반경이 될 키갈리 중심부는 몇 개의 주요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키갈리 전체 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Tip. 2006년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 주요 District 및 주요 도시들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많은 현지인들이 아직도 예전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주요 도시들의 이름 뒤에 옛 지명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 Northern Province(북도)

  5개의 District으로 나뉜다. 무산제(Musanze, 舊 루헹게리 Ruhengeri)와 기춤비(Gicumbi, 舊 븀바 Byumba)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우간다로 통하는 주요 도로가 있으며 특히 무산제는 볼케이노 국립공원(Volcano national park)이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 Western Province(서도)

  7개의 District으로 나뉜다. 루바부(Rubavu, 舊 기세니 Gisenyi), 카롱기(Karongi, 舊 키부예 Kibuye)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서쪽 전체에 키부(Kivu) 호수를 끼고 있으며 다른 지방에 비해 키갈리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해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자연보호구역이 있으며 울창한 열대우림의 Nyungwe(늉궤) 국립공원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다.

- Southern Province(남도)

  8개의 District으로 나뉜다. 무항가(Muhanga, 舊 기타라마 Gitarama)와 후예(Huye, 舊 부타레 Butare)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University of Rwanda(UR)와 주요 국립박물관들이 있는 지역이며 역시 늉궤 국립공원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 Eastern Province(동도)

  7개의 District으로 나뉜다. 르와마가나(Rwamagana)와 키붕고(Kibungo)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다른 지방과 달리 고도가 대체로 낮으며 평지라 불릴 만한 지형을 갖고 있다. 소규모 호수가 많으며 사파리 관광을 할 수 있는 아카게라(Akagera) 국립공원이 있다.

③ 기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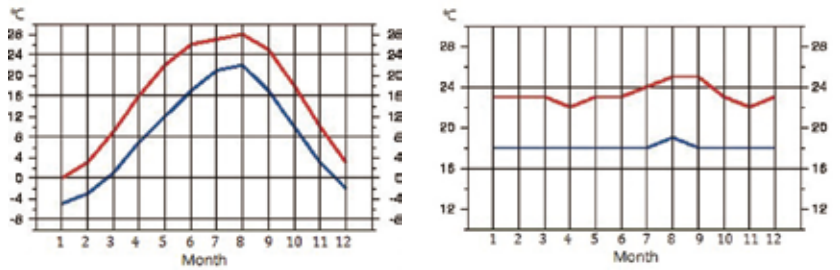
Sector마다 공공 보건소가 존재한다. 지방은 키갈리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며 현대적인 마트나 소매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활용품을 구하기 위해 키갈리에 가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기후

계절은 건기(12~3월 초, 6~8월), 대우기(3~5월), 소우기(9~11월)로 나눌 수 있다.

우기에 비가 내려도 한국의 장마처럼 수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특별히 우기라는 느낌은 없다. 길면 1~2시간, 짧으면 몇 분 내에 비가 그친다.

1년 내내 느끼는 체감 기후는 거의 일정한 편이라 날씨에 관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다만 밤이 되면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우기 때는 일교차가 커지며 지역에 따라 간혹 우박이 내린다. 또한 북쪽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쌀쌀한 편이다. 최근에는 건기 때 비가 내리거나 우기 때 건조한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좌)과 르완다(우)의 월별최고기온(적)과 월별최저기온(청) 비교 출처 : WeatherOnline>

4) 종교

르완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톨릭(56%)과 개신교(26%)를 믿고 있다. 그 외에도 재림교(11%)가 있다. 키갈리의 냐미람보(Nyamirambo) 지역에 위치한 이슬람 모스크를 중심으로 무슬림

(5%)이 존재하기도 한다.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타 종교와의 종교적인 갈등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현지인의 아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리 깊지 않다. 현지에 보급된 중국 영화의 영향으로 아시아인은 모두 중국인으로 오인하며 무술의 고수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아시아인이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며 기독교인이라 하면 놀라기도 한다.

현지에는 곳곳에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가 있으며, 대부분이 키냐르완다어로 미사나 예배를 진행하는데, 키갈리 시내에는 성당에 따라서 시간을 특정하여 영어 미사를 집전하기도 한다. 외국인 목사가 영어로 예배를 진행하는 개신교 교회도 몇 곳 있는데 아프리카 문화와 접목되어 많은 부분이 찬송과 간증으로 진행된다. 예배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길고 심한 경우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키갈리에는 케냐 등의 타 아프리카 국민과 르완다 지식층이 주로 다닌다.

5) 일반적인 현지 분위기

① 르완다의 강한 공권력

경찰의 불심검문은 언제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며 검문시간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다. 건국 후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찰을 두려워하는 현지인이 많다. 가끔 도로의 모든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하고 통제를 받는데 대통령이 곧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② 외국인에 대한 시선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부유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식사, 술, 담배, 직업 등을 달라고 조르는 현지인을 가끔 길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재구매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르완다에 왔다고 생각하며 호의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현지인도 많다.

③ 아프리카 타임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프리카의 시간 개념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다. 이는 르완다가 아직 농경사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지 않고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 체계화된 현대 산업사회의 시간 개념과 다른 부분이 많다. 또한 전력망 등의 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정전이나 예외사항이

많이 발생하며 약속시간에 대체로 관대하다. 이러한 아프리카의 시간 개념을 현지 문화로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6) 치안

많은 사람이 르완다를 과거 학살이 있었던 위험한 국가라고 인식하지만 현지 상황은 사뭇 다르다. 내전이 끝난 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현지 정세는 빠르게 안정되어 왔고 현재는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SOS가 선정한 안전국가 중 하나로 한국과 동일한 치안등급을 받고 있다. 현지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치안상태는 매우 안전한 편으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적으로 2년간의 파견기간 내에 소매치기와 같은 작은 사고조차 한 번도 당하지 않는 단원이 절대 다수이다. 밤늦게 다니지 않으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지 경찰과 군인이 수시로 도심 곳곳을 순찰하니 범죄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안전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항상 사고와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해야 한다.

7) 정치

르완다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는 국가이다.

- 대통령(7년 중임), 상원의원(8년 단임), 하원의원(5년 중임)
- 여당(RPF, 르완다해방전선), 야당(PSD, 사회민주당), GP(녹색당), LP(자유당)

① 정당

1994년 내전을 종식시키며 정권을 잡게 된 르완다 애국 전선-RPF(Rwandan Patriotic Front)와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몇몇 야당이 활동하고 있다. RPF는 르완다 독립 후 후투족 정권에서 탄압받던 투치족이 우간다로 가서 만든 군사단체로 1994년 대량 학살 당시 후투족 중심의 정부군에 대항하여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정권을 쟁취하게 되었다.

② 대통령 선거와 결과

지난 2010년 8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인 폴 카가메(Paul Kagame) 외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선거유세를 펼쳤다. 총 유권자 518만 명 중 50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7.5%의 투표율을 보여 주었다. 개표결과 현 대통령이자 집권 여당 후보인 폴 카가메 후보

가 9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되었으며 2015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7년간 과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5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가 변경되었다.

③ 의회제도(상하원)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원은 총 8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3명은 국민투표, 24명은 직능별 단체의 특별위원회, 2명은 청소년 위원회, 1명은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5년으로 재선이 가능하며 산하에 11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원은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8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다. 26명 중 직능별 8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12명은 단체에서, 4명은 정당포럼에서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은 하원을 거쳐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이 상원에서 부결되면 양원 동수로 구성된 합동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한다.

④ 사법제도

다른 민주국가와 같이 지방, 고등,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심제를 취하고 있다.

⑤ 가차차(Gacaca)

가차차란 '풀'이란 뜻으로 르완다의 전통적인 재판방식이자 일종의 주민재판이다. 기존의 정규법원으로는 약 11만 5,000명의 대량 학살 전범자들을 처리하는 데 10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임시로 옛 관례를 부활시켰다고 한다.

전국 1만 1천 개의 가차차에는 약식 교육을 받은 최소 15명의 재판관과 1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가차차에는 1994년의 대량 학살 기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형량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살인행위에 적극 가담한 중죄인은 따로 분류되어 정규법원으로 이송된다. 특별 법원인 가차차가 완벽한 재판기관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건 하에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8) 경제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GDP에서도 농업이 공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 · 교육 등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① 르완다 경제 전반

르완다는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다. 르완다는 약 연 8%의 고속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01년 211달러에서 2014년 718달러로 약 3배 이상 성장했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7%로 수년간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013년 르완다의 각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차 산업(농, 축, 임, 광업) 32%, 2차 산업(제조업) 15% , 3차 산업(서비스업) 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차, 3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2차 산업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0년 수출은 약 2.3억 달러로 케냐(34%), 콩고민주공화국(14%), 태국(6%)이 3대 수출국이다. 수입은 약 10.5억 달러로서 3대 수입국은 케냐(16.5%), 우간다(15%), 중국(8%)이다. 국제무역은 동아프리카 역내 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수송 인프라가 미비해 원거리 무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 IMF 조사 결과 수출 6.9억 달러, 수입 24.8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 아연, 텅스텐을 비롯한 광물자원과 커피, 차를 비롯한 기호식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와 석유를 비롯해 생필품 위주의 소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1차 산업

국민의 80%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할 만큼 1차 산업 비중이 큰 국가이다. 두 번의 짧고 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며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할 만큼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암소 보급 운동과 양계장의 증가에 힘입어 축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광업 분야도 지속적인 채굴량 증가를 통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③ 2차 산업

르완다는 공업 분야가 매우 취약하다. 휴지나 우유, 몇 가지 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택 건설 붐과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업이 큰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형 건물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전문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해 중국 건설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되는 전기를 대체하고 전기 보급을 확장하기 위해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 보급률은 현재 약 24%에 머물고 있는데, 2018년 목표치인 70% 보급률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④ 3차 산업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광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메리어트 호텔과 힐튼 호텔 그룹이 새로운 호텔을 추진, 건설 중이다. 키갈리 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는 작은 규모지만 최근 여러 신규 노선이 취항하고 있다. 6개 국적의 항공사가 키갈리에서 직접 유럽, 남아공, 우간다, 케냐행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다. 아직 철도가 없지만 물류비 절감과 동아프리카 경제통합을 위해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여러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⑤ 비전 2020

비전 2020은 2020년 르완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220달러에서 2020년 1,240달러로 5배 이상 성장하고 빈곤율은 60.4%에서 20%로 감소하며 평균 수명은 49세에서 66세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 및 국부 창출을 통한 외세 의존형 경제 탈피', 중기적으로 '농업 위주 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저변 확대와 기업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비전 2020은 다소 허황되고 추상적인 비전 제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⑥ 르완다의 화폐

르완다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Rwanda)에서는 고유화폐인 르완다 프랑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통용 중인 지폐는 5,000, 2,000, 1,000, 500프랑이 있고, 동전은 100, 50, 20, 10, 1프랑이 있다. 이전에 쓰이던 100프랑 지폐는 현재 전량 폐기되고 동전으로 교체되었다. 중앙은행에서는 발권업무 이외에도 금리조정, 통화관리, 외환관리, 환율고시, 각종 특별기금관리, 시중은행 업무감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르완다의 환율은 환전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6년 3월 미화 1달러당 약 780프랑 정도이다. 환전 업무는 공금과 생활비를 구분하여, 공금은 은행(UOB)에서, 생활비는 시내 중심의 환전소에서 보통 이루어진다. 당일 환율은 환전소 입구에 게시한다. 최근 들어 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보다 달러 대비 르완다프랑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수일 만에 진정되었으나, 국제 및 국내 정세불안 등의 문제로 환율이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도록 한다.

Tip. 달러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르완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와 르완다 국내 정치상황을 항상 눈여겨보며, 환율의 변동 역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한번에 바꾸기보다 필요한 만큼 출금하여 환전하는 것을 권한다.



<르완다의 동전, 왼쪽부터 1, 5, 10, 20, 50 ,100 프랑>



<르완다의 지폐, 왼쪽에서부터 5,000, 2,000, 1,000, 500프랑

출처 : Bank Note News(www.banknotenews.com>

9) 역사

① 최초의 원주민

본래 르완다는 신석기 시대에 트와(Twa)족이 수렵채집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터전이었으나 7세기 무렵 후투(Hutu)족이 중앙아프리카 지역인 콩고(Congo)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기나긴 이동 끝에 르완다에 이르게 되었고, 트와족은 체구의 열세로 인해 산 속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0~14세기 무렵 체구가 더 크고 소를 치는 유목민인 투치(Tutsi)족이 르완다 동북부에서 내려오며 르완다의 지배세력이 되었다.



<르완다의 전통 가옥으로 냔자(Nyanza)지역의
민속박물관(Museum of Rwanda Ancient History)에서 볼 수 있다>

② 왕국 신화

르완다 왕국은 11세기 무렵에 건설되었는데 건국신화에 따르면 흙으로 만든 인형을 황소의 심장과 함께 우유통에 넣자 9개월 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그가 사비제제(Sabizeze)였는데 그의 아들 지항가(Gihanga)가 나라를 세워 통치하면서 르완다 왕국이 탄생했다. 유럽의 침략 전까지 르완다인에게 있어 조국은 가장 크고 강하며 고도로 문명화된 세상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르완다 왕국은 키갈리의 레메라(Remera) 인근에서 처음 건국되어 수세기에 걸친 정복전쟁을 통해 현 르완다 영토뿐 아니라 키부(Kivu) 호수 인근의 콩고 영토와 우간다 국경 인근 지역, 부룬디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③ 식민 통치의 역사

르완다는 1884년에 들어 독일의 통치를 받게 된다. 독일은 르완다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영토 내에 있던 후투족 자치부락을 강제 복속하였는데 이때 자존심 강한 후투족의 일부는 독일과 르완다 왕국에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1910년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정책으로 인해 영토가 강제적으로 합병되거나 분할됐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 르완다 지역을 정복한 벨기에의 신탁통치를 받게 된다.

벨기에의 통치방식은 자치와 왕의 권위를 인정했던 독일과 달리 기득권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외형에 따라 투치, 후투, 트와족을 구분해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투치와 후투 간의 혼혈이 많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으며 재력에 따라 인종을 구분하기도 했다. 벨기에 통치 시기에는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고구마, 카사바와 같은 품종이 수입되고 커피농장이 대량으로 건설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탈이 심해 벨기에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졌고 인종 분리정책에 의해 1등 국민과 2등 국민 간의 차별이 심해지자 인종 간의 갈등도 점점 커졌다고 한다.

④ 독립의 시작

1950년대 중후반 아프리카에 독립열기가 일면서 르완다에도 국왕을 중심으로 즉각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과 후투족 중심의 선개혁-후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이 창설되며 대립 각을 세우게 되었다. 1951년 후투계 고위 간부가 투치계 당원들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후투계 폭력배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살인, 약탈을 시작했고 투치계에서도 들고 일어나 보복을 시작했다. 2주간 3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은 르완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인종 간 대량 살상사건이었다. 이 시기에 파견되었던 계엄사령관은 투치 중심 식민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친 후투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⑤ 독립 과정

1962년 벨기에로부터의 독립 후 UN감시하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카이반다(Kayibanda)가 승리하며 강력한 친 후투 - 반 투치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다. 취임 다음 해 150명의 투치가 살해 되고 5,000여 채의 가옥이 불타며 22,000여 명이 부타레(Butare)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집권 기간에 계속된 투치에 대한 보복으로 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투치족이 인근 국가로 피신을 갔다.
1973년 하비야리마나(Habyarimana) 국방장관이 장기집권을 통해 독재 중이었던 카이반다 정권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축출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통령이 된다. 이후 르완다 고유문화의 재평가와 르완다어 사용 장려 정책을 펴며 강력한 지지를 얻어 4선까지 성공한다. 이때 우간다에서는 르완다 투치 피난민과 우간다 무장투쟁 세력이 힘을 합쳐 독재 정권을 전복시킨 일이 있었다. 우간다 무장반군 중에는 폴 카가메(Paul Kagame) 현 르완다 대통령도 있었다.

⑥ 집단학살(Genocide)의 발발

1994년 4월 하비야리마나 대통령과 부룬디 대통령이 탑승했던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강경 후투 세력의 투치를 향한 공격이 다시 시작된다. 르완다 북부지역에서 게릴라군으로 반정부투쟁을 하던 RPF는 제노사이드 진압을 위해 본격적으로 키갈리로 진격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르완다 문제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쟁을 하는 사이 RPF가 키갈리를 점령한다. RPF는 임시정부를 구축하고 7월 승전을 선포하며 새 정부를 구성했고 이는 오늘에 이르게 된다.

10) 공식 언어

르완다의 공용어는 르완다어(Kinyarwanda, 키냐르완다), 영어(English), 프랑스어 (Français)이다. 공용어는 아니지만 스와힐리어(Kiswahili)와 인접국의 언어도 지역에 따라 구사한다. 특히 키냐르완다어와 부룬디어(Kirundi, 키룬디)는 아주 흡사하다.



외교 동향

1) 르완다의 정세

벨기에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친밀하게 지내왔다. 1994년 대량 학살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06년부터 2009년 말까지 약 3년간 외교관계를 단절하기도 했다.

그 사이 르완다는 54번째로 영연방에 가입하였고 영국 식민지가 아닌 국가로서는 2번째로 영연방 회원국이 되었다. 미국은 1994년 대량학살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며 빌 클린턴이 설립한 클린턴 재단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파견이 재개되어 많은 미국 봉사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0년 7월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등이 동아프리카공동체(EAC)를 결성하였다. 회원국들은 앞으로 단계적 관세철폐,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국 간의 상품교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 아프리카 교역액은 2000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10년 약 1,000억 달러로 10배가량 증가했으며 각종 인프라 건설을 비롯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르완다 역시 중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또한 자이카(JICA)를 통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2010년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여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는 유엔에 아이티, 수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에서도 평화 및 안전위원회 이사국에 선임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 최근 정세

현 르완다 대통령인 폴 카가메(Paul Kagame)는 2000년 4월 과도 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2003년 8월 르완다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서 르완다 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인력자원 양성을 경제 성장의 기본 전략으로 설정하고 교육 발전 및 ICT 인프라 구축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2010년 8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3년 9월 총선에서 여당 RPF(투치계)가 승리하였다.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사하라 이남 국가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발전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의되었으며, 98.3%의 지지를 얻어 동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3)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수교는 1963년 최초로 이루어졌고 1972년에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이후 1975년에 철수하여 외교관계가 중단되었다가 1987년에 재개설된 바 있으며, 1990년에 폐쇄 등 국내정세와 정책에 따라 변화가 다소 있었다. 철수 이후에는 주 탄자니아 대사관에서 외교 관련 업무를 대행하였고, 2008년 개설된 한국 주재 르완다 외교사무소는 이듬해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2011년 우리나라는 르완다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였고, 동년 5월 주 탄자니아 대사관 키갈리 분관을 개설, 동년 12월에는 정식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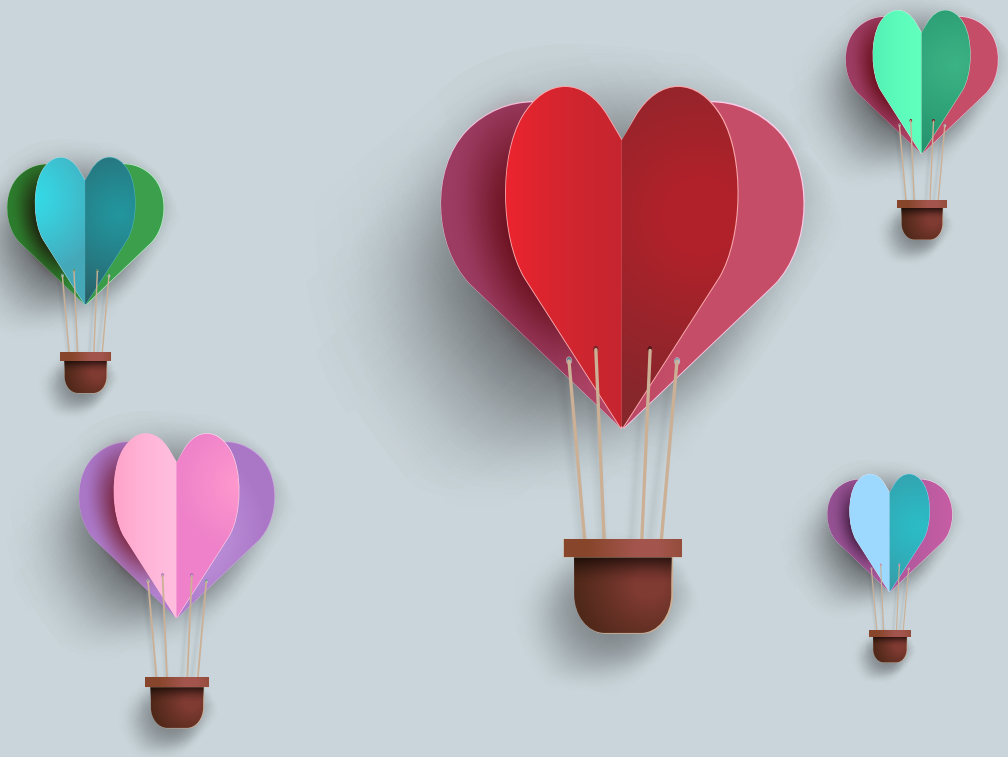
북한의 경우 1972년 르완다와 외교관계를 최초로 수립하였고 1992년 르완다 주재 북한대사관이 철수한 후 공관은 현재 없으며, 주 우간다 대사관에서 겸임하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대한민국을 2003년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이후 폴 카가메 대통령이 2008년, 2011년, 2014년 3회에 걸쳐 방한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과 활발한 외교 및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과의 수출입 현황(2014, KITA)은 1,949만 달러(통신, 플라스틱, 기계 등)을 수입하였고, 149만 달러(커피, 동 등)를 수출하였다. ODA 지원 실적은 1987년~2014년 동안 총 5,451만 달러이며, 2015년부터 51백만 달러의 유상원조도 지원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르완다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여 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2010. 2 발효) 및 무상협력 기본협정(2013년)을 체결하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촌개발/교육/ICT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프로젝트 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견된 KOICA 해외봉사인력은 325명(2016. 3. KOICA 르완다 사무소)이며 교민은 약 237명(봉사단, 선교, NGO, 사업)으로 집계(2015. 3.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 되고 있다.

제2부




‘함께’라는 기쁨,
르완다 생활 백과사전

Part. I

현지 정착 관련 필수 정보



짐 싸기 전에

출국 전에 캐리어 및 이민가방이 중간에 분실되지 않도록 이름표를 부착하고 가방 둘레에 끈으로 한 번 더 묶는 것을 권장한다. KOICA에서 배급하는 가방은 모두 똑같이 생겼으니 따로 표식을 해 두는 것도 좋다.

짐을 들고 몸무게를 잰 뒤 그 무게에서 자기 몸무게를 빼는 방식으로 캐리어의 무게를 미리 구해 놓으면 공항에서 다시 짐을 빼고 무게를 재는 불편을 없앨 수 있다. 대부분 집보다 공항에서 무게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한 무게보다 조금 더 가볍게 챙기는 것이 좋다.

추가 무게를 항공편으로 보내고 싶은 경우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데 카타르항공의 경우 1kg당 약 70달러, 에티오피아항공의 경우 1kg당 약 7,000원 정도이다.

한국에서 르완다로 짐을 보낼 경우 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지만, 이용하고자 한

다면 우체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나 인터넷우체국 EMS(ems.epost.go.kr) 등을 참고한다. EMS의 경우 배송기간은 2~3주 정도(빠르면 1주 이내에도 오기도 한다)로 KOICA 사무소 주소와 사서함 번호(P.O.Box)를 적어 놓으면 키갈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종종 파손 사례가 있으니 포장 시에 중요 물품은 에어캡으로 처리하고 박스 겉면에도 테이프를 감싸야 한다.

KOICA 사무소에서 한국 도서 대여가 가능하고 선배 단원의 책을 빌리거나 중고 책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을 무리해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많은 한국 식재료를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며 맛이 중국 음식과 흡사하기 때문에 한국 식재료를 직접 가져오는 것이 좋다. 되도록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고추장, 된장, 멸치, 다시마 등) 위주로 가져오는 것이 좋다.



짐 싸기

르완다는 과거 내전 이후 공업 기반이 회복되지 않아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물가가 비싼 편이다. 르완다는 종이부터 샴푸까지 자체 생산 공장이 없으며 케냐, 우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등의 주변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1)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단원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물품이다. 르완다에서도 물론 다양한 전자제품을 팔지만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① 노트북 : 단원 활동을 위해 파견 분야에 상관없이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필수 제품이며 현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오기 전에 오피스 등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② 전기압력밥솥 : 현지에서 귀국 단원에게 구입 가능하며 출국 전 귀국 단원의 유무를 파악한 후 협의하는 것이 좋다.

③ 스마트폰(컨트리 락 해제) : 분실의 위험이 높으므로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폰 2~3개정도 더 가져오는 것을 추천한다.

④ 디지털카메라 : 해외 생활 및 단원활동 기록에 유용하다.

⑤ 헤어드라이어 : 현지 구입이 가능하지만 비싸고 성능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산을 추천한다.

⑥ 전기주전자(커피포트) : 현지 구입이 가능하며 중국산보다 가격이 비싼 필립스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중국산은 국산에 비해 과전류에 약해 위험하고 오래 쓰기 어렵다.

⑦ 소형 믹서 : 현지에서 구입 가능하며 성능도 나쁘지 않다.

⑧ 스탠드 : 현지는 정전이 잦으므로 휴대용 충전식 LED 스탠드 등을 추천한다.

⑨ 휴대용 스피커 : 단원 생활이나 기관 근무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⑩ 개별스위치 멀티 탭 : 현지 멀티탭은 중국산으로 부하가 큰 전자제품 사용 시에 선이 녹는 경우가 있어 위험하다. 국산 멀티탭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⑪ 외장하드, USB메모리 : 외장하드는 2.5inch 1TB가 무난하며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담아 오면 좋다. USB 메모리는 다소 비싼 편으로 여유 있게 가져오는 것이 좋다.

⑫ 전기면도기 : 현지에서 면도기 및 면도크림을 구할 수 있으나 비싸다.

⑬ 이어폰, 헤드셋 : 수도~지방 간 버스 이동 시에 유용하다.

⑭ 프리볼트 : 르완다는 220V에 주파수 50Hz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전자제품은 220V에 60Hz으로 대부분 별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프리볼트(110~230V, 50~60Hz)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⑮ 인터넷 전화기 : 르완다는 인터넷 전화기 사용이 대체로 힘들다. 따로 기본료가 있는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여 단말기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스카이프나 카카오톡, 라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르완다의 플러그와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켓으로
르완다의 소켓과 플러그는 프랑스를 따르고 있다>

Tip. 위 사진에서 보듯이 르완다는 플러그와 소켓에 접지 핀(2개의 핀 사이에 추가로 소켓에 붙어 있는 금속 핀)이 있어 한국에서와는 호환이 되지 않는 케이블이 있다. 이에 주의하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는 추가로 핀 변환 어댑터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일반 생필품

① 화장품

선크림,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의 경우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중동, 아프리카 여성을 대상으로 만든 제품이라 SPF 지수가 낮고 향이 독특하며 유분이 많다. 또한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이 많고 가격이 비싸므로 한국에서 쓰던 화장품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르완다는 우기를 제외하고 대체로 건조한 편이므로 건성 피부일 경우 보습제품을 챙기는 것이 좋다.

BB크림, 볼터치, 마스카라 등 색조화장품은 구입하기 어려고 구입하더라도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가끔 단수가 되어 씻지 못하고 외출할 일에 대비해 향수를 가져와도 좋다.

② 욕실용품

샴푸, 린스의 경우 현지에서 팬틴(Pantene), 도브(Dove), 로레알(Loreal) 등의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곱슬머리가 대다수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후 머릿결이 뻣뻣해진다. 따라서 헤어트리트먼트, 헤어팩, 헤어에센스 등의 헤어관리 제품을 가져올 것을 추천한다.

비누 등 기타 바디용품의 경우 니베아(Nivea), 세바메드(Sebamed) 등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별다른 피부 트러블이 없다면 현지 용품 사용을 추천한다. 샤워볼은 중국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깨끗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 이태리타월을 챙겨오면 좋으며 칫솔과 치약의 경우 콜게이트(Colgate)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폼클렌징의 경우 현지에서 구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챙길 것을 권장한다. 또한 여행을 자주 할 계획이라면 여행용품 세트를 가져오는 것도 좋다.

Tip. 액체류의 경우 기내 반입이 어렵고 무거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면세제품을 추천한다. 르완다로 출국하는 비행시간은 주로 면세점 영업 종료 후이기 때문에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③ 의류 및 잡화

르완다는 일 년 내내 기온 차가 크지 않다. 한국의 봄 날씨를 생각하면 된다. 수도의 경우 더운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 날씨가 상이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긴 소매와 윈드브레이커, 후드 점퍼 등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 특히 일부 고산지대(북쪽지방의 무산제, 기춤비 등)는 두꺼운 옷을 한두 벌 정도 가져와도 좋다.

레깅스, 속옷, 양말 등은 손빨래 특성상 헤지기 쉬우므로 넉넉하게 챙겨야 한다. 신발의 경우 운동화, 샌들, 슬리퍼를 가져오면 좋다. 취향에 따라 크록스 샌들을 가져와도 좋으며 도보여행이나 등산 계획이 있으면 경등산화(트래킹화)를 지참해도 좋다. 하이힐의 경우 르완다 지형 특성상 신고 다니기 힘들다.

르완다에서는 구호물품으로 온 중고 옷과 신발을 깨끗이 세탁해 재래시장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만 프랑 내외로 크게 비싸지 않다. 시내의 KCT를 비롯해 고급 의류 · 잡화점 등에서는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가에 속한다. '보다보다'라는 현지 슬리퍼는 2,000프랑 이내에 구입할 수 있다.

르완다의 경우 한국보다 고도가 높고 그만큼 쉽게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외출 시 모자나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키갈리와 일부 지방도시에는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 있다. 수영을 좋아한다면 수영복, 수경 등의 수영용품을 가져오는 것이 좋으며 테니스장도 키갈리를 비롯해 큰 도시에는 곳곳에 있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으니 희망자는 라켓, 운동화 등 용품을 준비할 것을 권장한다.

④ 모발용품

현지에서는 단원들끼리 서로 머리를 잘라 주거나 호텔 미용실을 이용한다. 단원 스스로도 임지 파견 시에 지급되는 구급가위로 앞머리 정도는 자를 수 있다. 머리빗과 헤어 액세서리(머리띠, 머리끈 등)는 품질이 좋지 않고 디자인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

⑤ 주방용품

쇠젓가락의 경우 가끔 중국 마트에서 판매하기는 하지만 수입되는 품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챙겨오는 것이 좋다. 숟가락과 포크, 나이프 등은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락앤락의 경우 수도에 있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므로 선배단원에게 물려받을 것을 권장한다. 현지에서 파는 부엌칼은 무겁고 날이 쉽게 서지 않으므로 국산 제품을 가져오는 것이 유용하다. 또한 코팅된 프라이팬 등을 챙기는 것도 좋다. 현지는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지퍼백 등의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지퍼백과 롤 형태의 비닐 백 지참을 권장한다. 기타 국자, 뒤집개 등의 주방용품들은 현지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다.

⑥ 의약품

르완다는 말라리아 위험 국가이다. 추운 북쪽 지방에는 모기가 적고 키갈리나 동쪽 지방은 모기가 많다. 발병률은 높지 않으나 발병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현지 풍토병보다 벌레에 물려 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급받은 모기장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전기모기향을 가져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현지에는 위생 문제로 벼룩이 많다.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항히스타민 성분의 연고를 가져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버물리, 물파스, 타이레놀, 화콜, 후시딘, 마데카솔, 오라메디 등의 의약품은 현지 사무소에서 보급하니 여분을 챙길 필요는 없다. 지방은 위생이 열악해 키갈리에 비해 벼룩에 물리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는 단원이 많으므로 자신에게 잘 맞는 감기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다.

⑦ 기타 생활용품

여성의 경우 생리대를 가져와야 한다. 현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질이 떨어지고 사이즈도 다양하지 않아 2년 치를 챙겨 오거나 일정량을 챙겨 온 뒤 정착 3개월 이내에 택배로 받을 것을 추천한다.

손톱깎이의 경우 국산의 품질이 월등해 챙겨 오는 것이 좋은데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부치는 짐에 넣어야 한다. 현지의 재래시장이나 수도의 마트에서 이불을 구입할 수 있으나 고가이다. 따라서 침낭을 가져오면 여행 등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벽에 부착하는 옷걸이(실리콘을 라이터로 녹이는 제품)가 있다면 편리하다. 현지에서 파는 옷걸이는 스티커이거나 탈부착 형태로 잘 떨어진다. 악기는 기타가 약 7만 5,000프랑이며 58건반의 키보드는 약 15만 프랑에 구입 가능하다.

교통, 통신 및 인터넷

1) 교통

르완다에서는 일반적인 버스를 택시 혹은 이모도카(Imodoka)라고 부른다. 버스정류장에 Taxi Stop 간판이 있고 버스 안에서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다", "택시 안에 있다" 라고 표현한다.

① 오토바이 택시

모토(Moto)라고 불린다. 아무 곳에서나 탈 수 있어 편리하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르완다에서는 다소 위험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또한 집 앞까지 바로 올 수 있어 치안에도 좋다. 조끼와 헬멧에는 기사들의 등록번호, 운행지역,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배기량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배기량이 적은 50cc 오토바이는 번화한 지역에서 근거리로 움직이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배기량이 높은 125cc 오토바이는 중장거리를 주로 운행한다.




<승객을 기다리는 모토 기사의 모습>

금액은 기본적으로 거리에 비례한다. 거리가 짧더라도 기본요금(300프랑)을 받는다. 요금은 거리에 비례하지만 지역 간 이동 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300프랑 정도의 거리지만 지역 경계가 바뀐다는 이유로 400프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급하지 않다면 다른 모토와 협상하면 된다.

가격협상은 탑승하기 전에 해야 한다. 경험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알고 바로 지불할 '잔돈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 없이 탑승하고 도착 후 비용을 지불해도 된다.

Tip 1. 현지의 교통사정이 열악하므로 비교적 편안한 모토를 자주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모토 운전기사가 헬멧을 가지고 다니므로 꼭 착용하도록 하며, 단원의 안전을 위해 현지 사무소에서 보다 튼튼한 모토용 헬멧을 지급하니 필요시 요청하도록 한다.

Tip 2. 모토를 타고 내릴 때에는 항상 왼쪽을 이용한다. 오른쪽에 위치한 배기통이 매우 뜨겁게 달구어져 있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도록 한다.

Tip 3. 모토 운전기사들은 때때로 과속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시로 부호로(Buhoro, 천천히)라고 하며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하게 늦은 시각에 모토를 탈 때에는 운전기사가 음주, 졸음 등 부적절한 상황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외버스

수도의 경우 냐부고고(Nyabugogo)와 레메라(Remera) 버스 터미널이 있고, 지방의 경우는 보통 쿠리가레 혹은 무리가레(Kuri gare, Muri gare)라고 터미널을 지칭한다. 터미널 내에는 각 시외버스 회사의 매표소가 있고, 회사마다 행선지와 시간 정보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방 간 이동은 키갈리를 거쳐 이동하게 된다. 가격은 행선지에 따라 30분쯤 걸리는 수도 인근 지역은 1,000프랑 내외, 3시간 이상 걸리는 국경 지역은 6,000프랑 내외다. 보통은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한 후 탑승하지만 회사에 따라 전화로 미리 예약할 수도 있다.

아래 표는 키갈리에서 출발하는 각 주요 도시로의 노선(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과 가능한 버스 회사들 중 일부, 그리고 가격이다(2016년 1월 기준). 가격은 거리에 비례하여 늘어나며, 유가 변동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카롱기, 냐마타, 냔자, 루항고 등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로의 버스노선이 존재하며, 대표 버스 회사들 이외에도 Different, African Coach, Safari 등 다양한 소규모 회사들이 존재한다. 소도시로의 노선 역시도 미니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터미널에 줄지어 있는 시외버스들>

<키갈리에서 지방으로의 주요 버스 노선과 가격표 (2016년 1월 기준)>

주요 노선 (키갈리 발)	대표 버스 회사명	가격(Rwf)
무산제(Musanze)	Virunga, Kigali Coach	1,750
기춤비(Gicumbi)	Stella, Virunga	1,050
무항가(Muhanga)	Volcano, Horizon	930
후예(Huye)	Volcano, Horizon	2,510
르와마가나(Rwamagana)	International, Stella, Yahoo	1,140
키붕고(Kibungo)	Stella, Matunda	2,090

Tip. 냐부고고 버스 터미널의 경우 매우 혼잡하다. 시외, 시내버스가 줄지어 있고 각종 행상인과 승객들로 복잡하다. 소매치기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며 실제 지갑, 핸드폰 등을 도난당한 사례가 있다. 귀중품과 핸드폰 등은 주머니나 가방 안쪽에 넣고 다니도록 하며, 가방은 등 뒤보다는 앞쪽으로 매도록 한다.

③ 시내버스

시내버스는 택시라고 불리며 영어로 버스, 미니버스라고 하기도 한다. 키갈리 시내 일부 노선에서 소형 버스(흔히 마타투라고 부른다)를 운행하고 그 외에는 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 최근 키갈리 시내에는 18인승, 25인승 등의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소형버스를 줄여 갈 예정이다. 대형 버스에는 교통카드가 최근 도입되어 이용할 수도 있다.

시내버스에는 차장이 함께 탑승한다. 차장은 Convoiyeur라고 하며 이는 Convoi에서 파생된 르완다식 프랑스어 표현이다. 대부분의 버스는 만석 시에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선/간선/광역버스의 구분이 없고 내릴 때 현금 250프랑을 지불한다.

키갈리 시내버스는 보통 레메라, 무무지, 냐미람보, 까치루 등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부터 키갈리의 외진 곳까지 다니는 편이다. 아래 표는 키갈리 버스 서비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이 외에도 최대 400번대 버스까지 운행되고 있어 실제 노선은 더욱 다양하다. 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인이 가고 싶은 행선지를 차장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므로 미리 물어보도록 하자.




<시내버스는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운행되고 있다>

<키갈리 시내버스 노선표, 출처 : www.kigalibusservices.com>

버스번호	버스 노선
101	Kabuga – Murindi–Remera Taxi park – Sonatube – Rwandex – Statistique – CHUK – Bank of Kigali
102	Kabuga – Murindi–Remera Taxi park – Rwandex – Nyabugogo
103	Rubirizi – Kabeza – Remera – Rwandex – Statistique – CHUK – Bank of Kigali
104	Kanombe Military Hospital – Airport – Remera Taxi park–Sonatube – Rwandex – Statistique – CHUK – Bank of Kigali
105	Nyabugogo Taxi Park – Kinamba – Kacyiru – Remera Taxi Park
106	Remera Taxi Park – Ndera
107	Remera Taxi Park – Murindi – Masaka – Rusheshe
108	Remera Taxi park – Sonatube – Kicukiro Centre
109	Remera Taxi Park – Sonatube – Rwandex – Gikondo (Nyenyeri) – Bwerankoli
110	Masaka – Masaka Hospital – Kabuga

④ 스페셜 택시(Special Taxi)

일반적인 택시의 경우 현지에서 스페셜 택시라고 부른다. 비싸지만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 택시는 미터기 유무나 회사에 따라 구분한다. 신형 택시는 대부분 한국택시와 비슷한 외형으로 차량 지붕에 Taxi라고 적힌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요금표나 미터기가 있다. 구형 택시는 아무런 표식이 없어 일반 승용차와 구별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흰색 도요타 코롤라 차량을 택시

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터기가 없어 탑승 전에 협상을 통해 요금을 결정한다.
요금표가 있는 택시도 협상이 가능하다. 대체로 요금표 가격이 비싸 협상을 하는 편이 좋다.
미터기가 있는 택시는 미터기 요금대로 지불하면 된다. 미터기 택시는 다른 택시보다 비싼 편이다.



<시내에 줄지어 있는 택시들의 모습>

⑤ 자전거 택시(Vélomoto)
보통 재래시장 근처에서 볼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길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개 짧은 거리를 운행하지만 시골에서는 장거리 운행도 한다. 가격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자전거 택시의 모습>

⑥ 차량 렌트
차를 빌릴 때는 차량 대여 전문 업체나 여행사를 통한다.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해 여행 및 출장 시에 차량 렌트를 많이 하는 편이다. 업체에서 기사까지 한꺼번에 고용할 수 있는데 기사 추가 시에도 렌트 비용은 크게 차이가 없다. 협상 시 기름 값도 모두 포함된 것임을 확실히 하

는 것이 좋다. 사무소에서 차량 렌트를 출장 시 많이 이용하는 편이므로 필요 시에는 사무소에 먼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보통 전문 업체에 문의하는 경우 SUV를 렌트하지만, 많은 인원이 움직일 때에는 버스 회사에 문의하여 18인승 버스 또는 미니버스(마타투, Matatu)를 대여하기도 한다. 비용은 현지 휘발유 가격 또는 거리에 따라 크게 변동되며 업체마다 가격이 상이하니 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2) 통신

① 휴대전화



<르완다의 3대 이동통신 회사 로고>

현지에는 세 종류의 이동통신 회사가 있는데, 인지도가 높은 순으로 MTN(엠티엔), Tigo(티고), Airtel(에어텔) 등이 있다. 휴대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통신망은 거의 모든 곳에서 접속이 가능하여 매우 잘 갖춰져 있다. 다른 아프리카 지역은 2G만 이용이 가능한 반면, 르완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아프리카의 인터넷 강국이라 할 만큼 원활한 3G, 최근에는 4G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특징 비교>

	MTN	티고(Tigo)	에어텔(Airtel)
수신율	우수	보통	보통
요금	고가	중가	저렴하다
점유율	높다	높다	낮다
특징	대부분의 한인과 현지인이 사용하고 있다.	3G 인터넷 정액제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인터넷용으로 적당하다.	지역에 따라 수신율과 인터넷 망이 매우 원활한 경우가 있어 활용된다.

현지에 도착하여 사무소 직원의 동행 하에 보통 MTN을 개통하게 된다. 개통 시에는 500~1,000프랑 정도의 USIM 구입비와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통신비는 보통 에어타임(Airtime)이라고 부르는데 필요 시에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의 후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현지인들은 보통 2개 이상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더블 유심(USIM이 2개 이용 가능)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이는 이동 통신 간 전화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보통 같은 이동통신 내의 전화비는 그리 비싸지 않으며 프로모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장시간 통화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의 아이폰 등은 국가잠금장치(컨트리 락-Country lock)을 해제하여 가져와야 되며, 삼성의 갤럭시 등은 현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다. 한인 대부분이 인터넷을 스마트폰의 3G를 핫스팟 또는 테더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분실 및 고장의 이유로 핸드폰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지에서는 MTN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핸드폰을 포함해 HUAWEI, TECNO 등 중국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의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 등도 모두 구입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에어타임은 해당 통신회사 본점 및 분점, 길거리의 행상인, MTN의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서비스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에어타임은 100, 500, 1,000, 2,000, 5,000, 10,000 프랑 등 카드 형태로 구입을 하거나, 서비스 직원이 직접 송금해주는 형태로 구입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

르완다의 인터넷은 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에는 키갈리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4G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시내 곳곳에는 인터넷 카페 등이 생겨나고 있고 호텔, 레스토랑 등지에서는 와이파이(Wifi)를 이용할 수 있다. 현지인들은 보통 구글(Google),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왓츠앱(Whatsapp) 등을 이용한다. 통신회사에 따라 그 요금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에어타임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 데이터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 정액제로 구입하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두 방식은 데이터에 비해 요금이 매우 높아 보통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인들은 정액제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가장 저렴한 패키지는 한 달에 30GB를 사용하는 것으로 2만 1,000프랑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패키지가 있으므로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휴대전화의 인터넷을 핫스팟 또는 테더링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모뎀

(Modem)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뎀의 가격이 다소 비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 이용되거나 기관이나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모뎀은 USB형태이거나 에그(Egg) 형태로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③ 각종 서비스 정보 및 접속 코드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MTN의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한다. 물론 Tigo와 Airtel도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접속코드는 *으로 시작하여 #으로 끝이 난다.

- 요금 확인, 에어타임 충전, 인터넷 결제
  MTN 요금 확인의 USSD 접속 코드는 *131#, 에어타임 충전은 *130*에어타임코드# 이다. 인터넷 결제는 *345# 으로 접속하여 원하는 데이터 번들 또는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MTN의 경우 서비스 센터에서 모바일 머니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은행 서비스, 전기 구입, 수도세 납부, 에어타임 구입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접속코드는 *182# 이다.자세한 정보는 MTN 센터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다.

- MTN Supa Pack
  이동통신 간의 통화비는 비싼 편이지만, 슈퍼팩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장시간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본래는 MTN 간의 통화에만 적용되었었지만 최근에는 타 회사로의 통화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 매우 유용하다. 접속코드는 *140# 이며, 35, 50, 100프랑 등의 소액부터 1500, 5000프랑 등의 다소 큰 금액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액 대출 서비스
  MTN 에어타임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로, 2~3일 이후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상환하여야 하는 서비스이다. 50, 100, 250, 500 프랑 등을 빌릴 수 있으며 접속코드는 *151# 이다.

우편 및 환전

1) 우편과 택배

① 한국에서 르완다로 보낼 때

파견 전 짐을 쌀 때에, 혹은 파견 이후 필요한 물품을 한국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에 우편과 택배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많은 단원들이 식료품, 일회용품, 생필품 등을 한국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며 우편물의 종류와 무게, 배송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 인터넷우체국 EMS(ems.epost.go.kr) 등을 참고한다.

- 국제통상우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우편물로 서장, 통신문, 인쇄물, 우편엽서 등 통상적인 우편물을 말한다. 가격은 매우 저렴하지만 배송기간이 2~4주 정도로 긴 편이다.

- 국제특급우편(EMS : Express Mail Service)
  우체국 간에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빠르게 우편물을 배달해주는 특급우편서비스로, 비용은 중량에 따라 다르지만 1kg에 3만원 미만이다. 소요 기간은 르완다의 경우 약 1주일 정도로 빠른 편에 속하며, 배송 시에 KOICA 사무소로 받을 수 있어 사무소로부터 도착 사실을 전달 받을 수 있다. 단, 현지 우편 서비스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 누락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여 직접 우체국(이포지타, IPOSITA)을 방문해야 할 수 있다.

- EMS 프리미엄(EMS Premium)
  우리나라 우체국과 세계적 특송업체인 UPS사가 제휴하여 우편물을 더 빨리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우편물의 종류, 부피, 무게에 따라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요기간은 약 1주일 정도이며, 가격은 EMS보다 조금 더 비싸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현지에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고 공항에서 물건에 대해 세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MS, EMS 프리미엄 중량에 따른 요금표>

	EMS		EMS 프리미엄	
중량(kg)	서류(원)	비서류(원)	서류(원)	비서류(원)
0.5	22,800	28,600	24,700	36,800
1.0	30,600	36,300	31,500	48,300
1.5	42,100	46,300	41,000	58,800
2.0	53,400	56,400	50,400	69,300
2.5	-	64,000	-	77,700
3.0	-	71,900	-	86,100
3.5	-	79,700	-	93,500
4.0	-	87,400	-	100,800
…	…	…	…	…
10	-	180,700	-	177,500
20	-	336,100	-	327,600
30	-	492,900	-	474,600
40	-	-	-	614,000

- 사설 업체 (DHL 등)
  가격이 상당히 비싸며 배송기간은 EMS와 큰 차이가 없다.

② 르완다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한국에서 보낼 때와 달리 현지에서 보낼 때는 우체국 EMS 한 가지 방법뿐이다. 1~2 주 정도 걸리며 무게가 늘어날수록 1kg당 가격이 저렴해지므로 한번 보낼 때 적당히 모아서 보내는 것이 좋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르완다 우체국 홈페이지(http://i-posita.rw)를 참고한다.

위치는 키갈리 시내 회전교차로(로터리, roundabout) 근처에 있다.

③ 기타 정보

르완다의 우체국(이포지타, Iposita)은 열악한 현지 사정상 우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업무를 봐야 한다. EMS를 한국으로 보내거나 비 EMS 택배를 수

령할 때 우체국을 찾는다. 한국에서 보내는 EMS나 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이 기본이나 가끔씩 KOICA 사무소로 배송되어 오는 경우도 있다.
우편과 택배를 받는 주소는 KOICA 사무소로 하는 게 좋다. 개인사서함을 만들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다. 대부분의 파견 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서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지 우체국 본부는 키갈리 시내에 위치하며 지방마다 우체국 지점이 있지만 이용 상의 불편 때문에 주로 키갈리의 우체국을 이용한다.

Tip 1.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시에 항상 분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Tip 2. 르완다 입국 이후 3개월 미만자는 음식물 제외 택배물 수령 시에 세금이 면제된다.
이 점을 잘 활용하여 파견 초기에 필요한 물품을 받는 것이 좋다.

2) 현지 환전

① 은행
은행은 환전비용이 높아 추천하지 않는다. 작성해야 할 문서형식도 복잡하고 일반적인 시세보다 10~30프랑 정도 낮다. 100 달러당 1~3,000프랑을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② 일반 환전소
생활비를 환전하기 위해서 은행보다는 조금 더 환율이 높은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게 된다. 단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환전소로는 레메라(Remera)의 아마호로 경기장(Amahoro Stadium) 근처 사설 환전소, 시내 타운의 은행가 뒤편에 위치한 인도인이 운영하는 환전소, T2000 내의 환전소 등이 있다. 환율은 날마다 변하므로 필요한 만큼 환전하는 것을 권한다. 2016년 3월 기준 1달러 당 780RWF으로 환전 가능하다. 환전소에서는 달러 구권을 교환해 주길 꺼려하거나 환율이 낮다. 2009년 이전에 발행된 달러는 은행에서 교환하여 환전할 수 있다.
환전소 근처는 달러 바꿔치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늘 주의해야 한다. 환전거리에는 호객 행위를 하는 호객꾼이 많다. 호객꾼을 믿고 100달러짜리를 맡긴 뒤 마음이 바뀌어 돈을 돌려받았으나 환전소에 가서 보니 1달러 지폐로 바꿔치기 당한 사례가 있었다. 생활비로 받은 달러 중 일부가 위조지폐라고 판명되어 환전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위조 달러 구별법

최근 르완다에서도 위조 달러가 발견된 바 있다. 위조 달러의 경우에는 환전할 때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즉석에서 경찰에 신고되는 등의 곤욕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달러를 들고 빛에 비춰 보면 워터 마크가 나온다(1996년 이후 발행된 지폐만 가능). 2011년에 위폐방지 기능이 강화된 100달러가 발행되었다. 진폐에는 좌우를 나누는 청색 특수필름 띠가 있으며, 여기에 '100'과 종 무늬가 새겨져 있다. 지폐를 기울이면 이들 무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위폐는 우측에 숨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화가 다소 두껍고 투박하게 표현되어 선명치 못하다.

현지 언론 소개

1) 방송

지상파 방송은 단 한 가지 채널로 RTV(Rwanda Television)가 있다. 뉴스, 토론 프로그램, 주요 행정회의, 드라마, 스포츠 등을 3개 국어로 방영한다. 또 외국 드라마나 영화, 과학 프로그램,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해외 축구, 동아프리카 프로그램 등을 자막이나 더빙으로 방송한다. 간혹 케이블 TV를 그대로 방송하기도 한다. 새벽에는 BBC World도 방영한다.

위성 방송은 스타 타임스(Star Times), DSTV 등이 있다. 시청하는 채널에 따라 요금이 다양하며 알 자지라(Al Jazeera)부터 프랑스 24, 슈퍼 스포츠(Super Sports) 등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스타 타임스의 8개 채널 상품을 한 달에 8,000프랑에 시청하는 요금제가 가장 저렴한 상품이다. 라디오 방송은 다양한 채널이 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나 BBC와 같은 영어채널과 르완다 국영 방송사가 있다. 지역 방송국에서 만드는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다. 채널의 수는 약 30여 가지다. 르완다에는 전기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지만 라디오의 보급률은 높은 편이다.

2) 인쇄매체

① 신문

신문은 임바호(Imvaho)를 비롯하여, 뉴 타임스(New Times) 등의 국내 신문사가 있다. 임바호는 저렴하고 대중적인 신문이며 정부, 대학 및 주요 기관의 입찰 정보가 올라온다.

한인을 포함해 외국인이 자주 보는 뉴 타임스는 영자신문으로 홈페이지(www.newtimes.co.rw)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주변국에서 수입된 신문도 많다. 대부분의 신문은 노상 판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쿠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와 키갈리의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정기구독이 가능하다.

② 잡지

르완다 디스패치(Rwanda Dispatch)가 대표적이며 홈페이지(Rwandadispatch. net)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그 외에 우무라비오(Umurabyo),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뉴스위크(News Week)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잡지가 있다. 사회, 문화, 역사와 관련된 서적은 이키레지(Ikirezi)나 카리타스(Caritas)와 같은 현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은행

1) 현지 은행

일반 상업은행과 서민 대상 소액 융자를 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류로는 포퓰레르(Banque Populaire du Rwanda, BPR), 키갈리(Bank of Kigali, BK), ECO, I&M, Equity, GT(Guaranty Trust), UOB(Urwego Opportunity Bank) 등이 있다.

<KOICA 현지 사무소와 협력 관계에 있는 UOB의 로고>

계좌를 만들 때 약 1~2,000프랑의 돈이 들고 계좌를 없앨 때도 일정액의 돈이 든다.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 사본과 KOICA 사무소 혹은 근무 기관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계좌 유지비는 보통 없지만 은행에 따라 한 달 200~600프랑이 들기도 한다. 정기적금은 없고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예금상품이 있다. 보통예금은 일반적으로 이자가 없고 오히려 유지비로 수수료를 받는다. 정기예금은 2개월부터 1년까지 예금기간과 금액(50만이나 100만 프랑 이상이면 최고 이율)에 따라 4~9.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이자가 없고 유지비를 내야 한다.

Tip. 현지 적응훈련 중 UOB 은행의 계좌를 현지 사무소 직원의 동행하에 개설하게 된다. 이는 달러계좌로 사무소로부터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급받는 계좌이다. 사무소와 UOB 간의 협약에 의해, 단원들은 입출금 시 수수료가 면제 된다(2016년 1월 기준).

2)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인터넷 속도가 나아짐에 따라 현지 은행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지원하고 있다. 계좌를 생성할 시에 인터넷 뱅킹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지급 또는 생성할 수 있다. 통신사 별로 각 은행과 제휴를 맺어 모바일 뱅킹을 지원한다. MTN의 경우 모바일 머니(Mobile Money) 서비스에 접속하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단, 모바일 머니 서비스는 MTN 센터에서 직접 계정을 만든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Tip 1. 모바일 머니를 통해 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버스요금 결제, 수도세 납부, 전기(캐시파워) 충전, 통화요금(에어타임) 충전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Tip 2. UOB 현지화 계좌를 개설한다면, MTN의 mHose 서비스(UOB 모바일 뱅킹)를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UOB에서 달러를 현지화로 바꿔 입금하면, 모바일을 통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접속코드는 *501# 이다.

3) 신용카드

현지에서 우리나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다. 일부 상류층의 현지인과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호텔, 마트, 일부 소매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호텔의 경우 기본적인 해외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면 사용 가능하다. Bank of Kigali를 비롯한 현지 은행에 현지 통화 계좌를 개설하고 Debit(check) Visa card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재래시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마트나 음식점에서 별도 수수료 추가 부담 없이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현금을 지참하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현지 은행에서도 건물 안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10%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현지에서는 일부 ATM을 제외하고는 비자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마에스트로(Maestro)를 비롯한 기타 카드 사용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

1) 르완다의 주거

① 움막



<움막의 외부>

현지의 시골마을에는 움막 수준의 집이 아직 존재한다. 바닥이 다듬어진 상태도 아니며 겨우 비를 피해 지낼 수 있는 수준이다. 내부는 좁고 어두우며 습하다. 이 정도 수준의 집에 단원이 머물 경우는 없지만 현지인들의 주거 수준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이해하길 바란다. 최근에는 우무간다(Umuganda)를 통해 움막 수준의 집은 철거 및 재건축 되고 있다.

② 흙집



<흙집의 외부>

움막보다 조금 나은 집이다. 나무로 가볍게 벽을 세우고 진흙을 덧붙여 만들어 움막보다 좋지만 유리창이 없어 내부는 어둡고 축축하다. 바닥은 여전히 고르지 않고 집안에 부엌이 있거나

밖에 작은 움막이 있어 부엌 역할을 한다. 현지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집이 드물고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더욱 드물다. 조그만 마당이 딸려 있어 염소 등의 동물을 키운다.

③ 현대식 주택



<현대식 주택의 외부>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고 벽체는 벽돌로 되어 있으며 창문도 있어 괜찮은 편에 속한다. 담이 있으며 내부는 깔끔하다.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나 타일이 깔린 집도 있다.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수기가 있다. 없는 경우 임대 시 협상을 통해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전기와 수도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단원들이 살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

④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의 외부와 내부>

대문이 있고 정원이 포함되는 집으로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 중 하나다. 수영장이 있는 최고급 주택도 있지만 단원에게 지급되는 주거비로는 마련이 어렵다. 본채 옆이나 뒤에 작은 집(단칸방)이 딸려 있어 경비원이 머문다. 현지인은 이런 방을 작은 단위의 가족에게 빌

려 주고 임대비를 받기도 한다. 집안에 타일이 깔려 있고 화장실도 좋은 편이다. 온수기를 비롯해 전기, 수도시설 등이 잘되어 있다.

⑤ 아파트
아파트 형식으로 된 집은 보통 방 2개에 거실, 주방이 포함된다. 타일이 깔려 있고 아파트 측에서 고용한 경비원이 있어 안전하지만 창문에 창살이 따로 없어 불안한 면도 있다. 비교적 청결하고 깔끔해 만족하며 살 수 있다. 지방에는 드물지만 키갈리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임대료가 비싼 편이다.

2) 집을 구하는 방법

① 전문 중개인을 이용하는 방법
전문 중개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키갈리에서만 가능하다. 한국처럼 중개인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중개료도 천차만별이므로 중개인과 협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 전에 소개받는 집의 개수는 중개료와 무관하고 계약이 이뤄졌을 때 월세의 몇 %를 지불하는 형태이다. 집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집이 마음에 든다는 눈치가 보이면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약속을 하고 문서를 남겨 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 수도는 400달러, 지방은 300달러 정도의 집을 목표로 잡고 찾는 것이 좋다(2016년 1월 기준 수도의 경우 560달러, 지방의 경우 400달러까지 주거비 지원).

② 직접 발로 뛰는 방법
키갈리 일부 지역과 지방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직접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적당한 집을 발견하면 문을 두드려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고 집을 빌릴 수 있는지, 이사 계획은 없는지 물어본다. 지방의 유지들은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집을 구하고 있으면 빈집을 소개해 준다. 집을 구할 때에는 현지어 표현으로 "Ndi mo gushaka inzu yo gukodesha(은디모 구샤카 인주 요 구코데샤, I want to rent a house)"라고 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집값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 친구나 기관 동료와 동행하면 좋다.

③ 파견된 기관의 동료들에게 도움받기
파견된 기관의 현지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아 집을 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빈집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경로이나, 집의 수준이 단원들의 눈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많은 집을 본 뒤에 선택하는 게 좋으며, 기관 동료나 코워커에게 전적으로 맡겨 버리면 현지 훈련이 끝난 후 기거할 집이 없어 고생할 수 있으니, 직접 발로 뛰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3) 주택 거래 시 유용한 협상법

① 집주인이 집을 임대하는 이유를 파악하라
집주인이 유학을 떠나는지, 근무지가 바뀐 것인지, 돈이 많아 두 번째 집을 지은 것인지에 따라 협상이 달라진다. 상대방이 시간에 쫓긴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② 협상할 수 있는 패를 다 보여 주지 마라
협상은 기본적으로 탁구와 같다. 가격을 주고받아야 한다. 보통 집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의 부자라면 협상에 능숙하다. 이들은 단원이 외국인임을 감안해 최고 2배까지 높게 가격을 부른다. 우리도 현지인 수준에 맞춰 낮게 불러야 한다. 우리가 물가 수준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양보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라
낮게 불렀기 때문에 상대방도 높은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가격을 양보한다면 우리도 양보하자. 상대방에 맞춰 조금씩만 올리자. 가격을 깎아 놓으면 가구나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일단 집만 빌리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 합의하자. 가구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도 일단은 거절하고 더 깎자. 집주인이 가구를 옮겨 놓을 장소가 없는 경우 가구를 싸게 받을 수 있다.

④ 협상 후 달러로 줄 테니 조금 더 깎아 달라고 하라
집을 소유할 정도의 부자면 르완다 프랑보다 안전한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협상은 프랑으로 시작한 뒤 나중에 달러로 줄 테니 할인해 달라고 해 보자. 처음부터 달러로 진행할 경

우 환율이 바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4) 주택 계약 전 체크리스트

주거지는 근무지와 가까운 곳이 좋지만 맘에 드는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조금 멀더라도 편의시설이 갖춰진 시내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다음은 집 계약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목록이다. 르완다의 치안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때때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① 조명기구가 잘 작동하는지 전부 켜 본다.
② 콘센트는 문제없는지 모두 꽂아 본다.
③ 수압은 적당한지 물을 틀어 본다.
④ 문은 잘 닫히는지 모두 여닫아 본다
⑤ 열쇠는 잘 잠기는지 직접 잠가 본다.
⑥ 채광은 잘되는 편인지 아침, 정오에 집으로 가서 직접 확인한다.
⑦ 주변에 소음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학교, 종교시설) 확인한다.
⑧ 외부 벽에 침입 방지용 장치(깨진 유리, 철사 등)가 있는지 확인한다.
⑨외부인 확인 고리, 인터폰, 방범창, 이중 잠금장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Tip 1. 후임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선임 단원이 살았던 집을 이어받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Tip 2. 주거계약서의 견본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실제로 KOICA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나 집주인이나 중개인에 따라 다른 형식을 사용해도 된다.

5) 공과금 납부 방법

① 수도요금 납부 방법

르완다에는 2015년 이전까지 수도와 전기를 공급하던 회사가 각각 분리되어 현재 수도는 WASAC(Water and Sanitation Corporation Ltd)이 공급하고 있다. 수도는 한 달에 한 번 점검원이 와서 외부에 설치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고 사용명세서를 발급해 준다. 명세서를 가지고 사무소에 가서 납부한다. 은행도 가능하나 서류 작성 및 절차가 복잡해 잘 이용하지 않는

다. 단원들은 보통 하우스보이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집주인을 통해 내기도 한다. 만일 수도요금이 장기간 체납되면 수도가 끊기기도 한다. 보통 한 달 수도요금은 3,000프랑 내외이다.



<WASAC에서 발행하는 수도요금 인보이스 견본>

② 전기 충전법



<전기 선불제 충전 영수증 견본>

전기는 REG(Rwanda Energy Group)에서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택은 선불 방식으로 캐시파워(Cash Power)라는 기기가 주택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이 캐시파워는 일종의 계량기로 미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충전하여, 원하는 만큼의 전기량을 사용하는 형태이다. 시내에 Electric 또는 Umuriro, Amashanyarazi 등의 현지어가 적혀 있는 곳에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 캐시파워의 겉에는 각각의 계량기 번호(Meter Number)가 적혀 있으며, 이를 해당 상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다. 20자리의 번호가 인쇄된 종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계량기에 입력하

면 전기가 충전된다. 아파트나 일부 주거의 경우에는 후불제로 사용요금표를 출력받아 수도 요금처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최근에는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전기를 충전할 수 있기도 하다. 전기요금은 냉장고나 전기장판 등 전자제품의 크기와 수, 정격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의 단원들은 한 달에 1만 5,000프랑 내외를 지불한다.




<널리 보급된 형태의 캐시파워(좌)와 최근 보급되고 있는 캐시파워(우)의 모습>

현지 물가와 마트

1) 현지 물가 조사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여 비슷한 가격대가 있는 물품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1.5배에서 가장 비싸게는 2.5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다.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비교적 싼 편이며,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매우 비싸다. 전자제품이 특히 비싸며, 일회용품이나 근처 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생필품은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오래 사용이 가능하거나 비싼 물품의 경우, 혹은 본인의 기호 및 건강에 따라 가져와야 하는 물품들(예를 들어 의약품, 화장품, 속옷, 기타 공구 등)의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을 권하고, 일회용품이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 현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물품들은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다음 표는 키갈리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의 가격들로 제품군의 평균 가격 또는 저가들을 조사한 것이다. 제품의 상태, 종류, 제조회사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도록 하자. 가격은 모두 르완다 프랑(Rwf)이다.

<현지 물가 조사표 1 - 사무 관련 용품>

공책	300	검정색 펜	100
계산기	6,300	A4 500매	3,900
파일철	2,100	편지지 10매	1,500
양초(중)	2,500	양초(소) 100개	9,200

<현지 물가 조사표 2 - 전자 제품, 주방기기 관련>

선풍기	42,000	가스스토브 (2구)	38,000
냉장고 (중형)	250,000	헤어드라이어	20,500
토스터기	15,000	다리미	15,000
전기주전자	15,000	믹서기	34,500
전기밥솥	25,000	체중계	7,800

<현지 물가 조사표 3 - 식재료 관련>

당면 500g	3,200	중국간장 (750ml)	5,650
굴소스 (700g)	4,500	식용유 1L	2,100
올리브오일 500ml	3,700	식초 750ml	700
화이트페퍼 100g	1,900	참치 통조림 150g	2,600
국수소면 425g	1,950	마요네즈 473ml	2,500
케첩 300g	1,300	옥수수 통조림 425g	1,500
타바스코-핫소스 60ml	3,700	딸기 잼 450g	2,850
꿀 1kg	3,000	소금 500g	250
설탕 1kg	850	블루밴드 1kg	2,800
물 1.5L	450	오렌지주스 1L	1,300
우유 1L	850	코카콜라 1.5L	1,500

<현지 물가 조사표 4 - 의류 관련>

수영복	6,300	와이셔츠	8,300
양말	500	이불(시트, 커버 세트)	36,800

베개	4,600	수건	2,000
배낭	13,800	우비	5,600

<현지 물가 조사표 5 -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관련>

장우산	5,500	손톱깎이	700
소형 자물쇠	1,300	대형 자물쇠	5,600
숟가락	400	나이프	600
포크	700	플라스틱 용기(중형)	4,850
플라스틱 컵	500	옷걸이 10개	3,200
빗자루 쓰레받기	1,150	변기솔	3,200
플라스틱 대야	4,800	손거울	2,000
전신거울	14,400	전기모기채	6,700
샴푸(Dove) 375ml	7,800	손세정제(데톨)	2,700
세제 500g	1,000	비누	700
칫솔	700	치간칫솔	1,300
샤워볼	900	면봉 200개 묶음	1,400
수세미 5개 묶음	900	양철 대야	6,350
철 냄비	15,000	도마	4,500
알루미늄호일 20m	2,650	프라이팬	9,000

2) 현지 마트 안내

① 나쿠마트(Naku Matt)

나쿠마트와 심바 슈퍼마켓은 키갈리 타운에 위치한 현대식 마트다. 나쿠마트는 현지 최대, 최고 규모로 중국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 공산품을 구할 수 있다. 가격할인이 거의 없고 감자, 과일 등 농산물의 경우 재래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 나쿠마트는 시내 중심부의 유니온 트레이드 센터(Union Trade Centre, UTC)와 키갈리 시티 타워(Kigali City Tower, KCT)등 2곳에 위치해 있고, UTC의 경우 24시간 운영한다.



<UTC에 위치한 나쿠마트의 입구>



<키미후루라에 위치한 심바 슈퍼마켓>

② 심바(Simba) 슈퍼마켓

심바 슈퍼마켓은 중동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나쿠마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수입 공산품을 접할 수 있다. 시내 중심가의 UTC 건너편, 그리고 키미후루라(Kimihurura)의 검찰청(National Public Prosecution Authority) 옆 등 2곳에 위치해 있다. 키미후루라 지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③ T2000 (떼 드밀)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장 큰 중국 마트다.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이며 젓가락 등 아시아 문화권 사람을 겨냥한 물품을 판매한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 라면, 소주, 된장, 과자 등이 주로 수입되지만 물품이 들어오는 시기는 때마다 다르다. 중국 식재료의 경우 맛은 조금 다르지만 간장, 식초, 춘장, 소면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어 한인들이 주로 찾는 마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일회용품과 전자제품, 의류, 침대용 물품 등을 취급하고 있어 지방 파견 전 나쿠마트, 심바, T2000 등을 돌아보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



<T2000에서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Tip 1. 지방 파견 전 주로 구입하게 되는 물품들로는 이불, 베개, 침대보, 커피포트, 냄비, 접시, 숟가락, 포크, 수세미, 컵, 플라스틱 용기, 비누, 세제, 벌레용 스프레이, 방향제, 거울 등이 있다.

Tip 2. 지방으로 파견되는 단원의 경우, OJT 기간에 기관에 미리 차량 지원을 약속받거나 코워커의 도움을 받아 수도에서 물품을 실어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의 경우는 시내에서 택시를 빌려 물품을 운반하기도 한다.

④ 싸와 시티(Sawa City)

위에 언급한 마트들은 대형 마트로써 규모가 매우 크지만, 싸와 시티의 경우는 소규모에서 중간 정도이다. 카워시(Car wash), 레메라(Remera) 등에 위치한 곳은 비교적 중간 정도 규모이며, 시내 곳곳에 위치한 주유소에 편의점 형태로 입점해 있다.

특히 카워시 지점의 경우 종종 냉동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르완다는 내륙에 위치한 나라이므로 해산물은 모두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격이 매우 높아 단원들 식당에서 사 먹기엔 부담스럽다. 냉동된 문어, 새우, 연어, 홍합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카워시에 위치한 싸와 시티 내부 모습>

⑤ 정육점(Butchery)

- 저먼 부처리(German Butchery)

  대형 마트에서도 고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신선한 고기를 구입할 때에는 독일인이 운영하는 이 정육점을 많이 이용한다. 돼지, 소, 양, 염소, 닭 등 여러 종류의 고기를 취급하며 간고기(Minced meat), T본, 내장, 목살, 앞다리 등 다양한 부위를 고를 수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목살(Pork neck)과 앞다리(Fore leg), 쇠고기의 경우는 살코기(Fillet) 등을 애용한다. 위치는 시내 벨기에 학교(Ecole Belge, 에꼴 벨쥐) 뒤편에 본점이 있고, 냐루타라마(Nyarutarama) MTN 센터 1층에도 있다.



<저먼 부처리에 진열된 다양한 고기들>

- 로컬 부처리(Local Butchery)

  지방의 경우는 현지 정육점이 있는데 보통 쇠고기를 취급한다. 대부분 시내 중심지 혹은 시장 내부에 위치해 있다. 간판에는 Ducuruza Inyama(We sell meat) 라고 적혀 있거나 Butcherie 라고 프랑스어로 적혀 있기도 하다. 도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부위별로 구입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현지인들은 보통 소시지를 구매한다. 위생이 좋지 못한 곳도 더러 있으므로 구입 전에 내부 시설과 냉장고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고기는 잘 익혀서 먹도록 한다. 키갈리에서 멀지 않은 지방에 사는 단원들은 키갈리 시내에서 냉동된 고기를 사서 직접 지방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⑥ 로컬 마켓(Local markets)

대형 마트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시내까지 나가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집 근처의 상점이나 시장에 가야 한다.

- 재래시장

  지역별로 3, 5일장이 서고 큰 지역은 상설시장이 열린다. 보통 과일(만다린, 망고, 구아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야채(토마토, 양배추, 감자, 고구마, 양파 등), 육류, 어류, 의류, 신발 등 생필품을 팔고 있다. 대형 시장에서는 동양인이 찾는 배추, 대파, 쪽파, 마늘, 생강 등의 제품 또한 구할 수 있다. 농산물은 시내의 마트보다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찾게 된다.

- 알리멍타시옹(Alimentation) / 부티크(Boutique)

  집 근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식료품점이다. 과자, 달걀, 빵, 쌀, 밀가루, 식용유, 토마토소스, 감자, 고구마, 양배추, 물, 주스 등 현지인이 섭취하는 기본적인 식료품을 취급한다. 숯, 비누, 휴지 등의 기본적인 공산품도 판매한다.




<부티크 입구에 전기 구입, 에어타임 판매, 수도요금 납부 여부 등이 안내되어 있기도 하다. 취급하는 물품은 가게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소매점

  르완다 시내에는 노트북, 컴퓨터 및 부품에서부터 각종 공구, 옷을 파는 소매점이 매우 많다. 단, 소매점마다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여 있지 않으므로 발품을 팔아야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의류 구매

현지 시장에서 여러 의류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재단용 천을 구매한 후 전통 맞춤복을 제작할 수도 있다. 시장에는 재봉틀을 갖춘 재단사들이 있어 맞춤 제작의 경우 약 2~3일의 제작기간이 필요하다. 키갈리의 냐부고고시장에서 중고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의류 전문 소매점에서 비싸지만 좋은 품질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 신발의 경우 시장보다 전문점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를 볼 수 있다. 나쿠마트와 심바 슈퍼마켓 같은 마트에서도 다양한 옷을 찾아볼 수 있다. 현지에는 길에서 물건을 파는 행상인도 상당히 많다. 20벌 내외의 옷을 들고 골목을 다니거나 도로변에 옷을 들고 서서 판매한다. 신발을 판매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으며 많은 현지인이 행상인을 통해 구매한다. 비교적 저렴하며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 줄지어 있는 소매점들>





<재래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중고 의류와 신발을 구입할 수 있다>

현지에서 세탁소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빨래의 경우 무리 없이 맡길 수 있지만 드라이클리닝은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한다. 간혹 드라이와 물빨래의 차이를 모르는 세탁소도 있다. 나쿠마트 건물에 있는 세탁소를 추천한다. 드라이클리닝에 보통 4~5일이 걸린다.

Part. Ⅱ

유용한 생활 정보



긴급연락처

1) 르완다 KOICA 사무소 주소 및 연락처

KOICA Rwanda Office,

Plot No. 10050, Nyarutarama,

Kigali, Rwanda (P.O.Box 3182)

Tel 250-252-585-506

Fax 250-252-585-508

2) 현지 비상연락처

현지인은 공권력에 무척 협조적이다. 현지 생활 중 위험에 처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서의 대표 사서함은 P.O.Box 6304 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poice.gov.rw0 이다.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비상연락처>

경찰서	311
화재	111
긴급전화/의료	112
도로 교통사고	113
응급지원	912
경찰권 남용	3511
성폭력	3512

3) 인터내셔널 SOS 비상 전화번호와 이메일

응급상황 시 한국에 있는 SOS와 전화를 할 수 있다. 해외전화의 경우 기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0번을 길게 누르면 +를 누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코드는 820이고 이후 한국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SOS 인터내셔널 메일로 문의를 넣으면 하루 안에 답변과 전화가 온다.

TEL: +82 2 3140 1770

e-mail : selopsmedical@internationalsos.com

의료기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감기 그리고 설사이다. 이러한 경우 파견 이후 지급되는 구급상자에서 타이레놀, 화콜, 정로환 등 적절한 약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 한하여 과용 또는 오용 없이 사용해야 할 것이며, 가장 정확한 진단은 병원으로 직접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특히 감기의 경우는 많은 위험한 질병들과도 그 증상이 비슷하므로 구급상자의 말라리아 키트 혹은 병원에서의 피검사(Blood Test)로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평상시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KOICA 간호단원 또

는 한인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SOS로 연락을 취하고 병원에서의 정밀한 검사와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것을 권한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2년간의 단원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스로 잘 관리하여 건강하게 귀국하자. 본부에서 배부한 해외봉사단 안전관리지침을 참조하면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1) SOS 홈페이지 접속 및 르완다 정보 확인 방법



<SOS 인터내셔널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SOS 인터내셔널 로그인 이후의 화면>

- http://www.internationalsos.com 접속-상단 로그인, 회원번호 입력 후 나라를 선택한다.
- 회원번호는 파견 시 수령할 수 있는 SOS 카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 안전, 질병 등 관련 정보가 꾸준히 업데이트 되므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리포트 메일 신청 시 업데이트 내용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2) 현지 병원 정보

① 지역의 대표 병원 정보

키갈리의 경우는 비교적 위생적으로 깔끔한 편이고 CT, MRI 등의 정밀 검사도 가능한 반면, 지방 병원은 진료가 가능한 분과가 부족하거나 검사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단원들은 감기나 간단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은 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약 또는 본인이 가져온 약으로 치료한다. 다만,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대비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수도인 키갈리로 후송 및 이동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KOICA 봉사단원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 병원 정보>

지역	지역의 대표 병원	접수 및 비상번호
키갈리(Kigali)	King Faisal Hospital	(250) 3939 (250) 3938 (250) 252 588 888
기춤비(Gicumbi)	Byumba Hospital	(250) 078 850 8448
무산제(Musanze)	Ruhengeri Hospital	(250) 078 882 8441
후예(Huye)	NUR Hospital	(250) 078 859 2150
무항가(Muhanga)	Kabgayi Hospital	(250) 252 648 507
르와마가나(Rwamagana)	Rwamagana Hospital	(250) 078 886 4446
키붕고(Kibungo)	Kibungo Hospital	(250) 078 869 0461

② 키갈리 병원 정보

- 킹 파이잘 종합병원(King Faisal Hospital)

  SOS 소개 병원이며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편이라 아침 일찍(오전 7시 30분 영업 시작) 가는 것을 추천한다. 또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해 두고 30분 전 쯤 도착하면 예약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처음 가면 접수처에서 진료카드를 만들고 차트를 작성한다. 이때 진료에 앞서 보험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권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직원과 의사에게 KOICA 단원이라고 말하면 잘 처리해 준다. 24시간 진찰이 가능하며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다. 종종 당일 예약이 안 되고 2~3일 후에나 예

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통증이 심하거나 급히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라면 곧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위치는 까치루(Kacyiru) 우무바노 호텔(Umubano Hotel) 뒤편에 있다.
Tel : 252 588 888, 252 582 421, 252 582 654, 252 582 655

- 바호 메디컬 센터 (Baho Medical Center)
킹 파이잘보다는 작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병원이다. 바호 메디컬 센터에서는 킹 파이잘과 마찬가지로 여권 사본을 지참하고 가야 하며, 미리 예약을 해 두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치과는 물론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정신과 등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위치는 타운 세레나 호텔(Serena Hotel) 근처에 있으며, 최근에 제2병원을 냐루타라마(Nyarutarama) MTN 센터 근처에 신설하였다.
Tel : 078 875 9007, 078 305 2460, 078 852 3734

- 플라토 종합 클리닉 (Polyclinique du Plateau)
킹 파이잘과 바호의 경우는 규모가 매우 커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 플라토 종합 클리닉의 경우는 30분 정도면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 간단한 증상은 물론 CT 촬영, 골절 진단, 말라리아 테스트 등의 필수적인 검사와 진단은 모두 가능하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운의 시청(City Hall) 근처에 위치해 있다.
Tel : 078 830 1630

- 피네다 덴탈 클리닉 (Pineda Dental Clinic)
치과의 경우 다른 증상에 비해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일 수 있다. 다양한 현지 치과 의사가 르완다에도 있지만, 비교적 장기간 르완다에서 거주하며 진료를 보고 있는 외국인 치과의사인 피네다의 개인 치과를 소개한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추천을 하는 만큼 위생적으로도 깔끔한 편이다.
Tel : 078 856 4377

그 외에 다양한 병원 정보에 대해서는 르완다 KOICA 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주 르완다 미국대사관 사이트(http://rwanda.usembassy.gov)를 비롯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서 얻을 수 있다.

3) 진단별 응급조치 방법

① 말라리아

- 증상: 초기 증세는 감기와 유사. 두통, 고열, 오한, 몸살, 근육통 등 증상이 다양하다.
- 원인: 모기를 통한 말라리아 원충 감염
- 예방

  모기에 안 물리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잘 때 꼭 모기장을 치고 피레스로이드(Pyrethroid) 성분의 모기향을 피운다.

  평소 방문을 잘 닫는 습관만으로 모기 유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해 진 후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모기에 물리는 것을 방지한다.

  모기 기피제를 옷에 발라 모기를 쫓는다.
- 처치: 말라리아가 의심될 때는 충분한 영양과 휴식만으로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병원에서 말라리아 검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해 주는 코어템, 메플로퀸, 라리암 등의 약을 복용한다.

  르완다는 다른 인접 국가보다 말라리아가 적게 발병하는 편이지만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이므로 단원생활 내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② 식중독

- 증상: 심한 복통, 구토, 설사 →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자연 회복되나 위험한 경우도 종종 있으니, 증상이 가볍지 않을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원인: 세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음식 섭취
- 예방

  음식물 냉장고 보관, 하절기 노상음식 자제하기

  과일 야채는 흐르는 물에 씻고 육류는 확실히 익히기
- 처치

  칼로리 함유 음료 조금씩 자주 섭취(유제품, 커피, 탄산음료, 신 과일 금기)

  24시간 고형음식 금기 후 미음이나 죽으로 식사 시작

  지사제, 진통제 자제 및 휴식
- 참고처방

  안티날(Antinal/항생제) 1/8hrs

드로타지드(Drotazide/항경련제) 1/8hrs 또는 정로환
타이레놀 ER(Tylenol ER/해열진통제) 1/8hrs

- 이럴 때는 의사에게
  심한 복통을 동반하며 어지러워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
  체온이 38.8℃ 이상으로 어지럽고,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때
  변이나 토사물에 혈액이 보일 때
  마비 증상이나 복시, 호흡곤란, 사지 무력감 등의 증상이 보일 때
  평소 간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이 어패류를 먹은 후
  오한과 열이 나고, 의식이 흐려질 때

③ 감기

- 증상: 코감기, 목감기, 기침감기 등 증상이 다양하며 대개 발열, 오한과 함께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 설사나 결막염이 동반하기도 한다.
- 참고처방
  기침 : 코푸(Cough)시럽 60cc 1/8hrs, 레스피렌(Respilene)시럽 45cc 1/8 hrs
  가래 : 뮤코펙트(Mucopect) 1/8hrs, 뮤코졸(Mucosol) 1/8hrs
  콧물 : 알레그라(Allegra) 120mg 1/8hrs, 액티피드(Actifed) 1/8hrs
  소염제 : 세로나제 1/6hrs, 소마겔(Somalgel) 1/12hrs 2정
  항생제 : 아목시실린 1/8 hrs, 세프질(Cefzil) 1/8hrs
  해열제 : 타이레놀 ER(Tylenol ER) 1/8hrs
  복합증상으로 약 복용 시 훼스탈 1정과 함께 복용
- 이럴 때는 의사에게
  인후통이 심해지거나 인후나 편도에 하얗거나 노란 점이 낀 경우
  기침이 열흘 이상 지속되거나 기침을 하지 않을 때에도 숨쉬기 어려운 경우
  밤이나 이른 새벽 특히 기상 시에 기침이 심한 경우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
  38.3℃ 이상의 열이 나고 오한이 심할 때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찰 때
  귀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긴 경우
  상악동 부위(광대뼈 부위)가 아프거나 이가 아픈 경우

피부에 발진이 돋는 경우
의식 상태가 나빠질 때

4) 보건 FAQ

①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의 하나가 설사 및 복통이다. 대부분의 설사는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여행자 설사에 의한 것인데 장점막이 다시 재생되는 2~3일 이내에 아무런 치료 없이도 회복이 가능하다.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구강 식염수(Oral saline/소금, 설탕 등의 성분으로 전해질을 공급함)를 물에 타서 먹으면 회복이 빠르다. 설사가 있을 때에도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면 회복이 빠르다. 38° 이상의 열이 날 경우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성 설사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을 500mg씩 하루 두 번 식후에 복용 하는 것이 좋다. 이때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하다. 배 아픈 증상이 심할 때는 항경련제(항콜린제)를 복용하는 것이 복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스코판(Buscopan)이나 히오신(Hyoscine)과 같은 약이 있으나 복통이 아주 심할 때에만 복용하는 것이 좋다.

② 목이 아프고 감기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목기라고 불리는 인두염(혹은 편도선염)인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글링(Listerine)을 하고 잘 쉬면 대부분 3~4일 안에 낫게 된다. 하지만 열이 나고 편도선이 많이 붓거나 편도에 심한 염증 소견이 있는 경우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목시실(Amoxicilline) 500mg을 하루 두 번, 4~5일 정도 복용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 소염제(타이레놀-현지에서는 파라세타몰 (Paracetamol) 500mg 하루 2~3회 복용, 혹은 이부프로펜(Ibuprofen) 200mg 하루 2~3회, 디클로페낙(Diclofenac) 50mg 하루 2~3회 복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이 있음)를 복용하기도 한다.

③ 감기에 걸린 후에 귀가 아픈데 중이염인가요?
감기 후에 귀가 아픈 증상이 심한 경우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고막을 진찰해야 하므로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고막에 염증소견이 보이면 중이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항생제 점이액을 사용한다.

④ 음식을 먹은 후 온몸에 두드러기나 나고 가려운데 식중독인가요?
일반적으로 음식물 속의 미생물에 의한 독소 때문에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식중독이라고 한다. 치료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자연적으로 낫게 된다. 음식을 먹은 후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운 경우 식중독이 아닌 식품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증상이 심할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해 항히스타민제(Cetrizine 10mg, 하루 두 번)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 르완다의 해충과 퇴치 방법

① 모기
현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해충이다.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주 매개체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모기를 없애자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북쪽 지방인 무산제 같은 비교적 추운 지역에는 모기가 없는 편이지만 키갈리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 우기와 같이 추운 시기에는 눈에 덜 띄는 경향이 있다.

- 모기장을 치고 자면 예방이 된다.
- 모기장은 튼튼하고 살충제가 도포된 것이면 좋다.
- 국화를 주성분으로 한 피레스로이드(Pyrethroid) 계열의 모기향을 피우고 자는 것이 좋다.
- 낮에 방문을 닫아 놓는 것만으로도 모기의 유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Tip. 파견 시 지급되는 상자에 대형 모기장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지에 따라 모기장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 꼭 모기장을 설치하고 자도록 하자.

② 벼룩(Flea)
르완다에 살면서 빈번하게 고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벼룩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위생이 열악한 현지에서는 수도와 지방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지 버스나 시장 등 주로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공간에서 물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벼룩은 좁쌀(2~4mm)만한 크기로 갈색이며 납작한 모습을 하고 있다.
- 인간이 숙주이며 침구류, 옷 등에 알을 낳으면서 기생한다. 피부에 알을 낳기도 한다.
- 성충이 되었을 때 숨어 있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이산화탄소와 땀 냄새 등을 감지하고 문다.
- 물리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빨갛게 올라오며 물린 부위가 크지 않고 가운데 빨간 점이 있다. 한 자리에 두세 번을 무는 습성이 있다.

- 발견 즉시 침구류와 속옷을 포함한 그날 입은 옷, 전날 입은 옷을 모두 뜨거운 물에 세탁, 일광 건조해야 한다.
- 가렵지 않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다.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긁지 않는다.
- 까만 가루 같은 쉼표 모양의 벼룩 배설물을 통해 벼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침대 보 밑을 확인하자.
- 벼룩은 낮에도 활동하므로 옷에 붙어 있는 벼룩을 통해 낮에도 물릴 수 있다.
- 벼룩을 발견할 시 단단한 손톱이나 물건으로 눌러 죽여야 한다.

③ 빈대(Bedbug)

최근 들어 르완다에서도 빈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빈대는 영어로 Bedbug이라고 하는데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에 기생하는 벌레다. 2007년 뉴욕에서 빈대가 대 유행하여 방역업체들이 호황을 누렸던 사례가 있었다. 그만큼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해충으로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아 박멸이 어렵다.

- 노린재 모양으로 타원형의 납작한 형태이며 벼룩보다 조금 더 크다(4~5mm).
- 사는 곳: 벼룩과 다르게 사람 몸에 붙어 살지 않고 침대 프레임, 매트릭스 사이, 벽 틈, 가구 틈에 산다.
- 새벽 3~5시 사람이 가장 취약한 상태일 때 활동한다.
- 피를 빨지 않고도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다.
- 물릴 당시에는 바로 가렵거나 아프지 않고 나중에 심한 가려움을 느낀다.
-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를 먹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다.
- 퇴치는 벼룩보다 어려운 편으로 침구류와 의복을 세탁하는 것은 물론 빈대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청소, 살충하고 원천 봉쇄해야 한다. 또한 남아 있던 빈대 알이 부화하는 2차 시점에 다시 살충해야 한다.

④ 나이로비 플라이(야무차)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최악인 해충으로 나이로비 플라이를 꼽는다. 현지에서는 야무차라고 한다. 물지는 않지만 닿기만 해도 벌레의 강한 산성 때문에 마치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상처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벗겨진다. 키갈리보다 지방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

- 개미와 같이 약간 길쭉하고 6~7mm 정도의 크기로 몸통에 붉은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있다.

- 물지는 않지만 닿기만 해도 벌레가 가지고 있는 산성 독 때문에 피부에 일종의 화상 증상이 나타난다.
- 피부가 붉게 일어나고 수포가 생기거나 당기는 증상이 있다.
- 증상 부위를 만진 손으로 다른 부위를 만지면 전염된다. 눈을 만지면 일시적인 실명 증세도 보인다.
- 우기가 끝난 뒤인 5~6월에 빈번하게 출몰한다.
- 피부염이 생긴 부위에 하이드로코티존 크림(Hydrocortisone cream)을 바르고 진통제를 먹어 치료한다.



<나이로비 플라이의 모습>

6) 보험

KOICA는 병원비 등과 관련한 보험을 단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한다.

① 보상하는 손해

- 업무상, 비업무상 발생한 재해나 질병에 대해 보상한다.
- 보험금 지급기한 : 현지에서 발생한 질병, 사고로 인한 치료는 완치 시까지 보상한다.(현지 발병 증빙서류와 동일질병이라는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중독, 마취, 만취 등으로 생긴 손해
- 과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오락(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자동차경주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자해, 자살, 자살미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 한국 표준 질병 사인분류에 다음과 같이 분류된 질병이나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악성 신생물 C00-C95, D00-09/ 당뇨병 E10-E14/ 만성 류마티스성 심질환 I05-I09/ 고혈압성 질환 I10-I15/ 허혈성 심질환 I20-I25/ 기타형의 심질환 I35-I52/ 뇌혈관 질환 I60-I69)
- 매독, 임질, AIDS, 기타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시력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약화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
- 치아 보철 치료와 관련된 손해
- 군인이 아닌 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중에 생긴 손해

③ 의료비 청구 방법

㉠ 병원 진료 및 치료

병원에 가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다. 보험 처리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등을 수령한다.

㉡ 약 조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한다. 약제비 영수증을 수령한다.

㉢ 보험비 청구

치료비용은 먼저 단원이 지불한 후 KOICA 사무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험이 처리된 다음 단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다.

-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의료비 지출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소견서, 초진기록지,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CT, MRI, 초음파는 검사결과지 함께 첨부)
- 치과진료: 개인 청구 형식이므로 보험금청구서(개인 청구용)작성, 치과 진료는 위의 제출서류 외에 진료 차트와 진단서를 필히 제출, 국내 개인 통장으로 입금

④ 기타 참고사항

- 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단원 본인이 부담한다.
- 귀국(계약종료일)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와 현지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국내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병원을 방문하여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메디컬리포트)를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현지에서의 발병 또는 사고를 입증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1) 현지 치안 상태

- 르완다 정부가 치안유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치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인접국인 DR 콩고나 부룬디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며 반군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제노사이드 추모기간(4월 7일부터 약 2주)을 전후로 수류탄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최근에는 소요사태나 데모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다.
- 경찰 병력이 주요 시설 및 도로에 상주하며, 야간 군경 순찰이 이루어진다. 범죄율이 낮고,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범죄는 생계형 절도 범죄(소매치기, 도난 등)이다.
- 북서쪽 지역은 화산 피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인접 콩고 고마 지역에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 있다. 2002년 10월, 2005년 12월, 2008년 2월, 2015년 8월 등 수차례 진도 5~7 사이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 그 외의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사건 ·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고 KOICA 사무소에도 신속히 연락을 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해 현재 상태가 즉각적으로 공유되며, 비상대피 계획이 사무소에서 매달 메일을 통해 업데이트 되므로 숙지하도록 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소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다.

2) 주요 사건, 사고 유형 및 사례와 대처요령

① 소매치기

- 2010년 4월 국내 여행 중이던 단원이 지방에서 아이들에게 약간의 현금을 소매치기 당함
- 2011년 6월 시내에서 금품을 소매치기 당함
- 2014년 9월 KOICA를 잘 아는 듯 접근한 현지인에게 핸드폰을 빌려 주었다가 도난당함
- 2015년 10월 단원이 시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가방에 있던 지갑을 소매치기 당함. 생활비(400달러), 은행 카드, 단원증 등 물품 피해를 입음
- 대처요령

  ㉠ 사람이 많이 모인 지역에 갈 때는 가급적 현금을 많이 지참하지 않도록 한다.

㉡ 가방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잠금장치를 해 놓는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도보로 이동 중 이어폰 사용으로 소매치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② 강도
- 2009년 11월 밤 10시경 시내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단원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귀중품 및 현금을 강탈당한 사건.
- 2011년 3월 유숙소에 괴한 2명이 침입하여 경비원과 유숙소 관리인을 위협, 물품을 훔쳐 간 사건(봉사단원 유숙소).
- 대처요령
  ㉠ 저녁 7시 이후에는 되도록 외출하지 않는다.
  ㉡ 빈민가 등 치안이 좋지 않은 우범지역에는 가지 않는다.
  ㉢ 특히 여성 단원의 경우 여러 명과 함께 다닌다.
  ㉣ 값비싼 장신구나 옷을 입는 경우를 삼간다.
  ㉤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현찰을 보여 주거나, 물건 값에 비해 너무 큰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이동 시 이어폰을 너무 크게 사용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지 하지 못하는 행동을 삼간다.
  ㉦ 근무기관 이동 시 외진 골목이나 공원 등 조명이 없는 곳으로는 다니지 않는다.

③ 도난 및 절도
- 2012년 1, 3월 새마을 단원 집에(기호궤 마을) 침입하여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감
- 2012년 4, 6월 새마을 단원 집에(키가라마)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현금 및 귀중품을 훔쳐감
- 2012년 9월 야간을 이용하여 단원 거주지 벽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감. 단원 상해 사례 없음
- 2014년 7월 단원이 수업을 하러 간 사이, 도둑이 거주지(르와마가나)에 침입해 노트북을 훔쳐감
- 2014년 12월 새벽 단원 취침 중임에도 거주지(무산제)에 도둑이 침입하여 현금 및 가전제품을 훔쳐감
- 2015년 10월 단원 집에(르와마가나) 침입하여 방에 두었던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도난당

함. 도둑이 창문의 귀퉁이를 깨고 창문을 열어 물품을 훔쳐감

- 2015년 10월 새마을 단원이 집(냐마가베)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커튼 너머로 낯선 현지인이 창문을 부수려는 것을 목격함. 소리를 지르자 도둑이 도주했음. 단원에게 물리적 피해는 없었으나 정신적 충격이 컸음
- 대처요령
  ㉠ 대문이나 창문은 철저히 잠근다.
  ㉡ 창문은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나 커튼을 친다.
  ㉢ 주거지에 이중 잠금장치와 안전장비를 꼭 구비하고 외부로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창, 자물쇠를 설치한다.
  ㉣ 장기간 외출하는 경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 및 귀중품을 사무소나 동료단원에게 맡긴다.
  ㉤ 주거지 및 동료 단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코워커에게 알린다.
  ㉥ 외부에 자신의 물건이나 돈을 자랑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간다.
  ㉦ 가사도우미를 지나치게 믿고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 지나치게 가사도우미를 하대하지 않는다.
  ㉨ 집 주변 이웃들을 숙지하고, 긴급 상황 시 도움을 구한다.
  ㉩ 집안에 도둑이나 강도의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주변의 도움 요청 및 사무소로 연락한다.

④ 성범죄

- 2014년 6월 새마을 단원이 길에서 성추행을 당함. 인상착의가 불분명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안정될 때까지 다른 장소의 동기 단원 집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함
- 2015년 5월 마을(가사루-라로)에 고등학생 무리가 혼자 귀가 하던 새마을 여자단원에게 '자신들과 잠자리를 가지자'는 등의 성희롱을 함
- 대처요령
  ㉠ 호신용 도구를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리를 지르거나 호루라기를 이용한다.
  ㉢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가급적 집 안에서 만나지 말고, 낮 시간을 이용하여 만나거나 동료 단원과 함께 동석하여 만난다.

㉣ 공식적인 대면에서 강하고 당당한 성격과 단원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시킨다.
㉤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 사건의 정황과 증거를 수집한다.
㉦ 말을 듣지 않으면 사무실에 연락하여 사무실 차원의 대응을 한다.

⑤ 교통사고 사례

- 2010년 모토사고 인해 허리와 찰과상을 입은 사건 발생
- 2012년 11월 단원이 모토를 기다리던 중, 여러 대의 모토가 서로 태우고자 경쟁을 하다가, 모토가 단원을 뒤에서 밀치는 사고가 발생함. 단원이 팔에 골절상을 입고 한국으로 후송됨
- 2013년 5월 단원이 모토 이용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종아리에 화상과 발목에 부상을 입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국 후송됨
- 2014년 2월 단원이 모토 이용 중 낙상사고를 당해 측 늑골 4, 5, 6번 골절, 경미한 기흉 및 왼발 신전건 손상이 확인되어 건봉합 및 피부 이식, 괴사조직제거술 등 수술 치료를 받음. 장기적 재활치료가 필요해 한국으로 후송됨
- 2014년 7월 단원이 모토를 타고 사무소로 오던 중 상대방 모토와 충돌하여 낙상 사고를 당함. 얼굴뼈에 네 군데 골절이 확인되었고, 하악골 골절은 한국에서의 수술이 필요해 한국으로 후송됨
- 2015년 6월 단원이 모토 이용 중 앞 차의 급정지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함. 현지 병원에서 CT, MRI 검사와 함께 치료를 진행했으나 호전이 없어 한국으로 후송됨
- 대처요령

㉠ 되도록 현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 현지에서 모토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헬멧 끈을 단단히 채우기, 전방주시, 운전자 잡기 등 안전한 탑승 자세를 취한다.
㉢ 운전자에게 '부호로'(천천히)라고 말하여 서행하게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인다.
㉣ 비가 오고 난 후의 도로는 매우 미끄러우니 모토를 타지 않거나 천천히 주행하는 것이 좋다.
㉤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현지 경찰과 사무소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3) 자연재해

① 호우

우기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응급약품, 손전등 등은 미리 준비하고,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비가 온 뒤에는 모토 등을 이용한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며, 키갈리의 냐부고고 등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의 이동은 삼가도록 한다.

② 강풍

우기에는 바람이 갑자기 강하게 부는 경우가 있으며, 안전한 실내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집안으로 들여놓도록 한다.

③ 낙뢰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낙뢰를 동반한다. 실제로 낙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우기 기간에 비가 올 경우에는 야외 외출을 자제하도록 한다. 야외에서 낙뢰가 내리는 경우 건물 안, 자동차 안, 움푹 팬 곳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나무나 가로등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나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모든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빼두고, 전등이나 전기 제품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창문은 모두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 설거지 등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로 천둥소리가 났다면, 신속히 안전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지진 및 화산

2002년 1월 콩고 고마 지역(르완다 북부 지역 인접) 화산폭발로 인해 47명이 사망,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8월 규모 5.6 지진이 르완다 국경에 인접한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 지진 당시 수도 키갈리에서도 여진이 있었으나 단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전혀 없었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치우고,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말도록 한다. 평소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부분을 수리하도록 한다.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 두고, 비상 물자를 준비하고 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등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여가생활

1) 종교활동

대부분 가톨릭이나 개신교도이기 때문에 종교활동은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교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가톨릭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된 미사를 진행한다. 르완다의 미사는 한국과 비슷하다. 성가대가 찬송에 맞춰 다양하고 아름다운 율동을 하며 키냐르완다어로 진행되는데 키갈리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미사 집전시간이 있는 성당이 몇 군데 있다. 개신교의 예배시간은 교회와 종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2시간에서 평균 4~5시간에 이른다. 7시간에 이르는 예배에 다녀온 단원도 있다.

키갈리에는 영어로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몇 곳 있다. 북미에서 온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우간다나 케냐에서 온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다. 지방에는 드문 편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무산제에는 아침 7시 반에 우간다 목사가 영어로 진행하는 예배가 있다.

일부 무슬림 사원도 존재하며 모스크의 외부 스피커가 매일 5번의 기도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르완다 단원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는 현지 한인교회와 기슈슈(Gishushu)의 CLA 교회, 우간다 목사가 있는 타운의 장로교회이며 가톨릭 신자의 경우 Hotel des Mille Collines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Cathedrale St. Michel성당에서 영어미사를 볼 수 있다.

2) 스포츠활동

현지인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다. 특별한 여가가 없는 현지에서 영국 프로 축구를 시청하는 것은 큰 즐거움 중 하나다. 운동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어김없이 볼 수 있다. 축구공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아이들은 비닐과 끈을 이용해 간이 축구공을 만들기도 한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농구 강국 중 하나이기도 해, 농구 골대가 있는 곳에서 농구에 집중하는 청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키갈리 일부 호텔에서는 탁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도시의 대학에도 탁구대가 설치된 곳이 있다.

테니스는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키갈리는 물론 후예와 무산제에서도 테니스 코트를 찾아 볼 수 있다. 취미로 테니스를 즐기는 단원도 많다. 가끔 자이카 단원과 시합을 하기도 한다. 현지인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적은 편이며 키갈리 스포츠클럽(Cercle Sportif de Kigali), 라이코(Laico) 호텔, 냐루타라마(Nyarutarama) 스포츠클럽을 추천한다. 냐루타라마 스포츠클럽의 경우 유숙소와 거리가 가까워 단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테니스와 수영을 주로 즐긴다.




<키갈리에서는 헬스장과 야외 수영장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키갈리에는 헬스장을 찾아볼 수 있으나 지방에는 거의 없다. 우무바노(Umubano) 호텔, 냐루타라마 스포츠클럽, 세레나(Serena) 호텔, 와카(Waka) 피트니스클럽 등 키갈리에서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은 매우 다양하나 한국보다는 다소 비싸다. 시설과 웨이트 기구는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는 편이나 한국과 비교하자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다. 우무바노 호텔과 세레나 호텔을 비롯한 일부 헬스장은 사우나를 같이 구비해 놓는 경우가 있고, 비회원도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약 3,000~6,000프랑 정도이며 습식과 건식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다.

르완다에 위치한 대부분의 호텔은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 건설비용이 비싸 모든 수영장이 야외에 있다. 우기의 추운 날씨 때는 수영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1,500~3,000프랑으로 현지인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키갈리에서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수영장을 주로 찾는다. 키갈리 스포츠클럽, 냐루타라마 스포츠클럽, 라 팔리스(La Palise) 호텔, 라이코 호텔, 밀콜린 호텔(Hotel Des Mille Collines), 우무바노 호텔(Umubano) 수영장을 많이 찾으며 호텔과 스포츠클럽에서 수영과 헬스 정기 회원권을 함께 끊을 경우 추가 할인이 있다.




<한인들 또는 외국인들과 종종 모여 축구, 농구, 야구, 볼링 등을 즐길 수 있다
볼링을 즐길 수 있는 맘바클럽의 내부 모습(좌)과 KOICA와 JICA의 친선 농구경기 단체 사진(우)>

키미후루라(Kimihurura)에 위치한 맘바클럽(Mamba Club)에서는 볼링을 할 수 있다. 한 게임당 1,000~2,000프랑 정도이며 전용 슈즈와 다양한 크기의 볼링공을 제공하고 있다. 단, 한국에서 볼링을 쳐봤던 이라면, 볼링핀을 현지인이 직접 라인 뒤에서 치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기 힘들 것이다.

그 외에 키부예(Kibuye) 모리아 호텔을 비롯한 호수 주변의 랏지(Lodge)나 호텔에서 카누나 보트를 대여해서 탈 수도 있다.

3) 문화활동

① 콘서트 및 음악

현지에서는 수도와 시골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연이 자주 열린다. 규모가 큰 공연의 경우는 도로변의 현수막, TV, 라디오, 대형 전광판, 유인물 등을 통해 광고를 한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다양한 행사에 쉽게 참석할 수 있다. 보통 세레나 호텔, 헤븐 레스토랑, 화이트홀스 레스토랑 등 유명 호텔이나 바에서는 매주 아프리카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현지 가수의 앨범은 시내 상점에서 CD로 판매하지만 현지인 친구를 통해 MP3로 구할 수도 있다. 유투브에도 르완다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다수 업로드 되어 있다. 음악 사이트(http://Inyarwanda.com)를 통해 르완다 음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르완다인과 생활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현지 문화를 느끼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뮤지션들의 연주>

② 축제 및 행사

르완다의 가장 큰 축제는 7월 즈음에 열리는 고릴라 이름 짓기 행사(Kwita-Izina)이다. 무산제

에서 열리며 르완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6~7월 즈음에 키갈리 업(Kigali Up)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아프리카에서의 유명 가수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음악 축제이다. 레게, 블루스, 재즈, 아프리카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외국인과 현지인이 어울리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



<2015 Kigali Up 뮤직 페스티벌>



<2015 Rwanda Expo 포스터>

8월 즈음에 열리는 르완다 엑스포도 볼거리 중 하나다. 일종의 상업 박람회로 행사장 내에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한 곳에서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단원 사이에서 르완다 백화점이라 부르기도 한다. 엑스포 행사장에서는 작은 규모의 행사 및 놀이기구, 전통공연 등을 볼 수 있다.

추천할 만한 민간축제로 무찌크 비어 페스티벌(Mutzig Beer Festival)이 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찌크(Mutzig) 생맥주를 무한으로 제공해 준다. 주류뿐 아니라 샐러드와 닭고기, 소시지 등의 안주도 무한으로 제공한다. 비 음주자를 위한 음료수도 제공한다. 현지 음악과 팝 위주의 야외 스탠딩 공연이 밤 12시까지 이어진다.

③ 영화

아프리카라고 영화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잘못된 선입견이라 할 수 있다. 키갈리 시티 타워(Kigali City Tower, KCT) 3층에 위치한 센츄리시네마(Century Cinema)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 따라서 3D 스크린을 지원하기도 한다. 총 3개의 상영관과 200여 개의

좌석이 배치된 영화관은 외국인과 부유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아직은 대중들에게 낯설다. 센츄리시네마 영화관에서의 영화 정보 및 시간은 해당 사이트(http://www.centurycinema.rw)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 관람비는 2D 3,000프랑, 3D 4,000프랑 정도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말에는 500프랑이 추가된다.





<센츄리시네마의 매표소와 스낵 바>

현지인들은 영화관보다는 비디오, DVD 등을 통한 영화와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익숙하다. 시내 곳곳에서 불법 복제된 영화와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자막보다는 더빙이 더 익숙한 르완다는 키냐르완다어로 보통 1명의 해설자가 대사와 상황 설명을 모두 도맡아서 하는 일종의 변사 역할을 하여 더빙을 한다. '주몽', '대장금', '시티헌터' 등의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방법

1) 현지 봉사활동에서는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벨기에의 식민지배로 인해 프랑스어권 국가였던 르완다는 최근 영어 사용에 박차를 가하며 영어권 국가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가 프랑스어에서 영어로 변화하는 중으로 영어로만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교사는 드물다.

동아프리카 국가답게 스와힐리어(Kiswahili, 키스와힐리) 구사자도 많으며 주로 탄자니아 접경지역인 남동쪽에 몰려 있다. 스와힐리어는 르완다어와 지리적, 언어적 연관성이 커 쉽게 배울 수 있다. 스와힐리어는 스와힐리 문명의 결과물이지만 반투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언어로

근접 국가인 만큼 두 언어의 유사점이 많다.
대부분의 일반 주민은 영어나 프랑스어를 하지 못한다. 시장이나 거리에서 길을 묻거나 물건을 살 때는 키냐르완다어를 사용해야 한다. 집을 구하면 경비를 고용할 수도 있는데 키냐르완다어로만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일부 연륜 있는 지식인층은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2) 외국어 배우기 노하우

키갈리에 산다면 여러 언어를 배울 기회가 많다. 수도에 교육 기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배울 수 있는 언어로 키냐르완다어, 영어, 프랑스어, 스와힐리어 정도가 있다. 현지어는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 일부 단원은 집 주변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코워커에게 과외를 받기도 한다. 르완다에 사는 미국, 영국 사람을 소개받아 과외를 받은 단원도 있다. 국내 교육원에서 사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면 좋다.
키갈리의 그린 힐스(Green Hills) 학교에서는 원어민이 지도하는 성인 대상 영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일반적인 한국 회화학원과 비슷하다. 최고의 방법은 영어권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함께 지내며 생활 속에서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힐 수 있으며 토플(TOEFL), GRE에 응시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원어민 강사를 구해 영어를 배우는 단원이 늘고 있다. 소개를 받거나 키갈리 라이프(Kigali Life)라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구하는데 지방의 경우 외국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금액은 시간 당 8,000프랑에서 1만 5,000프랑 정도로 강사의 수준과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 봉사 단원에게는 비싼 수준이라 그룹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원어민 강사는 미국, 캐나다에서 봉사활동 및 개발협력을 위해 온 사람이 많으며 프랑스어 원어민 강사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했던 나라였던 만큼 프랑스대사관 산하 프랑스 언어원에서 초급반, 중급반 및 회화 위주 고급반 등 프랑스어 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강좌과정이 생길 예정이며 직장인을 대상으로 늦은 오후 시간대에 수업이 있어 단원도 들을 수 있다.
스와힐리어는 동아프리카 여행을 준비하는 단원이나 동쪽 지역으로 파견되는 단원에게 유용하게 사용된다. 실제로 몇몇 단원은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고 현지인 선생을 고용해서 공부하기도 했다. 그 밖에 다른 언어 학습도 가능하다. 일본어는 자이카 단원과, 독일어는 독일 GIZ (Gesellschaft fu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단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음식문화

1) 일반적인 현지의 음식문화

르완다 음식은 일반적으로 콩, 그린 바나나, 감자, 고구마, 쌀, 카사바 등의 전분 위주로 간단하게 이뤄진다. 여기에 고기 한 점을 추가하는데 보통 쇠고기를 먹는다. 르완다인은 멜랑제(Mélange, 프랑스어로 mix라는 뜻)라고 부르며 단어 뜻대로 마구 섞어 먹는다. 멜랑제는 대부분 뷔페식으로 제공되며 딱 한 번만 퍼 올 수 있다. 멜랑제는 르완다 식민지 시대에 들어온 음식이다. 아프리칸 뷔페(African buffet)라고 소개하며 음식 구성을 다르게 하는 레스토랑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멜랑제라고 보면 된다. 고기를 구워 꼬치에 끼운 브로셰트(Brochette)도 대표적인 음식이다.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생선 등이 있다.




<르완다 현지 대표 음식 멜랑제(Melange)와 브로셰트(Brochette)>

멜랑제의 가격대는 1,000~3,000프랑 내외로 시장 근처 기사식당에서는 500프랑,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가면 5,000~7,000프랑까지 받는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의 경우 고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지 레스토랑의 경우 처음 1점은 무료이고 이후 추가할 때마다 200프랑 정도를 받는다.

브로셰트는 지방에서 400프랑 내외이지만 그 크기가 작고 레스토랑에 따라 매우 질기기도 하다. 키갈리에서는 1,000프랑에서 호텔의 경우는 3,000프랑까지도 하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크기도 큰 편이다.

거의 모든 르완다 현지 레스토랑과 술집, 식료품 가게에서 멜랑제를 비롯한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분 위주의 식단이지만 이솜베(Isombe), 튀긴 바나나, 도도(Dodo), 그린 바나나(Ibitoki) 등은 한국인에게 생소한 음식으로 맛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간식거리인 브로셰트와 차파티, 삼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뷔페식인 멜랑제 종류다.



<멜랑제 음식 중 볶음밥(좌상), 삶은 감자(우상), 감자튀김(좌하), 콩 볶음(우하)>

기본적인 음식문화의 특징은 식사 횟수가 적으며 대신 한 번 먹을 때 과식한다. 멜랑제의 경우 접시에 산처럼 높이 쌓아 다 먹어 치운다. 아침은 먹지 않거나 간단하게 하며 오후 8시 이후 저녁식사를 하는데 세 끼 중 가장 많이 먹는다. 이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들은 맥주를 즐겨 마시지만 여자들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다. 현지에 비교적 큰 맥주 공장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맥주를 마실 수 있다. 시골에서는 직접 사탕수수 술이나 바나나 술 등을 만들어 먹는다. 이키가게(Ikigage)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을 말 하며, 우르와르와(Urwarwa)는 바나나 술을 말한다. 한국인들은 보통 무찌크(Mutzig)와 프리무스(Primus)를 즐겨 마시며 취향에 따라 투르보 킹(Turbo King)이나 스콜(Skol)을 마신다.



<멜랑제 음식 중 완두콩(좌상), 삶은 호박(우상), 튀긴바나나(좌하), 쇠고기(우하)>

시골에 사는 르완다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한다. 염소 같은 가축을 키우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주 도살하지 않는다.
일선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도 바나나, 감자 등으로 대부분 탄수화물이며 콩이 유일한 단백질원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현지 어린이는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기도 한다. 키갈리는 고기가 풍부하고 위생적으로 유통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이다.
르완다에서 대중적인 육류는 쇠고기와 닭고기다. 돼지는 문화적으로 더러운 이미지가 있는데다 냉장보관을 하지 않으면 상하기 쉬워 자주 먹지 않는다. 한인들은 나쿠마트나 저먼 부처리 등에서 위생적으로 유통된 고기를 구입한다. 닭고기는 양계장이 부족하여 다른 고기보다 비싼 편으로 기념일에 먹곤 한다. 쇠고기는 한우보다 많이 질긴 편이며 구이용으로는 필레(Fillet)가, 조림용으로는 로스트 비프(Roast beef)가 좋다. 돼지고기는 로스트 포크(Roast pork)가 무난하지만 앞다리와 족발, 폭립, 카레 드 포크(Carre de Porc)를 먹기도 한다.
생선은 보통 민물생선, 민물새우, 멸치 등을 취급하며 보통 튀겨 먹거나 삶아 먹는다. 특히 멸치튀김을 삼바자(Sambaza)라고 한다.




<현지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닭고기 요리(좌)와 멸치튀김인 삼바자(우)>

르완다에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음식과 술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이때 대접한 음식과 술을 거절하면 매우 무례하게 보기 때문에 남기더라도 조금은 먹는 편이 좋다. 음식을 남기는 행동은 '나는 적게 먹어도 건강하고,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가끔 손님이 남긴 음식을 선물받기도 한다. 주인은 음식과 술을 대접하기 전에 이를 맛보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여자는 요리를 하고 남자는 술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존경의 의미로 보통 연장자가 가장 큰 그릇을 받는다.
르완다는 오전 10시 정도에 티타임을 갖는 문화가 있다. 모든 조직이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조

직과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티타임을 가진다. 커피는 거의 마시지 않으며 이차이(Icyai)라고 하는 인도식 밀크티를 마신다. 이차이는 르완다 홍차에 분유, 설탕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아침식사를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 차파티(Chapatti), 삼부사(Sambusa), 아만다지(Amandagi)와 같은 간단한 간식을 함께한다.




<간식으로 먹는 삼부사(좌)와 차파티(우)>

길가에 흔히 있는 아마타 메자(Amata Meza)라고 쓰인 작은 가게에서는 앞서 말한 간식과 이차이(Icyai), 우유(Amata), 삭힌 요구르트(Ikibuguto) 등의 메뉴를 판다.
또한 망고(Mango), 바나나(Umuneke), 파인애플(Inanasi), 패션프루트(Passion Fruit, Maracuja), 트리토마토(Tree Tomato, Ikinyomoro)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열대과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 그 외 음식점 소개

수도 키갈리에는 한국을 포함 중국, 일본, 태국, 인도, 이탈리아, 프랑스, 필리핀, 그리스 등 외국인 식당이 다양하게 입점해 있다. 뷔페식인 곳이 많지만, 단품 메뉴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기념일, 행사 축하, 미팅 등의 이유로 방문을 하게 된다. 1인당 식사 비용이 현지 레스토랑에 비해서는 비싼 편으로 1인당 5,000~8,000프랑이 든다. 코스 요리나 해산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1인당 15,000프랑 이상이 들기도 한다.
위치는 매우 다양하나 냐루타라마(Nyarutarama), 키미후루라(Kimihurura), 다운타운(Mumujyi, 무무지), 까치루(Kacyiru), 키요부(Kiyovu) 등 키갈리의 중심지를 아우르는 곳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 레스토랑으로는 사카에(Sakae)와 몽마르제(Monmartse), 대장금(Dae

Jang Guem) 등이 있다. 사카에는 일식과 한식을 주문할 수 있고, 몽마르제와 대장금에서는 한식을 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식당은 당인반점, 에이링크(Alink), 밤부(Bamboo), 미장 레스토랑(Carving Taste Chinese Restaurant), 그리고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판 차이나(Pan China) 등이 있다. 외국인 식당은 해당 국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나 외국인과 현지인도 찾는 이가 점점 늘고 있다.

야키도리(닭꼬치)와 돈부리(덮밥)를 제공하는 일식집인 자판다(Japanda)는 까치루(Kacyiru)에 위치해 있다.

카페의 경우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냐루타라마의 라즈만나(Rz Manna)를 비롯해 브리오쉐(Brioche), 쇼콜라(Shokola), 버본 커피(Bourbon Coffee) 등이 다운타운과 냐루타라마 근처에 위치해 있다.



<타운의 현지식 뷔페 Camellia>





<키미후루라의 Shokola Cafe (좌)와 냐루타라마의 베이커리 Rz Manna (우)>

라즈만나에서도 빵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며, 그 외에 현지 베이커리로는 심바(Simba), 라 갈레떼(La Gallette) 등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J. Lynn's, 빠네 올리오(Panne Olio) 등이 생기기도 하였다.




<루타라마의 인디안 레스토랑 Blue Berry의 커리, 탄두리 등(좌)과
키미후루라의 프랑스 레스토랑 에피큐리앙의 파스타 등(우)의 음식 사진>



<키바가바가의 Bar 필리필리>

인도 음식점으로는 냐루타라마의 블루베리(Blue Berry), 키요부의 카나 카자나(Khana Khazana) 등이 있어 커리와 탄두리 치킨, 난 등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타이 음식점으로는 냐루타라마의 젠(Zen), 레메라(Remera)의 아시안 키친(Asian Kitchen) 등이 있다.

이 외에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키미후루라의 에피큐리앙(L'Epicurien), 이탈리안 전문 레스토랑인 까치루의 브라케또(Brachetto), 피자 전문점인 냐루타라마의 피자인(Pizza Inn)과 솔레루나(Sole Luna), 다운타운의 화이트 홀스(White Horse) 등이 있고, 치킨 전문점으로 치킨 인(Chicken Inn), 미스터 칩스(Mr.Chips) 등이 있다.

키갈리에 위치한 유명 호텔로는 밀 콜린(Hotel des Mille Collines), 세레나(Serena), 우무바노(Umubano), 레미고(Lemigo), 어반(Urban) 등이 있다. 호텔 뷔페나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들은 키미후루라나 다운타운에 위치한 레스토랑과 선술집 등에서 보통 저녁식사와 음주를 즐기며, 키요부의 New Cactus, 헤븐 레스토랑(Heaven Restaurant), 까치루의 부리또 전문점 메제 프레시(Meze Fresh), 현지 클럽인 키미후루라의 파피루스(Papyrus)와 썬다우너

(Sundowner) 등을 즐겨 찾는다.

르완다에는 바(Bar)나 선술집(Pub)도 상당히 많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맥주 프리무스(Primus)와 무찌크(Mutzig), 스콜(Skol)를 비롯하여 암스텔(Amstel), 기네스(Guinness), 하이네켄(Heineken), 스미노프(Smirnoff) 등의 수입 맥주를 판매한다. 보통 맥주 로고를 선술집의 간판으로 쓰곤 한다.

Tip. 위에서 소개된 호텔과 레스토랑, 선술집과 그 외의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와 가게 위치 등은 다음 챕터인 [7. 유용한사이트]에서 소개될 '리빙 인 키갈리(Living in Kigali)' 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인 'Expats in Rwanda' 를 이용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3) 현지에서의 한국음식과 식재료

르완다는 국가 경제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물가가 타 아프리카 국가보다 비싼 편으로 식비에도 영향을 끼친다. 농산물 같은 기본적인 식재료는 저렴하나 외식의 경우 한국 보다 비싼 가격에 사먹게 된다. 햄버거 하나에 3,500프랑, 음료는 500프랑 정도이다. 한 끼 식사의 경우 약 4,000~5,000프랑 이상이며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푸짐하게 먹으면 10,000프랑은 생각해야 한다. 단원의 생활비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편이므로 평소에는 집에서 요리를 해 먹게 된다.

현지에는 한인 슈퍼가 없고 식당도 적어 한국 물품을 구하기가 어렵지만 한인 식당 또는 T2000 등에서 일부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많은 요리를 할 수 있다. 현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요리책 혹은 인터넷을 참고하면 된다.

현지에서는 주로 탄자니아 쌀을 먹는다. 르완다 쌀도 있지만 도정 상태가 엉망이라 돌과 부스러기가 너무 많아 밥 짓기가 매우 불편하다. 탄자니아 쌀에도 돌이 섞여 있지만 현지 쌀보다 나은 편으로 가격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kg에 900~1,100프랑이다. 최근에는 수도를 비롯해 일부 지방 주요 도시에 럭키 라이스(Lucky Rice)라는 쌀가게가 생기기도 하여 도정 상태가 고른 쌀을 구할 수 있다. T2000에서는 중국산 찹쌀과 흑미를 판매하기도 한다.

김치는 중국 배추나 양배추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족발, 보쌈, 불고기, 치킨, 파스타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EMS로 삼계탕 재료를 받아 요리하는 단원도 있었다.

Tip. KOICA에서 지급하는 정수 필터를 반드시 사용하여 식수를 사용하도록 하자. 정수 필터가 없거나 불편하다면 생수를 직접 사서 쓰도록 한다. 배탈이 쉽게 나므로 이를 방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유용한 사이트

① 주 르완다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http://rwa.mofa.go.kr)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안내, 재외선거, 비자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사관의 위치는 KOICA 르완다 사무소와 같은 곳에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할 시엔 직접 방문하기에 용이하다.

② Living in Kigali(http://www.livinginkigali.com)
르완다의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이다. 키갈리에서의 축제, 외국어스터디, 주거 계약, 물물교환, 중고시장, 휴양지 공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③ Kigali Life(http://groups.yahoo.com/neo/groups/kigalilife/info)
Living in Kigali와 마찬가지로 키갈리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④ Expats in Rwanda(https://www.facebook.com/groups/257219504382862/)
최근 SNS가 활발해짐에 따라 Facebook 내에서의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다. 비밀그룹이므로 그룹 내에 속한 이에게 초대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키갈리에서의 축제, 스터디, 유명 레스토랑 공유는 물론 정전 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가장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다.

⑤ 르완다 KOICA 벼룩시장(https://www.facebook.com/groups/212679748849943/)
마찬가지로 Facebook 내에서의 KOICA 단원들의 벼룩시장 비밀그룹이다. 단원들에게 요청하면 초대받을 수 있다. 보통 신규 단원이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용도 또는 귀국을 앞둔 단원이 물건을 싸게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⑥ lamudi 주택 정보 사이트(http://www.lamudi.rw/kigali/house/for-rent)
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르완다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키갈리에서 주택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

⑦ imali 키갈리 주택 정보 사이트(http://www.imali.biz)
lamudi와 마찬가지로 키갈리의 주택 매매 및 렌트를 위한 정보가 다양하다.

⑧ Hellofood 헬로푸드 배달 서비스(http://www.hellofood.rw)
키갈리에서는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Hellofood가 생겨 그 편리함을 더하고 있다. 배달비(약 1,000rwf)가 추가로 들며 약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⑨ Safe Motos(http://www.safemotos.com, www.facebook.com/safemotos)
많은 현지인들은 물론 한인들과 KOICA 단원들도 현지에서 모토를 불가피하게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리 사정이나 시간대에 따라 모토를 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고 시 보험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이프 모터스는 최근 현지 모토 기사들을 고객들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한다. 가격은 평소 모토 가격보다 몇 백 프랑 더 들지만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1) 현지의 미용실

르완다에서는 나쿠마트(Naku Matt)나 라이코 호텔에 있는 고급 미용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발 비용은 보통 6,000~7,000프랑이다. 많은 단원이 다른 단원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자른다. 아프리카에 왔으니 한 번쯤 레게 머리를 해 보는 것도 좋다. 현지 미용실에서 가능하며 약 1만~1만 5,000프랑에 할 수 있다.

2) 항공권 구입 방법

현지에서 국외 여행 등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KOICA와 협약된 항공사 및 여행사를 이용하면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률은 6~10%로 아프리카에서는 항공료가 많이 비싸므로 생각보다 큰돈을 절약할 수 있다.
시내에 르완다 항공사(Rwanda Air), 케냐 항공사(Kenya Airways), 카타르 항공사(Qatar Airways), 에티오피아 항공사(Ethiopian), 터키 항공사(Turkey Air) 등이 위치해 있어 항공권 구입 시 방문하여 구매하도록 한다. 시기에 따라 프로모션을 제공하여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다.

제3부



같이 웃는 즐거운 내일,
르완다 즐기기

Part. I

지역 소개



수도 키갈리 소개

르완다의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수도 키갈리(Kigali)는 약 1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최대 도시이다. 키갈리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 사용이 원활하고 수도 공급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현대화된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다. 일부 열악한 현지인의 주택에서는 창문이 없거나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공동 수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단원과 한인의 경우 보통 수도와 전기가 잘 나오는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한다.

REB(Rwanda Education Board), RDB(Rwanda Development Board) 등의 정부기관과 KIST, IPRC KICUKIRO 등 대학 수준의 상위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모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타 도시와 비교하여 매우 잘 정비되어 있고 냐부고고(Nyabugogo) 또는 레메라(Remera) 버스 터미널에서 각 지방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탈 수 있다. 가까

운 지역은 약 1시간가량 소요되며 가장 먼 지역도 약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르완다는 국토의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며 해발 고도 1,500m 이상의 전형적인 고산지대의 날씨를 보여 주지만, 상대적으로 키갈리는 덥다는 인식이 강하다. 낮에는 반팔을 동반한 가벼운 옷차림이 가능하나, 밤에는 다소 쌀쌀한 일반적인 한국의 가을과 비슷하다.
해안가를 접하지 않은 내륙 국가이므로 모든 물자는 육로 또는 항로를 통해 키갈리로 모인다. 식품, 생필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건들을 키갈리 타운 내에서 구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 단원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기관에서의 활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수도를 방문한다.
지방 도시에서는 현지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음식점이 전무하지만, 키갈리 내에서는 한식, 중식, 일식, 이탈리아 피자, 프랑스 요리, 카페, 와인 바, 클럽 등 다양한 세계 음식점들과 카페 및 주점 등이 입점해 있어 외식을 하거나 주요 인사와의 약속 시 방문하기도 한다.
각종 행사와 축제, 콘서트 등 문화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다양한 외국 기업과 단체들이 위치해 있어 단원 활동에 매우 필수적인 거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 NGO인 열매나눔, 굿네이버스 등이 위치해 있다.



<키갈리 타운 중심지>

지방 주요 도시 소개

1) 무산제(Musanze, 舊 루헹게리 Ruhengeri)

북쪽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루바부(Rubavu, 舊 기세니 Gisenyi) 다음으로 르완다에서 3번째로 큰 중도시이다. 화산지대를 포함하는 고릴라 트레킹 코스(Gorilla Tracking)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KOICA 봉사단원이 가장 많이 파견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시내 중심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시장 또한 매일 열린다. 전기와 수도가 원활한 편이지만, 저녁시간에 30분 정도 정전이 되기도 한다. 보통 퇴근 이후 해가 떨어지고 나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므로, 키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 정전이 되는 편이다.

키갈리로의 교통편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키갈리 이외에도 부소고(Busogo), 차니카(Cyanika), 키니기(Kinigi), 루바부(Rubavu) 등으로 가는 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지형은 대부분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어 걸어 다니거나 모토를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는 편이다. 다른 지방도시와 달리 키갈리에서 버스 이동 시 중간지점에 위치한 휴게소인 니랑가라마(Nyrangarama)를 들러 이동한다.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소다, 감자, 옥수수, 브로셰트(Brochette) 등의 먹을거리를 구입할 수도 있다. 특히 소, 염소 등의 내장 부위를 이용한 징가로(Zingaro) 브로셰트를 맛볼 수 있다.

평균 해발표고가 1,800m 정도로 키갈리보다 높아 시원한 편이며, 우기 시즌의 밤 시간에는 추워 두꺼운 점퍼나 겉옷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서도 단원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을 통해 부추, 상추, 무 등을 키우지만 무산제에서는 깻잎, 고추, 배추 등 야채가 더 잘 자라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고산지대의 특성 덕분이라 여겨진다.

시내에 대형 마트는 없지만 대부분의 생필품과 공산품을 모두 구할 수 있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의 과일과 감자, 양파, 당근, 무, 배추 등의 다양한 야채들은 가격이 싸고 품질도 괜찮다. 많은 단원들이 재래시장에서 중고 옷, 신발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도 한다.

테니스 코트가 있어 지방 단원의 경우에도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즐기기도 한다.

다른 지방 소도시와는 달리 고릴라 호텔(Gorilla Hotel), 무하부라 (Muhabura) 호텔, 볼카나(Volcana), 라파요떼(La Paillotte) 등에서 피자를 비롯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무산제의 무하부라(Muhabura)산>

2) 후예(Huye, 舊 부타레 Butare)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과거 르완다의 수도였던 후예는 무산제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과거에는 무산제보다 더 발전된 도시였다. 냔자(Nyanza) 지역과 더불어 민속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이 위치해 있어 르완다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방문하는 것을 권한다. UR(University of Rwanda)이 위치해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전기와 수도 사정은 중도시 치고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정전이 잦고 수도는 물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면 젤리칸(Jerry can, 플라스틱 물통)을 이용하여 물을 사서 써야 한다. 마을에 위치한 공동 우물에서 물을 퍼오거나, 일부 현지인들이 물을 길어다 자전거로 운반하여 100프랑 정도에 팔기도 한다.

키갈리로의 교통편은 30분마다 버스가 있으며 볼카노(Volcano), 호리존(Horizon) 등을 이용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키갈리 외에도 부룬디 접경지역이나 창구구(Cyangugu)로의 차편도 구할 수 있다.

스포츠센터가 있어 수영, 테니스, 헬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단원들이 찾기도 한다.

지방 도시치고는 특이하게 중국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후예를 방문할 일이 있다면 맛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 외에도 가톨릭 대성당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부타레 대성당(Butare Cathedral)>

3) 르와마가나(Rwamagana)

키갈리와 동부 국경지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중도시로 동부지역으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북부지역은 산간지형이 대부분인 반면, 동부지역은 매우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시 매우 편안하다. 보통 북부, 남부지역으로의 이동은 키갈리 냐부고고 버스터미널

을 이용하는 반면, 동부지역으로의 이동은 키갈리 레메라(Remera) 버스터미널을 이용한다. 레메라에서 르와마가나 시내까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가까운 편이다.
키갈리와 마찬가지로 햇빛 아래에서는 덥지만 그늘에서는 선선한 편이다. 밤에는 긴 소매 옷을 지참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디스트릭트의 크기에 비해 시내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간단한 생필품과 달걀, 양파, 감자, 우유 등의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외의 대부분은 키갈리에서 사서 조달하는 편이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빵집이 있기도 하다.
파견되었던 단원들은 대부분 초중등학교에서 활동을 하였고, 이곳의 학교들은 대부분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 시 다소 불편함을 겪기도 하였다. 한국 NGO단체인 베터월드 사무소가 위치해 있다.



<르와마가나 시내의 모습>

4) 키붕고(Kibungo)

르와마가나보다 먼 동부지역에 위치한 중도시로, 마찬가지로 지대가 평탄한 편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거리가 다소 멀어, 레메라에서 출발 시 시외버스로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직업훈련 교육 기관인 IPRC EAST가 위치해 있다.
다른 단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도시와는 달리 시장이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은 미리미리 구입을 하거나 키갈리에서 구입을 해 가는 것이 좋다.
전기와 수도의 상황은 다른 도시에 비해 좋지는 않으며, 정전에 대비해 태양광 발전용 손전등(파견 시 지급), UPS, 발전기 등을 충전 및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시간대가 되면 정전이 잦아 노트북, 핸드폰의 충전을 미리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활하지 못하므로, 젤리캔을 2~3개 정도 보유하거나 큰 플라스틱 양동이(Basket)를 구입해 물을 비축할 것을 권한다.



<키붕고에 위치한 IPRC EAST 입구>

5) 무항가(Muhanga, 舊 기타라마 Gitarama)

남부 지방에 위치한 중도시로 키갈리에서 1시간이면 도착하는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키갈리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편이다. 다른 지방에 비해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시내가 위치해 있으며, 마트가 있어 쇠고기, 닭고기, 생선 등을 구입할 수도 있다. 시장 근처에서는 두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게도 위치해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시장이 매일 열리며, 웬만한 공산품들은 모두 구입할 수 있다. 침대시트, 이불은 물론 스프링이 있는 매트리스도 구할 수 있다.

수도의 사정은 괜찮으나 전기의 경우 거의 매일 저녁 즈음에 정전이 된다. 정전에 대비해 양초를 준비하거나 손전등을 미리 충전해 놓아야 한다.

시내 근처에 아지지 라이프(AZIZI LIFE)라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수공예품 전문점이 위치해 있어 선물용품들을 사기 위해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좋다. 현지의 아프리카 무늬가 들어간 천, 테이블보, 지갑 등의 물품이나 기린, 고릴라, 하마 등의 동물 모양의 장식품 및 벽걸이 등을 구입하기도 한다. 키갈리에도 분점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현지 음식 중 구운 토끼고기인 우루콰부(Urukwavu)가 유명하다.



<무항가 타운의 은행가>

6) 기춤비(Gicumbi, 舊 븀바 Byumba)

무산제가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라면, 기춤비는 키갈리에서 우간다 접경지역으로 가는 북쪽 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스텔라, 비룽가 등의 버스를 타고 냐부고고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기춤비 초입에는 기헴베 난민캠프(Gihembe Refugee Camp)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북서쪽에 위치한 무산제와 마찬가지로 그늘에서는 서늘하며 밤에는 두꺼운 겉옷이나 점퍼를 입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길이다.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산간지형에 있으며 U자형의 좁은 길을 따라 위치해 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는 편이며, 천둥번개가 많이 치므로 통행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시내의 규모가 작고 외국인의 수가 매우 적다. 현지 은행에서는 달러 관련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이다. 시장은 작지만 필요한 물품들은 모두 구할 수 있다. 다만 정육점의 청결도가 낮아 고기의 경우는 키갈리에서 구입하는 것을 권한다. 현지 음식점의 수가 많지 않으며, 외식은 우루무리 호텔(Urumuli Hotel) 정도가 가능하다.

전기와 인터넷 사정은 좋으나, 수도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집을 구할 때에는 물탱크가 구비된 곳을 찾는 것이 좋다. 또한 만일을 대비해 젤리칸과 큰 양동이를 구해 놓는 것이 좋다.

넓은 차 밭이 있어 차 공장(Tea Factory)이 위치해 있기도 하다.



<기춤비 시내의 전경>

7) 카롱기(Karongi, 舊 키부예 Kibuye)

서부에 위치한 소도시로, 키갈리에서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어 거리가 비교적 멀다. 모토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미리 운전기사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는 것이 좋다.

근처에 키부 호수(Kivu Lake)가 위치해 있어 휴양지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모기가 많은 지역이므로 침실에는 모기장을 구비해야 한다. 호수가 근처에 있지만 수도 공급 자체는 원활하지 못해 역시 물탱크나 젤리칸 등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경우도 매주 금요일에만 장이 열리며 마늘, 파 정도의 간단한 야채 정도를 구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소시지나 햄 등의 고기는 판매하지 않으나 소나 염소고기 등을 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구워 먹거나 키갈리에서 조달하는 것을 권한다. 키부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각종 생선, 민물 새우 등을 구할 수 있기도 하며, 호수 근처에서 보트를 타거나 수영, 낚시 등의 레저를 즐길 수 있기도 하다.



<카롱기의 키부(Kivu) 호수>

Part. Ⅱ

봉사활동 정보



보고서 관련 사항

보고서로 말하고 평가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봉사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을 위해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기를 권한다.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고서의 종류로는 정기활동보고서, 안전상황보고서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주거 계약 시에는 주거계약서, 주거 지불 시에는 주거임차 영수증 등을 내야 한다. 현지적응훈련 기간에는 소감문과 설문을 작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고, 특히 OJT기간에는 매일 작성하는 Daily Report와 지역조사서, 기관조사서 등의 작성을 통해 파견지역과 기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각 보고서 별 제출 시기 요약표>

<table>
<tr><th>구분</th><th>제출대상</th><th colspan="2">제출시기 및 종류</th></tr>
<tr><td rowspan="5">현지 적응
훈련보고서</td><td rowspan="5">신규</td><td>Daily Report of Visiting Recipient Agency</td><td rowspan="3">OJT 종료일</td></tr>
<tr><td>지역조사서</td></tr>
<tr><td>기관조사서</td></tr>
<tr><td>현지 적응훈련 소감문</td><td rowspan="2">훈련 종료일</td></tr>
<tr><td>현지 적응훈련 설문</td></tr>
<tr><td rowspan="2">정기활동
보고서</td><td>일반 단원</td><td>해당 반기/다음달
3일까지 사무소 제출
15일까지 본부 발송</td><td>활동기간 중 총 4회
작성, 4차 보고서는
귀국보고서로 대체</td></tr>
<tr><td>KOICA 자문단</td><td>해당 분기/다음달
3일까지 사무소 제출
10일까지 본부 발송</td><td>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문단원은
3개월에 1회씩
중간보고서 작성</td></tr>
<tr><td>안전상황
보고서</td><td>일반 단원
KOICA 자문단</td><td colspan="2">매월/ 다음달 3일까지 사무소 제출
10일까지 본부 발송</td></tr>
<tr><td>활동현황
보고서</td><td>일반 단원
KOICA 자문단</td><td colspan="2">현지평가회의 시 제출</td></tr>
</table>

1) 정기활동보고서

정기활동보고서는 단원의 파견 종류에 따라 분기/반기로 나눠지며, 분기 보고서는 3개월마다, 반기 보고서는 6개월마다 제출하는 것으로 파견되는 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반기/분기 다음달 3일까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현지 사무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 매월 3일까지 미리 단원으로부터 받아 사무소에서 내용을 요약, 정리,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한 후에 본부에 제출한다. 일반봉사단원은 익월 15일까지, KOICA 자문단은 익월 10일까지 사무소에서 본부에 발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달 3일까지 미리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지침서 시일보다 일찍 보고서를 내면 제출일자를 넘겨 제재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사무소에서도 보고서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다.

일반 단원의 경우 활동기간 2년 중 총 4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4차(최종)

보고서는 귀국 전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4회의 보고서 중 1회는 에세이 형식의 보고서를 내야 한다.
KOICA 자문단의 경우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문단원은 3개월에 1회씩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KOICA자문단은 추가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상황보고서

안전상황보고서는 파견 종류에 관계없이 매월 3일까지 사무소에 제출하고, 10일까지 본부로 요약 및 정리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본인의 주거지 및 파견 지역의 위험도나 건의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안전상에 문제점을 느낀다면 사소한 사항이라도 사무소에 전달하는 것을 권한다.
안전상황보고서는 현재 홈페이지(http://kov.koica.go.kr)에서 단원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단원이 직접 보고서를 업로드하고, 이를 사무소에서 확인하여 본부로 제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Tip. 안전 문제(도난, 강도, 주거침입, 폭행, 사고 등)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사무소의 담당 코디네이터, 안전요원, 현지 경찰서 등에 연락을 해야 한다. 안전상황보고서는 사후에 요약 및 정리하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문제 발생 당시에는 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3) 활동현황보고서

현지 평가회의 시 제출하는 보고서로 1년 또는 2년차에 작성하게 된다. 활동기관 정보, 지역소개, 봉사단원의 업무 정보, 활동 기관의 적합성, 해당 단원의 요건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현지 평가회의가 다가오면 사무소에서 자세히 안내해 준다.

4) 보고서 제출 방법

보고서마다 형식이 있으며 이는 국내 교육이 끝난 뒤 받을 수 있는 USB에 모두 담겨 있다. 분실 또는 필요시에는 현지 사무소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보고서는 봉사단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업로드 및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의 보고서는 물론 다른 단원들의 현장사업 보고서 등도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홈페이지에 단원이 업로드를 하면, 사무소에서는 ekov 홈페이지를 통해 단원들의 보고서를 관리, 정리하여 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각 보고서의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권한다.

- 일반 보고서 메일 제목, 첨부 파일 작성 안내: 이름_분야_해당 내용_차수

예시) 홍길동_컴퓨터_반기보고서_2차.docx

Tip 1. 보고서 제출 시 그림과 표,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하면 보다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보고서를 만듦으로써 단원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진은 보통 용량을 줄여서 첨부하여 되도록 저용량(최대 10MB 이하)으로 조정하여 제출하기를 권한다. 르완다가 3G, 4G등 타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 인터넷 사정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Tip 2. 현재(2016년 3월 기준) 르완다 KOICA 사무소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안전상황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보고서를 매월 3일까지 사무소로의 이메일 발송과 kov 단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등 2중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지 사정상 사무소에서의 사이트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미리 준비하여 낼 수 있도록 한다.



현지 적응훈련과 OJT(On the Job Training)

1) 현지 적응훈련

국내 교육을 마치고 르완다에 도착을 한 뒤에는 바로 기관으로 파견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총 8주간의 현지 적응훈련을 통해 교육받게 된다. 이 기간은 르완다의 언어, 문화, 활동 분야, 지역 소개 등 파견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앞으로의 2년간의 파견 기관에서의 활동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키냐르완다어, 영어 등의 언어 교육과 르완다의 역사, 문화, 인구, 사회, 경제, 정치 등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현지 적응훈련의 중간에는 훈련의 꽃인 OJT가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제노사이드 메모리얼 센터나 자연사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문화 탐방, 같은 분야의 선배 단원의 기관 방문을 통한 조언의 시간, 파견 기간 중 필요한 간호 지식이나 요리 비법 등을 선배 단원으로부터 전수받는 시간 등이 있기도 하다. 평화봉사단, JICA 등 다른 국가의 봉사단체를 방문하기도 한다. 자세한 일정은 매 기수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8주간의 교육 이후 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선배 단원으로부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알찬 현지 훈련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에 도착한 후에는 파견에 앞서 입소(入所)식이 이루어지며,
이후 8주간의 현지적응훈련을 수료해야한다>

2) OJT(On the Job Training)

OJT는 총 8주간의 현지 적응훈련기간 중 약 2주 정도 직접 임지에 배치받아 현지인과 함께 살아 보고 임지를 경험하는 훈련이다.

OJT 기간에는 먼저 근무하게 될 장소를 방문해 둘러보게 된다. 함께 일하게 될 직장 동료와 같이 기관을 둘러보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바로 물어보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 좋을 것이다.

이 기간에는 기관에서 하게 될 일에 대해 직원과 협의한다.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기관 측이 기대하는 업무와 본인의 능력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자. 그래도 별 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할 일을 찾아보자.

이 기간에는 함께 일하게 될 동료의 집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집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집에 머무는 동안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받는다면 참지 말고 항의하고 선배 단원이나 KOICA 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머무는 집에 사례비를 지급하는데 지역적,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OJT 기간은 약 10일 정도이고, 사무소에서는 1박당 30달러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도 다양하다. 도착하자마자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2번에 걸쳐 주기도 하며 일정이 다 끝나고 주기도 한다. 또한 주인이 한사코 거절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OJT가 끝나갈 즈음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집주인과 가족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한번 정한 집에 2년 동안 살기 때문에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OJT 기간에 집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안전교육 및 현지 평가회의

1) 안전교육

해외로 파견되는 봉사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사무소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연간 총 4회의 안전교육의 시간을 갖는다. 안전교육 이전에 일정이 공지되므로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참석을 하면 된다.

안전교육은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며 질병관리, 사건 사례공유, 안전사고 예방책 교육 등에 이르는 안전 문제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교육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단원들의 건의사항 수렴, 사무소의 공지, 단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공유, 동일 파견 분야의 단원들 간의 만남의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많은 단원들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안전교육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기도 하고, 활동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고민거리를 나누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1년에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안전교육은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다. 심폐소생술 강습(좌), 비상대피훈련(우)을 진행하는 모습>

2) 현지 평가회의

봉사단원은 파견 이후 2년간의 봉사활동 기간 중, 연 1회 총 2회의 현지 평가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현지 평가회의란 봉사단원의 활동에 대해 서로 소개하고,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활동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이다. 또한 봉사단원의 활동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확산시켜 보다 많은 단원들의 성공적인 봉사활동을 만들고자 하는 자리이다. 단원마다 활동기간이 다르므로 이에 맞춰 사무소에서 적정한 기수들을 포함하여 회

의를 개최하며, 연 4회 이내에서 개최된다. 안전교육에 비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는 시간이며 봉사단원과 사무소 간, 그리고 봉사단원 상호 간의 의견 교류, 제반 방침 전달은 물론 이에 더해 친목도모와 사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
현지 평가회의에 필요한 서류로는 파견 기관 및 단원의 활동 소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간평가(또는 종료평가) 결과보고서, 봉사단원 활동 현황 보고서 등이 있다. 단원의 파견 배경, 수요 기관의 상태, 문제점, 활동 현황, 계획 등 단원의 봉사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지 평가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현지 평가회의는 각 단원의 활동 발표, 분야별 그룹토의, 전체회의(소그룹 회의), 협력단 방침 전달, 건의사항, 특별강의 및 활동 총평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분야별 그룹토의는 활동의 성공요인 분석, 문제점 토의, 개선방안 등을 파견 분야별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단원 간에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단원들이 겪는 문제점이나 고민거리를 서로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보통 2년차의 귀국을 앞둔 선배 단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1년차 단원들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또한 1년차 단원들은 평소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고충에 대해 이해를 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 현지 평가회의를 통해 그간 느꼈던 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남은 기간을 더욱 보람되고 알찬 봉사활동으로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우수보고서 소개

정기활동보고서 중 우수 보고서를 예시로 첨부한다. 성실한 활동을 보고서로 남겨 후임 단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별지 제8호 서식]

제 4 호 (파견 3차 반기) (2015 년 1 월 1 일)	
파 견 국	르완다
파 견 일	2013.06.14

한국해외봉사단

활 동 보 고 서

성 명	신상겸
활동 기관명	TTC Rubengera
작성일자	2015.01.03

[보고내용]

1. 봉사활동 내용
2.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3. 활동지역 특성과 활동기관의 역량 및 주인의식 등에 대한 평가
4. 후임 단원 파견 필요성 여부 및 개선 방안
5. 향후 봉사활동 계획

1) 봉사활동 내용 – '14년 학교활동

컴퓨터 수업은 1년을 넘게 지내 온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인 동시에 학생들을 이해하고 현지인들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컨텐츠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수업 및 학교활동 진행에 있어 기관장을 제외한 코워커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비교적 원만하게 학교에서의 봉사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

① 개요

가정에 개인 컴퓨터를 가진 학생들이 드물어 컴퓨터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페이스북이나 여타 다른 채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학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수업집중도 저하로 이어지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 르완다 정부는 ICT 산업에 대한 강조를 하는 반면 건전하고 올바른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은 뒷전인 듯하다. 컴퓨터 수업은 한 학기의 총점에 5%를 미만을 차지(수원기관의 경우 학기 총점 1,000점 중 40점 차지)하기 때문에 수업을 건성으로 듣고 시험을 대충 마무리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컴퓨터 과목에 대한 낮은 비중 때문인지 컴퓨터실에서 학습능률이 저하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아하는 분위기다. 수업을 할 때는 전체 인터넷을 끊어 놓지만 연결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수업태도교정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도서관에 방치된 지원물품>

낙후되어가는 컴퓨터실 환경은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학교재정이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으며 컴퓨터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주변의 많은 학교들은 보통 한 학기에 60,000프랑 이상을 등록금으로 책정하지만 수원기관의 한 학기 등록금

은 45,000프랑에 불과하다. 학생들의 식사를 만들 땔감이 없어 교내에 있는 나무들을 베는 상황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컴퓨터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학교는 돈이 많이 들고 학습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지는 컴퓨터 과목에 대해 모두 외부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 현재 지어진 컴퓨터실은 2009년에 키갈리 교육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거의 모든 컴퓨터에는 UNICEF 스티커가 붙여져 있음). 그 전에 사용하고 있던 조금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사용가능한 컴퓨터 및 브라운관 모니터는 모두 창고에 쌓아 두고 사용하지 않는 등 지원받은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및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CT 엑스포가 처음 열렸을 때 지원되었던 물품들도 그렇다. 당시 지원된 다섯 대의 UPS는 거의 망가져 지금 한 대만 가용되고 있다. 한 대에 35,000프랑밖에 하지 않는 전압안정기 설치가 필요한 와중에도 이를 수년간 방치해 온 것이 문제를 더 키운 것이다. 부임 초기부터 전압안정기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OJT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교장의 지원 물품 도용은 개인 활동 물품 신청과 현장사업 심사 참여를 망설이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지원된 여러 컴퓨터 관련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학교장은 원활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학교장은 사무소의 물품 반환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을 때 듣지 않았으며, 사무소 현지인 직원의 말을 듣고 나서야 물품을 학교로 되돌려 놓았다. 학교장이 KOICA 봉사단원과 사무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일이 작년 4월에 있은 후, 향후 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후임으로 오게 될 봉사단원을 위해서라도 학교장과 봉사단원 간의 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학교장과 거리를 두고 다른 코워커들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동시에 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내에서 독자적인 활동에 치중하였다.

② 수업 및 학생들의 지도편달

모든 학기의 시작은 타자 연습에 할애했다. 컴퓨터를 끄고 켜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컴퓨터 사용을 하게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과목이 학생들이 올바르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일부 선생님들도 문제로 지적했던 무절제한 컴퓨터 사용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기울였다.

1학년 학생들은 컴퓨터의 기본 요소 및 하드웨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기초를 배운다. 2학년은 오피스 프로그램의 응용, 3학년은 오피스 프로그램 학습을 심화학습하는 동시에 인터넷 검색을 공부한다. 2학년, 3학년 학생들보다 영어구사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1학년 학생들과 르완다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컴퓨터 자격증과 관련된 수업이

있는 3학년 학생들은 코워커 선생님이 수업을 맡았으며, 본인은 1년 동안 2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맡았다. 첫 학기(1월 6일~4월 4일)에는 4개의 반, 두 번째 학기(4월 28일~7월 23일)와 세 번째 학기(8월 11일~10월 22일)에는 한 학년 전체인 5개의 반을 맡았다.

수학과 영어에 뛰어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었다. 컴퓨터 및 컴퓨터 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몇몇 잘하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수업 후에 공유하는 식으로 과목을 이수했다. 특히 코워커 선생님이 강조한 엑셀에서 학생들의 적용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암기 위주인 르완다 교육에서 수학시간에 선생님이 계산기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과정보다 정확한 결과만 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의 학습 분위기는 컴퓨터를 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이 수학응용이 요구되는 엑셀을 배우는 데 장애가 되었다. 엑셀에서 이용되는 함수를 숫자대신 대입해 연산하는 방식은 분명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확장된 엑셀의 사용능력 향상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학기 컴퓨터 수업>

학생들은 반드시 야간자율학습(17시 30분~19시/20시~21시)에 참여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은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어 방과 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주말에 보충수업을 하려고 해도 교내활동 및 여타 행사 참가로 인해 수업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수업은 반드시 주중 정규수업시간에 맞추어 진행해야 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없도록 반복되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내용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 했다.

필기를 하게 되면 컴퓨터 활용보다 암기에 치중할 것이 분명했다. 암기를 하지 않도록 수업시간에는 필기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반복되는 내용을 기본으로 컴퓨터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몇몇 학생들은 필기한 내용 없이 시험을 본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효과적으로 컴퓨터

를 배우는 데 교과서 혹은 필기 내용보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키보드와 마우스를 많이 만져 보고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시험은 수업시간에 실습 및 연습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수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방대한 이론 및 외워야 할 특정용어들은 수업과정에서 모두 배제하였다.

시행사항	목 표
타자연습(3주)	선생님에게 편지 쓰기, 가족 및 학교 소개/ 자기 소개 레터 작성하기 등
파워포인트(2주)	슬라이드 이해 및 삽입, 디자인, 애니메이션과 템플릿 변경
실기시험(1주)	실기연습을 바탕으로 한 기말고사 실기시험
필기시험(1주)	학기에 배운 내용을 총정리

※ 1 세 번째 학기(시험기간 제외 7주 – 컴퓨터 과목시험은 시험기간에 치르지 않음) 수업 진행 사항

※ 2 수업의 계획과 진행은 르완다 교육부에서 발행한 ICT SYLLABUS FOR UPPER SECONDARY EDUCATION을 참조하였음

※ 3 첫 번째, 두 번째 학기의 수업은 시험기간을 제외한 11주 동안 진행

※ 4 세 번째 학기에는 짧은 기간을 고려하여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실기시험과 필기시험만을 기준으로 성적을 처리하였음

2)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① 해외사무소와의 협조관계

사무소는 활동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잊기 쉬운 것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며 컴퓨터 단원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사무소 차원에서 주거지 및 주변 방문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서부지역 정세 및 보안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집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현지인들과 자주 이야기하여 치안 정보를 얻고 있다.

② 활동기관과 Co-worker와의 협조관계 등

대부분의 코워커들은 학교장의 엄한 감독하에 놓여 있어 코워커가 봉사단원에게 개인적으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없다. 동시에 소문으로 돌고 있는 학교장의 각종 비리에 일부 선생님의 반감이 매우 강한 편이어서 학교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공식적인 일을 봉사단원에게 부탁하는 일이 간혹 있다. 코워커는 KOICA와 한국에 긍정적이며 주변에 마을 사람들과도 가까워 자연스럽게 봉사단원이 현지인들과 가까워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활동지역 특성과 활동기관의 역량 및 주인의식 등에 대한 평가

① 활동지역 특성




<루치로(Rustiro)디스트릭트사무소 앞에서 바라본 키부호수(좌), 학교 기숙사 및 정원(우)>

마을에서 떨어질수록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지인들이 느끼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도 높아진다. 산악지대와 비포장도로로 대부분의 지역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유도 있으며 그만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산악 내부는 경찰서 배치가 적어 상대적으로 치안이 떨어지며 도로가 연결된 곳에서는 경찰들이 배치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② 활동기관의 역량 및 주인의식 등에 대한 평가

현 기관은 교사 양성학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책임감이 타학교에 비해 남다르다.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학생들 또한 교사를 신뢰하고 지도 및 감독에 성실히 따른다.

위에서 언급한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해 보인다. 현 학교장은 학교를 2001년에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재정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와 학

생들의 복지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원을 외부로 받고 있으나 학교장은 이에 대한 본인의 이익을 계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코워커인 교감은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며 서구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 교감은 외부 활동이 잦은 학교장을 대신해 많은 학교일정을 조율하며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교사들이 자기만의 일정대로 소화하려는 것을 조율하고 동시에 감독한다. 학교에 대한 감시, 감독활동에 대해 학교장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반면, 교감을 포함한 코워커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교사가 그렇듯 적은 보수로 항상 다른 직종을 찾으려 한다. 일례로 한 교사는 자신의 영어이력서를 보여 주며 필요한 것을 묻기도 했다. 르완다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책임의식을 갖는 데 보다 나은 보수, 복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후임 단원 파견 필요성 여부 및 개선 방안

① 단원 파견의 양면성

서부주는 다른 주들에 개발이 매우 뒤떨어진 지역이다. 여러 주요 도시들이 있지만 키부예와 같은 관광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산악지대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반면 파견지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학교 주변은 북쪽으로 기세니(Gisenyi)와 남쪽으로 키부예(Kibuye)를 통해 창구구(Cyangugu)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유동 인구가 매우 많다. 다른 서부지역에 비해 봉사단원이 근무하기 편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다양한 휴식도 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악지역과 조금은 떨어지고 포장도로와도 인접한 활동 기관은 매우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에 학교 소유인 토지도 있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외부 지원과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 넓은 학교공간은 키갈리에 있는 교육대에서 따로 건물을 지어 방학기간에 대학생들이 공부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키갈리에서 비교적 먼 키부예보다 자가용으로 30분 정도 가까운 활동 기관이 대안이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유치될 정도로 투자의 가치가 높다.

학교장은 발전 가능성에 발맞출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봉사단원을 활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장이 교내 봉사단원을 협력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부하직원, 2년 후 돌아갈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봉사단체가 적극 개입하여 도움을 주는 것에 부담 내지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일을 추진하면 예산을 받고

집행하는 데 있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장이 지역에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는 것으로 부터 단원의 활동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월에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때, 학교장은 모든 탓을 교감한테 돌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을 자랑하며 교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봉사단원이 학교 밖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미온적인 학교장이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는 임기 초기에 다양한 지역인사들과 만나는 것을 주저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학교 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보여 주며 교실을 열어도 되는지 물었지만 학교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같은 기관에서 활동을 했던 귀국한 봉사단원도 비교적 여유 있는 주말에 학교에서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상영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외에 방과 후 자율학습시간에 학생감독이 엄하여 원하는 해당시간에 수업을 할 수 없었던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다른 한편, ICT 엑스포를 통해 지원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원된 물품 중 노트북과 같은 물품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져가 쓰는 경우가 많으나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② 후임 단원 파견 시 준비물 등
교사양성학교로 파견되는 단원은 현지어인 키냐르완다어와 스와힐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다(DELF B2 이상 혹은 OPI Advanced Mid 이상). 두 언어로 단순한 정보 습득을 떠나 주장과 토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효과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량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학부/대학원까지의 경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실무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 단원이 파견된다면 다양한 예제를 통해 학생들을 무난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 중에 컴퓨터를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은 졸업 후 반드시 2년 동안 프라이머리 스쿨(Primary School: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거나 교육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졸업 후 2년 동안 르완다 내 일반 대학에 입학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컴퓨터 과목에 대한 선생님 수요도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르완다 내 교사 양성학교에 파견되는 봉사단원은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보다 타국어

습득에 능하고 다양한 교육 현장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학생들의 지도편달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준비물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지식으로 컴퓨터시설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5) 기타

마지막 학기가 될 2015년 첫 번째 학기는 보통 1월 첫째 주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1월 26일로 변경되어, 4월 말에 봉사단원으로서의 학교일정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학기 동안 2학년, 4개의 학급을 교육을 담당할 것이다. 마지막 현장사업 심사가 작년 12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었지만 금년 3월로 옮겨짐으로서 본인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현장사업 가능성이 사라졌다.

서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단원이 활동하기 매우 좋은 곳이다.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다양한 가능성을 꿈꿔 볼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단원의 역량과 자신이 활동에 따라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사무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역과 기관이 단원에게 얼마만큼 협조할 수 있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고마(Goma)에서 온 학교의 한 프랑스어 선생님은 르완다 현지인들이 공공재와 개인의 물건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이를 아프리카 전체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을 차치하고, 단원이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진 지원을 잘 보존하고 지속성이 있게끔 관리하는 것을 떠나 전향적인 개발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기관/학교장 및 지역인사들 간에 관계 등을 점검하여 단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활동물품 지원

일반 단원(시니어, 새마을 단원 포함)은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활동물품 지원'이라 한다. KOICA자문단의 경우도 현지활동 지원비(업무추진비 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단원의 경우 연간 1,250달러를 지원받아 2년간 총 2,5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물품구입비는 필요에 따라 본부 구매분(한국으로부터 배송)과 현지 구매분으로 구분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1) 본부 구매분

본부 구매분은 KOICA 본부에서 구매하여 보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본부와 계약한 외부 업체가 이 업무를 대행한다. 최근에는 (주)한진이 본 업무를 담당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 배송해 주고 있다.

본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인터넷 등에서 선정하여 '물품 지원 구매 요청서'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와 상의한 후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보낸다. 이때 조사했던 품목별 인터넷 주소를 요청서 비고란에 기입함을 잊지 말자.

'물품 지원 구매 요청서'를 보내면 몇 주 후 '물품 지원 구매 견적서'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적정하면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입하되, 비고란에 '본부 구매'라고 기입한다.

'물품 지원 구매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신청한다.

본부 구매분은 원화로 신청하고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지만, 인수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Tip 1. 2016년도 본부 물품 구매 대행업체 담당자는 (주)한진 국제 특송팀이며, 이메일 주소는 kovkoica@gmail.com 이다.

Tip 2. 신청 후 배송과 관련된 진행 상황을 현재 (주)한진 국제 특송 팀에서 운영하는 http://hanjinkoica.dothom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현지 구매분

현지 구매분은 르완다 현지에서 단원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서, 시장조사를 스스로 해야 한다. 품질과 가격, 구입 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선정하여 그 업체로부터 구매 견적서(proforma invoice)를 받아 신청서 양식에 맞춰 기입하되, 비고란에 '현지 구매'라고 표시한다.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무소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신청한다.

신청 후 사무소로부터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달러화를 환전하고, 현지화를 집행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된다. 이때 UOB환전 영수증과 물품구입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완료 후 결과 보고 시 물품 사진을 가급적 1장에 담고, 필요에 따라 기관의 기증확인서가 필요하다.

Tip. 금액 표시는 다음 챕터인 6. 봉사활동 지원비 집행 방법의 1)신청 시, ② 예산액 표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봉사활동 지원비 집행 방법

적용범위: 일반 단원(시니어, 새마을 포함) 활동물품 지원비, 공동협력활동, 현장사업, 방학 중 활동지원비, KOICA 자문단 현지 활동 지원비(업무추진비 포함) 등 단원이 직접 예산을 수립, 집행, 정산해야 하는 각종 경비

돈을 쓸 때는 쉽지만 정산할 때는 어렵고 까다롭다. 어떤 명목의 경비인지, 신청자가 일반 단원인지 KOICA 자문단인지에 따라 신청 및 정산 양식과 기재 내용이 다르므로, 사전에 담당 코디네이터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며 필요시 견본 자료를 요청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1) 신청 시

① 일반 사항

- 개인 용도의 기자재 구입은 불가하며, 구입 기자재는 KOICA 명의로 수원기관에 기증(결과보고 시 기증서 첨부, 소모품은 제외)해야 한다.
- 봉사활동 지원비 누적 후 일시에 고가의 기자재(예 : 복사기 등)를 구입하여 기관에 기증하는 선심성 지원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해당 품목에 대한 견적서는 신청 내역 순서대로 첨부한다.

※ 1다스 미만 필기구 등 소량 소모품은 견적서 불필요

② 예산액 표기

- 화폐 단위가 둘 이상일 경우, 화폐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해당 화폐 단위를 금액 앞에 표기하여 구분하여 주며, 원화나 현지화로 지출할 금액은 정수 첫째 자리까지, 달러로 지출할 금액은 견적서에 따라 정수 첫째 자리 혹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 예산 총액은 달러로 환산된 금액과 병기하는데, 먼저 각 단위별 합계액의 달러 환산액을 소수점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계산한 후 예산 총액은 정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 신청 시 원화와 르완다 프랑의 대 달러 환율은 매년 초 사무소에서 별도 공지하며, 2016년 대 달러 환율은 현지화 RWF740/U$ 원화 \1,140/U$ 이다.

※ 정산 시 환율은 이와 달리 실 환전액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③ 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은 우선 담당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견적서 등을 검토 요청한다. 담당 코디네이터 검토 후, 필요서류(신청서 외)를 갖추어 원본을 제출한다.
- 일반 단원의 활동물품 지원비는 매월 말일까지 사무소 검토 및 접수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취합하여 익월 1일(1회에 한함) 본부로 요청이 된다.
- KOICA자문단의 현지활동지원비는 분기별 1회 지원한다. 정확한 제출 날짜는 담당 코디네이터의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 현장사업 및 협력활동은 분기별 1회 지원하며 이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및 지원시기 등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담당 코디네이터의 안내에 따르도록 한다.

2) 예산 수령 및 환전

- 예산 승인 후 본부에서 사무소로 자금이 입금되면 사무소 회계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단원의 UOB 달러 계좌로 송금해 준다.
- 공금 환전은 ㉠ UOB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 KOICA 공금 환전이라고 밝히고, ㉢ 환전액과 환전영수증(은행 직인 포함)을 받는다.

※ 달러를 현지화로 환전 시 적용 환율은 UOB 고시 전신환 중간환율(사는 환율과 파는 환율의 중간 값)이며, 은행 담당자가 확인 후 적용한다. 이때, 사설환전소나 타행 환전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예산 집행 및 영수증 처리

- 예산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가격 변동, 제품 품절 등의 이유로 다른 물품으로 대체 구매하거나 수량 조정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미리 담당 코디네이터와 의논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하도록 한다.
- KOICA 자문단 업무추진비는 총 현지 활동 지원비 신청금액의 20% 이내 지원되며, 초과 집행액은 본인 부담이다.
- 모든 지출 증빙은 양식에 맞추어 일자별로 그때그때 정리해 두면 정산 시 편리하다.

4) 지출증빙 서류

르완다는 인보이스(INVOICE=TAX INVOICE=FACTURE)가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 증

빙서류이며, 인보이스 한 장당 10만 프랑 이상일 경우, 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RECEIPT)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 르완다 국세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RRA(Rwanda Revenue Authority) 영수증 발급기 사용이 보편화 되어, 영수증에 세부 명세 및 고객 명 입력이 가능할 경우, RRA 영수증 한 장만으로도 지출 증빙이 가능하다.

RRA 영수증이란 르완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업소의 매출 확인서이다.


FACTURE N°.....

Date 29/11/2015

M. KOICA doit

Qté	Désignation	P.U.	P.Total
1	CUPBO		
	150cm X 50cm X 100cm		

Paid

TOTAL


START OF LEGAL RECEIPT

END OF LEGAL RECEIPT

<증빙서류 중 FACTURE(인보이스)와 RRA 영수증 견본>

① 일반 영수증

- 대금 지불 시, 고객 명 KOICA로 RRA 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업체에 따라 고객 명 대신 TIN 번호(납세자 식별 번호)를 기입하기도 하는데, KOICA 르완다 사무소 TIN 번호는 '101440892' 이다.
- RRA 영수증에 고객 명을 기입할 수 없을 경우, 별도로 인보이스를 써 달라고 하거나 영수증에 고객 명을 쓰고 업체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된다.
- 재래시장 등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일자, 구매처, 구매내용(품명, 수량, 금액), 구매자 성명과 서명, 판매자 성명과 서명, 연락처를 기록하여 제출한다.

② 통번역 등 인건비는 영수증과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단, 건설 잡부 인건비를 단원이 직접 집행한 경우에는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지불단가, 수령액, 수령자 서명이 기입된 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신분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정산보고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활동물품	현지 구입분 : 경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경비 정산 본부 구입분 : 본부 구입분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정산(활용결과보고)	최종보고시 활용계획, 사진, 기증서를 징구하여 결과보고 실시
현장사업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협력활동	활동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활동지원비	활동지원비 지원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	
기타경비	경비집행 후 7일 이내 정산	

① (정산보고) 해당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정산서는 아래를 참조하여 담당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원본을 지참하여 담당 코디네이터의 확인을 받는다.

② (지출액 달러 환산) 환전 영수증에 근거하여 평균환율을 구한 후 각 지출액에 대한 달러 환산액을 기입한다.

※ 평균환율 = 현지화 환전 총액 ÷ 달러 환전 총액

③ (지출증빙 첨부) 지출증빙서는 정산서 내역 순서대로 해당 지출증빙에 일련번호를 쓰고 순서대로 첨부한다.

④ (기증서 첨부) 구입 기자재는 KOICA 명의로 수원기관에 기증하고, 기관장 서명이 들어간 기증서를 첨부한다(소모품은 제외).

⑤ UOB에서 환전한 영수증을 첨부한다(사설 환전소 등 비공식 증빙서는 인정하지 않음).

⑥ 물품 사진을 첨부한다(가급적 1장으로 처리).

⑦ 파일을 쉽게 전송하기 위해 스캔한 영수증, 사진 등은 용량을 줄여서 붙인다.

현장사업과 협력활동

1) 현장사업이란?

현장사업이란 단원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파견 기관과 활동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프로젝트이다. 단원이 주체적으로 기획, 집행, 완료까지 전 단계를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인과 함께 단원의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KOICA의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장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건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현장사업은 현지 도착 후 5개월 경과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견으로부터 현장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사업의 진행순서는 간단히 다음과 같다.

① 현지 기관의 적응 및 이해
② 기초 조사 및 정보 수집
③ 현장사업 기획
④ 현장사업 계획서 작성
⑤ 현장사업 심의위원회 통과
⑥ 현장사업 수행
⑦ 현장사업 중간보고서 제출
⑧ 현장사업 마무리 및 점검
⑨ 현장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현장사업 업무 흐름도

단원 신청 - 사업 계획서 (PDM포함) - 자금 집행계획서 ⇒ **사무소 검토/승인** (현장사업 심의 위원회) ⇒ **본부에 경비 지원 요청** (사업검토 결과서 및 심의위원회 결과 첨부) ⇒ **사업진행** (진행 상황 본부 보고) ⇒ **사업결과 접수** - 결과보고서 - 정산서 금전출납부/원본영수증) ⇒ **사업결과 본부 보고** (원본 영수증 본부송부/사본 사무소 보관)

현장사업 심의위원회란, 현장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및 우수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전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심의 대상 현장사업은 1만 달러 이상의 현장사업 전체이며, 각 사무소는 현장사업 심의를 위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최대 6인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적격/보완/부적격 3등급으로 평가되고, 이중 적격인 사업을 대상으로 최종 승인된다.

Tip 1. 현장사업 심의위원회는 사무소 직원과 ODA전문가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다. 심의에 앞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여 성공적인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Tip 2. 심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속성(sustainability)'이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단원이 실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성을 띄지 않는다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단원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수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Tip 3. 현장 심의위원회는 1만 달러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므로, 1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스케쥴을 심의위원회에 맞출 필요가 없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정 시기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1만 달러 미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업의 크기보다는 기관의 상황에 적절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도록 하자.

2) 현장사업 관련 보고서

① 현장사업 계획서

활동 중 현장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현장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는 여러 봉사단원이 제안한 현장사업을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한 현실적인 사업을 결정하도록 한다. 현장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므로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심의과정에서의 의문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현장사업 착수보고서

현장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현장사업 계획서는 본부로부터 승인 및 사업비 송금이 진행된다. 착수보고서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목적의 보고서로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작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현장사업비를 수령하게 된다.

③ 현장사업 중간보고서(1차, 2차…)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먼저 사업비를 수령하게 되는데, 1만 달러 이상의 현장사업일 경우 진척도(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분할 지급받게 된다. 분할 지급의 시기와 횟수는 계획서 작성 시에 사무소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분할 지급받아 잔여 사업비를 수령해야 할 경우 반드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앞서 받은 사업비를 정산해야 잔여 사업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착수보고서에서 계획한 사업비 집행일정의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④ 현장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이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외사무소에 제출, 이후 30일 이내에 본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현장사업은 마무리를 짓게 된다. 결과보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한다.

현장사업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증 확인서, 환전 및 송금 영수증 원본, 계좌거래내역서(통장 사본), 현장사업비 정산서, 금전 출납부, 영수증과 각종 계약서 및 증빙서 원본, 기타 자료(설문조사결과, 평가서, 사진, 보도자료 등) 등이 있다.

⑤ 현장사업비 정산보고서

현장사업 결과보고서와 함께, 사업 진행에 사용되었던 현장사업비를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유의사항

- 단원이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관리를 수행하되, 계약 체결은 사무소 명의로 체결
- 모든 물품 구매계약은 사무소 명의로 실시함이 원칙 (불가피한 경우 단원 또는 소속기관 명의 실시 가능)
- 사무소는 모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현장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수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무소장 승인 하에 연장 조치
- 현장사업 완료 후, 기증식을 실시하고 현지 언론에 홍보
- 건물, 기자재 등의 현장사업 결과물은 공식문서로 기증

현장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KOICA에서 발행한 '쉽고 재미있는 현장사업 길라잡이'를 참고할 수 있다. 국내교육 시 지급받거나 현지 사무소에도 구비가 되어 있으므로 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알찬 현장사업을 준비하도록 한다.



<현장사업 길라잡이 표지>

Tip. KOICA 봉사단원 홈페이지(http://kov.koica.go.kr)에서 각 나라별로 그간 진행되었던 현장사업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틈틈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을 권한다.

3) 협력활동이란?

협력활동은 단원 활동 지역 또는 국가 내에서 단원 간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문화행사나 이동 보건소 운영, 공모전 및 캠페인과 같은 행사들이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보통 5인 이상의 단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사업과는 다르게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경비의 일부를 단원이 부담하고 있으며, KOICA는 활동에 필요한 직접 경비와 필요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장사업과 달리 지원 금액에 상한액이 없으나, 대부분 사업의 경우 1천-3천 달러 사이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협력활동 지원 절차는 간단히 다음과 같다.

① 단원 신청(활동계획서 제출)
② 사무소 검토 및 승인
③ 본부에 경비 지원 요청
④ 경비 송금 및 협력활동 수행
⑤ 결과보고 접수(경비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 원본영수증)
⑥ 사업결과 본부 보고(원본영수증 본부 송부, 사본 사무소 보관)










<르완다 사무소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던 다양한 현장사업과 협력활동들.
왼쪽 상단에서부터 시네마천국, 과학경시대회, ICT Expo, 태권도장 신설, 교사교육 Workshop,
동화책 제작 등 교육기관이나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4) 르완다 단원 현장사업 목록(2009~2016)

단원명	기관명	사업명	종료 일자
전효정	ETO 키부예	키부예 국립기술 중·고등학교 고육환경개선	2009. 07.
최남희	르완다 국립대학교(CAVM)	식품 실험 실습실 실험장비, 제빵기기 설치를 통한 식생활 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2009. 12.
신은영	세인트빈센트 중고등학교	화학실험실 실험환경 구축 및 물품 지원	2010. 09.
이영문		Gisimba고아원 ICT시설 및 교육 지원	2010. 12.
나세나	알리안스고등학교	컴퓨터 실습실 지원	2011. 02.
이충성	세인트 안드레 중고등학교	배구선수 양성을 위한 체육 시설 건립	2011. 03.
박제영	IPRC 가추리로	멀티미디어 실습실 지원	2011. 04.
김형철	외교부	외교부 전산망 저장장치 설치 등 지원사업	2011. 04.
오승민, 김순영	기심바 고아원	기심바 고아원 기반환경 개선 사업	2011. 07.
김준우, 최세현, 최지웅		르완다 빈곤지역 Telecenter 내 디지털 도서관 구축	2011. 08.
도영무	ETO 부소고	디지털 건축제도실 구축	2011. 10.
김영모	르완다 국립대학교(CAVM)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실건설 지원	2011. 10.
정용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Fawe고등학교 과학실 현대화 사업	2011. 12.
한장희	에꼴과학고등학교	정보화 교육실 구축	2011. 12.
백이삭	르완다 국립대학교(키스트)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실험실 구축	2011. 12.
정창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Fawe여자 과학 중·고등 환경개선 사업	2012. 01.
오솔길	기세니중고등학교	정보화 교육실 구축 지원	2012. 08.

단원명	기관명	사업명	종료 일자
이슬기	무산제1초중학교	정보화 교육실 구축 지원	2012. 10.
홍성표, 김유영	카부타레 농업고등학교	카부타레 농업고등학교 버섯 실습실 조성	2012. 10.
조승현	에사 루헹게리 중고등학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장 시공	2012. 12.
최혜영	무산제1초중학교	교육기반시설 개선사업	2012. 12.
곽은옥	아페가 가헨게리 중고등학교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산 실습실 구축 및 경영(회계)분야 도서 지원	2013. 01.
문대철	세인트빈센트 중고등학교	과학도서관 건설 및 도서지원	2013. 02.
석다혜	가추리로VTC	미용 실습실 구축 사업	2013. 08.
조윤범	IPRC EAST	IPRC EAST 컴퓨터실 구축 및 사용환경 개선	2013. 10.
이미나	냐마굼바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선사업	2013. 12.
김현호	카부타레 농업고등학교	전산실 개선 및 정보화 연구실 지원	2014. 02.
박은별	레지나 파시스 초등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2014. 02.
김시민	르완다 국립대학교(키스트)	이러닝 콘텐츠 개발	2014. 02.
김지연	르완다 국립대학교(CAVM)	양계장 신축 및 농장 환경 개선	2014. 04.
김지은	카부타레 농업고등학교	양어 실습장 조성	2014. 05.
백승희	냐키냐마 초중고등학교	보건실 및 시청각 교육실 구축	2014. 06.
이은진	무산제1 초중학교	안전시설 설치 및 보건실 환경개선	2014. 06.
유재준	루헹게리 이슬람 중고등학교	경영도서관 건축 및 도서 지원	2014. 06.
유근화	무코초중고등학교	실험실 증축 및 실험환경 개선	2014. 06.

단원명	기관명	사업명	종료 일자
윤영섭	가소지 관광호텔 중고등학교	조리 실습실 증축	2014. 07.
이옥	카부타레 농업고등학교	농산물 식품 가공시설 구축	2014. 09.
이웅희	무산제1초중학교	통합 과학실 구축	2014. 10.
유희진	르완다 국립대학교(CAVM)	도서관 관리 시스템 현대화	2014. 11.
최광덕	IPRC EAST	기자재 활용을 통한 교육환경대선 및 기자재 보관실 리모델링	2014. 12.
임익권	SOS기술고등학교	전기통신과 강의실 및 실험실 구축	2015. 03.
김학수	니야마타 기술고등학교	용접 workshop 설치 및 실습기자재 지원	2015. 04.
이경효	세인트 마리르네 카부가이중고등학교	전산실 개선	2015. 04.
이성옥	세인트 제이콥	아트센터 건립	2015. 05.
박한규	카부타레 농업고등학교	임업실습실 설치 및 유실수 식재	2015. 05.
박희숙	냐키냐마 초중고등학교	정보화교육실 구축	2015. 08.
이문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과학 교육센터 구축	2015. 10.
유재욱	르세드키갈리	실험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존 타 건물의 용도 변경	2016. 02.
윤은진	무코초중고등학교	나도 컴퓨터를 만져 보고 싶어요 (컴퓨터실 지원 사업)	2016. 02.
정지만, 이지민	세인트 마리르네 카부가이중고등학교	체육, 태권도 교육을 통한 르완다 국민 체력 증진 사업	2016. 04.

5) 르완다 단원 협력활동 목록(2011~2015)

담당 기관	활동 단원	사업명	사업일자
르완다 사무소, REB(Rwanda Education Board)	정용희 단원 외 30명	제1회 르완다 전국 과학 경시대회	2011. 07.~2011. 11.
사업 내용	*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우수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르완다 경제발전에 밑받침이 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Science Contest (Chemistry, Biology, Physics, Math, Computer Science), Science Fair, Science Experiment, Golden Bell Quiz Contest, Report Contest		
	무산제 지역 전 단원	무산제 수해마을 재건사업	2011. 10.~2012. 05.
사업 내용	* 수해로 유실된 가옥 재건축, 염소 분양 및 작물재배 교육 등 * 협력단 홍보실에서 "KBS 체험 삶의 현장" 특별 촬영팀을 르완다 동 사업 현장에 안내하여 동 프로그램을 촬영		
르완다 사무소	김민정 단원 외 22명	르완다 체육 분야 단원 Workshop	2012. 02. 23.
사업 내용	* 체육 분야의 현실, 개선 방안, 공동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활동 방안 강구		
르완다 사무소	정용희 단원 외 9명	과학 관련 단원 Workshop	2012 .04. 21.
사업 내용	* 동종 분야의 문제점 공유와 해결책 모색, 정보 공유, 단원 간 물품 공유 시스템 구축, 과학 교육과정 설립 계획		
르완다 사무소	윤성혜 단원 외 4명	아프리카 국제클럽 국제음식 박람회	2012. 04. 12.~ 2012. 05. 13.
사업 내용	* 르완다 주재 각국 대사관 및 외국 원조 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음식박람회에 참여, 르완다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업. 공관 신설 후 첫 참여 * 한국 전통음식 시식 행사, 한국문화 홍보 행사, KOREA 및 KOICA 홍보		
르완다 사무소	이형욱 단원 외 5명	이동형 ICT(정보통신기술) 체험홍보관 구축사업	2012. 05. 01.~ 2012. 09. 01.
사업 내용	* ICT 체험 홍보관 설치(체험 홍보관 운영 설비 구축, 교육자료 구입 및 설치) * 체험 홍보관 전국 순회 전시회(주요 지방 4개 도시 순회전 시회, 주요 수도 학교 순회 전시회)		

담당 기관	활동 단원	사업명	사업일자
르완다 사무소, REB(Rwanda Education Board)	이하얀 단원 외 37명	제2회 르완다 전국 과학경시대회	2012. 07.~ 2012. 11.
사업 내용	*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우수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르완다 경제발전에 밑받침이 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 Science Contest (Chemistry, Biology, Physics, Math, Computer Science), Science Fair, Science Experiment, Golden Bell Quiz Contest, Report Contest		
르완다 사무소	양우림 단원 외 49명	Kinyarwanda 웅변대회	2012. 07. 14.
사업 내용	* 르완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원들의 현지어 학습을 장려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UNV, NIC(르완다 자원봉사자 위원회)	KOICA, JICA, UNV, VSO 등 약 100여 명	Celebrating International Volunteer Day 2012 in Rwanda	2012. 12. 07.
사업 내용	* 르완다 자원 봉사의 역사와 현 상황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의미에 대한 인식 제고(UNV) * 행사에 참석한 르완다 자원봉사자들과 UNV, JICA등 해외 자원봉사자들 간에 국제협력 교류		
르완다 사무소	조홍용 단원 외 8명	뮤지컬 공연 및 미술 작품 전시회	2013. 05. 03.
사업 내용	* 뮤지컬 공연-'오즈의 마법사' 공연, 봉사단원들이 분장, 노래, 음향 등 모든 부분에서 참여 및 지도.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의 관람이 이루어짐 * 미술 작품 전시회-World Friends Korea 로고를 이용한 미술대회 개최. 입상 작품들을 전시하고 KOICA에 대한 홍보 활동 이루어짐. 시상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물 증정		
르완다 사무소	이계선 단원 외 7명	간호단원 순회 진료	2013. 06. 19.~ 2013. 06. 20.
사업 내용	*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신체검사(키, 몸무게, BMI 측정), 구충제 보급, 손 씻기 교육, 상처 치료 활동-무산제 지역		

르완다 사무소, REB(Rwanda Education Board)	김수환 단원 외 33명	제3회 르완다 전국 과학 경시대회	2013. 07.~ 2013. 11.
사업 내용	*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우수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르완다 경제발전에 밑받침이 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 699명 참여 * Science Contest (Chemistry, Biology, Physics, Math, Computer Science), Science Fair, Science Experiment, Golden Bell Quiz Contest, Report Contest		

담당 기관	활동 단원	사업명	사업일자
르완다 사무소	배경환 단원 외 4명	안녕 타자 연습 프로그램	2013. 09.~2013. 12.
사업 내용	* 영어와 키냐르완다어 연습을 위한 타자 연습 프로그램 개발 * 교육용 컨텐츠(속담, 격언, 르완다 국가 등)를 이용한 교육용 타자프로그램 개발 및 CD 제작 * 르완다 전역에 프로그램 CD 매뉴얼 교육 및 배포		
르완다 사무소	사무소 3명, 봉사단원 20명, 마을주민 200명, 'MBC KOICA의 꿈' 연예인 및 봉사단원 37명	제노사이드 피해자 마을 지원	2013. 09.~2013. 10.
사업 내용	* 공동 작업장 공사- 공동 작업장 건립, 공동 작업장 주변 지반 공사 및 정리 작업 실시, 공동 작업장 내 페인팅 작업 * 제노사이드 피해자 마을 방문- 제노사이드 피해자 마을 방문 물품(옷) 전달, MBC KOICA의 꿈 봉사단원 및 연예인 참여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무코 그리고 냐키냐마 초등학교 방문(봉사단원 활동기관), 합창단 격려 및 물품 전달		
르완다 사무소	봉사단원 30명, 사무소 직원 15명, 'MBC KOICA의 꿈' 봉사단 및 촬영팀 37명, 무산제 지역 주민 582명	한국의 날 행사	2013. 10. 05.
사업 내용	* OPENING CEREMONY- 북춤,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K-pop * Main Program- 페이스 페인팅, 포토 존, 투호, 제기, 국기 모자이크 붙이기, 한국말 배우기, 소고 * Ending Ceremony- 축구 경기		

르완다 사무소	이성옥 단원 외 5명, 르완다 작가 6명, 학생 40명, 관람객 300여 명	한국, 르완다 미술 작품 전시회	2013. 12.~2014. 03.
사업 내용	* 전시장을 일주일간 대관하여 작품 전시 * 르완다 작가들과의 워크숍 진행 * 일일 미술수업 워크숍 * 일일 미술관 투어 워크숍		
르완다 사무소	서지영 단원 외 10명	간호단원 순회 진료	2013. 12. 13.
사업 내용	*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신체검사(키, 몸무게, BMI 측정), 구충제 보급, 손 씻기 교육, 상처 치료활동- 키붕고 지역. 지역주민 약 500여명 혜택		

담당 기관	활동 단원	사업명	사업일자
르완다사무소	김종학 단원 외 3명, 현지 태권도 국가대표 8명	다문화행사(Multicultural Event)	2014. 02. 14.~ 2014. 02. 15.
사업 내용	* 르완다 정부 주관의 다문화 행사에 참여해 KOICA와 한국 홍보 * 태권도 시범(품세, 격파, 태권무 등), KOICA 홍보		
르완다 사무소	박세원 단원 외 3명	르완다 국민건강증진 프로젝트	2014. 04.~2014. 09.
사업 내용	* 국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작-국민 건강 체조, 건강 체력 검정, 태권도, 보건 교육 * 무산제 일선 학교 체육교사 연수 * 무산제 일선 학교 간 국민 건강 증진 대회 개최 * 체력 향상 DB 추출 및 프로그램 르완다 교육부 제출		
르완다 사무소	박초롱 단원 외 1명	유치원 독서교육 콘텐츠 개발	2014. 04.~2015. 02.
사업 내용	* 현지어 동화책 제작, 동화책 개발- 직접 작화 제작 및 번역 * 동화책 배포 및 활용 * 교사 연수 프로그램 제작 및 시행		
르완다 사무소	조은주 단원 외 8명	간호단원 순회 진료	2014. 05. 02.~ 2014. 05. 03.

사업 내용	*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기본적인 신체 검사(키, 몸무게, BMI 측정), 구충제, 비타민제, 철분제 보급, 손 씻기 교육, 상처 치료활동, 건강 상담- 키붕고 지역. 가샤루&라로 지역주민 약 500여명 혜택		
르완다 사무소	유현정 단원 외 8명	아프리카 국제클럽 제9회 국제음식 박람회	2014. 05. 25.
사업 내용	* 르완다 주재 각국 대사관 및 외국 원조 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제 음식 박람회에 참여. 르완다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업. 공관 신설 후 첫 참여 * 한국 전통음식 시식 행사, 한국 문화 홍보 행사, KOREA 및 KOICA 홍보		
르완다 사무소	김은정 단원 외 1명	구강보건 교육 및 실습 사업	2014. 06.-2014. 10.
사업 내용	* 구강보건 교육 포스터 배포 * 구강 환경관리 능력 검사를 통한 구강교육 실시- 올바른 양치습관 변화 유도(대상자의 90%)		
르완다 사무소	조홍용 단원 외 3명, 현지 공연팀 7명	연극 공연	2014. 06. 13.
사업 내용	* 헨젤과 그레텔 영어 연극 시연		

담당 기관	활동 단원	사업명	사업일자
르완다 사무소	정다운 단원 외 13명	ICT EXPO (ICTRon)	2014. 10. 14.~ 2014. 10. 21.
사업 내용	* 레고 마인드 스톰(레고를 조립하고 그 위 프로세서에 프로그래밍하여 원하는 대로 레고를 조종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교육 * 스크래치 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 * 안녕 타자 연습 프로그램 소개 및 교육		
르완다 사무소	강희상 단원 외 7명	시네마천국 - Cinema Paradiso	2014. 11. 12.~ 2014. 11. 14., 2014. 12. 22.~ 2014. 12. 24
사업 내용	* 이동식 상영관을 통해 수도가 아닌 지방 지역에서 여가문화를 공급. 이를 통해 한국 문화 및 KOICA에 대한 관심 유도 * KOICA 홍보물 촬영		

르완다 사무소	청년위원 2명, 수행 직원 1명, KOICA 직원 1명, 임진아 단원 외 19명	청년위원과 함께하는 멘토링 관련 봉사단 협력활동	2015. 04. 22.~ 2015. 04. 24.
사업 내용	* 청년위원 특강 -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외교 대사"로 강의 * 봉사단원 대상 간담회 * 봉사단과 함께 하는 농촌 지역 봉사활동-가샤루&라로 마을 방문, 감자 재배 봉사활동을 수행(해외봉사단 8명, 현지 주민 20명 참여)		
르완다 사무소	강희상 단원 외 34명	시네마천국 - Cinema Paradiso	2015. 08. 03.~ 2015. 08. 14.
사업 내용	* 전년도에 있었던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르완다 새마을 사업지 4곳에서 상영. 회당 150명(총 2,000명) 참여 * 한국 영화 위주로 상영했고, 모두 현지어 자막으로 상영. 영화관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입장과 티켓 발권, 팝콘 증정 프로그램 진행		

새마을 봉사단 소개

1) 새마을 해외봉사단이란?

KOICA와 경상북도 산하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 새마을리더로 국내에서 교육받은 시니어 및 주니어 봉사단원이 파견된다. 선발된 봉사단들은 각 개발도상국의 시범마을에 파견되어 새마을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전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시범마을은 현지 주민들의 의식 개혁, 환경 개선, 소득 증대 사업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2) 목적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한다. 또한 인류공동 번영의 보편적 가치인 인류애를 구현하고 새로운 국제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3)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기존의 원조방식과 차별화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주민의 주인의식, 자립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

추어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방법을 전수한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주민 의식 개혁, 현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소득 증대 사업 등이 있다.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9개국(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에 27개 시범마을이 조성되어 있다(2015년 기준).

4) 르완다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0 ~ /마을당 5년 예정
- 대상마을 : 키가라마(Kigarama), 무심바(Musimba), 기호궤(Gihogwe), 가샤루-라로(Gasharu-Raro)
- 봉사단 파견 : 총 80명

'10(6명), '11(16명), '12(22명), '13(13명), '14(16명), '15(7명)

마을명		'10	'11	'12	'13	'14	'15	'16
키가라마	사업기간							
	봉사단	6	5	5	3	3		
	사업비	148	137	150	100	100		
무심바	사업기간							
	봉사단		5	5	3	4	3	
	사업비		142	150	120	150	150	
기호궤	사업기간							
	봉사단		6	6	4	5	3	
	사업비		145	150	120	150	150	
가샤루-라로	사업기간							
	봉사단			6	3	4	1	
	사업비			150	140	160	150	

출처: 새마을 세계화재단 홈페이지 http://saemaulgf.or.kr/, (단위: 명, 백만 원)






<새마을사업 중 벼농사사업 모심기(좌상), 파인애플 시범사업(우상),
의식교육(좌하), 벼농사사업 수확(우하) 사진>

② 마을별 현황(2016년 기준)

- 키가라마(Kigarama) 마을(2010~/5년차 마을) : 사업 종료(2015.08)

구 분	사 업 명	사업 내용	진행상황
환경 개선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회관 및 보건지소 건축	완료(2011)
	모던스토브 보급	50가구 제작완료	완료(2012~13)
	학교교실 신축	교실 3칸 신축	완료(2013.4)
	보건소 리모델링	보건소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2015.8)
소득 증대	염소은행	192마리 분양	종료(2012.08)
	양계사업	20수/1가구 사육, 총 51가구	완료(2015.08)
	부녀회 소득 증대사업	재봉 공동조합 운영	완료(2015.08)
의식 고취	새마을 교육	리더십 교육(마을리더, 새마을 위원회 등)	종료(2015.08)
	육아교육 (유치원, 공동육아)	유치원, 공동육아 운영 학부모회 인계	완료(2015.03)
	보건소 운영	르완다 정부인계(보건소)	완료(2014.8)

- 무심바(Musimba) 마을(2011~/5년차 마을)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진행상황
환경 개선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회관, 야외 회의장 건축	완료(2011)
	다목적 광장 정비	마을 회관 공터 정비	완료(2013)
	유치원 건립	유치원 건축	완료(2013)
	용수공급계통 건설	상수도 파이프 3.5km 연결	완료(2013)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 및 보수	완료(2014)
소득 증대	벼농사 확대사업	30ha 경작, 경작지 확장 인프라 구축(건조장, 관개수로) 협동조합 운영 교육	진행중, 수확량 : 5ton/ha
	파인애플 시범사업	약 9.5ha 파인애플 경작	진행중
	가축은행	양돈 대출사업(55두)	진행중
	양봉 시범사업	양봉 관련 교육 진행	종료(2014)
의식 고취	새마을 교육	의식교육(사회개발강의)	진행중
	유치원 운영	원아 80명 수용 학부모회 인계	완료(2014.08)
	위생 교육	양치 교육 및 손 씻기 교육	완료(2014.08)

- 기호궤(Gihogwe) 마을(2011~/5년차 마을)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진행상황
환경 개선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회관, 야외 회의장 건축	완료(2011)
	모던스토브 보급	180가구 모던스토브 개량	완료(2011~13)
	주거환경개선	주택 개량 및 보수	완료(2014.08)
소득 증대	벼농사 사업	50ha 경작, 16ha 확장, 인프라 구축(창고, 건조장) 협동조합 운영 교육	진행 중 수확량 : 5ton/ha
	가축은행	양돈 대출 사업 협동조합 운영 교육	진행 중
	품종개량 사업	바나나 품종개량(6.7ha/149가구) 협동조합 운영 교육	진행 중

의식 고취	의식교육	사회개발강의	진행 중
	일소보급	일소 위원회 구성 및 훈련	완료(2015.08)
	문해교실	키냐르완다어 교육-정부인계	완료(2012~14)
	부녀회 활성화사업	전통 춤, 노래 활동 대안생리대 제작 공동육아 - 정부인계	완료(2014~14)
	청년회 태권도 교육	청년회 대상 태권도 교육 -약 50명 수강	완료(2014.08)

- 가샤루-라로(Gasharu-Raro) 마을(2012~/4년차 마을)

구 분	사 업 명	사업내용	진행상황
환경 개선	새마을회관 건립	마을 회관 및 야외 회의장 건축	완료(2013)
소득 증대	양돈사업	청년회 조직 육성 강화 (양돈 공동 사육)	진행 중
	시범농장	옥수수, 감자 조합 운영	진행 중
의식 고취	의식교육	사회개발강의 - 4년차	진행 중 (2012~16)
	부녀회 역량사업	비즈니스 교육, 구판장 운영	진행 중
	유치원 운영	원아 40명 대상	종료(2013.08)



선배 단원들의 조언

국내 교육과 현지 적응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더라도 파견에 앞서 조금은 막막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또는 무사히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선배 단원들에게 파견 기관 및 지역의 상황, 활동 중 어려웠던 점, 그리고 해결책, 후배 단원들에게 추천하는 물품, 당부의 말 등을 인터뷰하여 수록하였다. 파견 분야에 따라 그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는 하나 활동 중 부딪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상상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대비하여, 보다 알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1) 파견 기관 및 지역의 상황

르완다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의 기관도 유치원과 함께 붙어 있는 초등학교였으며 1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5평 남짓한 비좁은 교무실을 교대로 오가며 사용했습니다. 또한 학교 바로 앞에 큰 길이 위치한 탓에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일삼아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교내외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KOV 71기 이미나 / 체육교육(일반) / 무산제 냐마굼바초등학교

정부에서 지원받은 학습교구들과 KOICA 단원이 현장사업으로 건축한 실험실이 존재했으나 교사들이 활용법을 몰라 벌건 흙먼지에 뒤덮여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주로 암기만을 강요하는 등의 단순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했으며 학생들 간의 수준 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KOV 95기 김편금 / 초등교육 / 무산제 G.S NYAKINAMA SCHOOL 1

르완다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각 학교마다 주요과목을 선택하여 교육합니다. 저의 기관의 경우 MPC(M-수학, P-물리, C-컴퓨터), PCM(P-물리, C-컴퓨터, M-수학), MCB(M-수학, C-컴퓨터, B-생물), PCB(P-물리, C-컴퓨터, B-생물) 4개의 콤비네이션이 있었습니다.
키갈리에 위치한 저의 기관은 도서관, 컴퓨터실 등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활용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엔 학교 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ICT에 대한 교사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KOV 76기 이문희 / 과학교육 / 키갈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키갈리 내에서 가장 수준 높은 대학인만큼 우간다, 케냐, 남아공 및 스웨덴 출신의 교수 및 강사들을 고용했으며 시설 또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교수진들에 비해 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의성 증진의 수업보다는 기술습득 등의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8기 국제협력봉사요원 정다운 / 컴퓨터교육(일반) / 키갈리 키스트(KIST)대학교

2) 파견기간 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어려웠던 점들

파견초기 당시 앞으로 코워커가 되어 저에게 도움을 줄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코워커는 무려 8개월 동안 저의 인사를 받아 주지 않는 등 쉽게 마음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KOV 76기 | 김성구 / 전기전력 / 키갈리 IPRC Kigali

르완다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교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코워커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 단 한명의 학생도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고 많은 현지 교사들이 키냐르완다어를 사용하여 수업했습니다.

KOV 95기 | 김편금 / 초등교육 / 무산제 G.S NYAKINAMA SCHOOL 1

수도에 위치한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수한 현지 교수진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간다 출신의 교사와 르완다 현지 교사의 수준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달랐습니다.

KOV 76기 | 이문희 / 과학교육 / 키갈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컴퓨터실을 추가로 지어 달라는 기관의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멀쩡한 컴퓨터실이 2개나 존재했기 때문에 현장사업 요구 요청을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28기 | 국제협력봉사요원 정다운 / 컴퓨터교육(일반) / 키갈리 키스트(KIST)대학교

르완다 사람들은 간호사를 의사와 같다고 인식합니다. 그런 면에서 간호사로서 의사처럼 진단하고 처방을 한다는 것이 간혹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의 경우 말이 통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 스스로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키냐르완다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지 교사의 조력으로 통역이 가능했으나 제대로 인지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KOV 103기 | 백석영 / 간호 / 무산제 G.S Nyakinama

(IPRC 키추키로는) 많은 KOICA 단원들이 꾸준히 파견되었던 기관이었으며 KOICA 프로젝트

도 진행된 기관이었기에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가 많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구입한 장비를 구비해 놓은 경우 A/S가 어려웠습니다.

KOV 95기 김남헌 / 자동차 / 키갈리 IPRC 키추키로

3)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의 해결 방안

양호실에서는 키냐르완다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적은 후 현지 교사에게 키냐르완다어 번역을 부탁해 암기 후 사용했습니다.

KOV 103기 백석영 / 간호 / 무산제 G.S Nyakinama

키냐르완다어는 이웃에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 산책과 등산 등을 함께 하며 수시로 익혔습니다. 또한 수업 시 의사소통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받아 활용함으로써 학습이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KOV 82기 박한규 / 임업 / 후예 Kabutare농업고등학교

저의 경우 이론과 실습을 함께하는 수업을 맡았습니다. 보통 이론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실습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론수업을 진행할 때 현지인 교사의 조력으로 통역을 거치거나 현지인 교사가 직접 이론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지인 교사가 학생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저보다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이론수업은 저보다 현지인 교사가 더욱 잘 가르칠 수 있었고 실습수업의 경우 저의 많은 경험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KOV 76기 김성구 / 전기전력 / 키갈리 IPRC Kigali

언어의 문제는 얼마나 현지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라는 마음의 문제가 함께 하는 듯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것이 유창하다 하더라도 영어가 제2외국어인 현지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소통의 문제는 여전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인과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면 봉사단원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OV 76기 이문희 / 과학교육 / 키갈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현지인 교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르완다 문화도 이해하고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의 경우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학원을 다니며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전 수업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KOV 95기 김남헌 / 자동차 / 키갈리 IPRC Kigali

4) 한국에서 가져가면 활동에 도움이 될 물품이나 자료

체육 단원의 경우 우기에는 폭우로 인해 야외활동이 불가한 날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색종이와 같은 특별활동 가능한 물품들을 구비해서 오시면 그런 특별활동을 아직 접해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OV 71기 이미나 / 체육교육(일반) / 무산제 냐마굼바초등학교

초등교육의 경우 활동기관의 운영 방법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학교요람, 학교홍보자료, 각종학교 행사계획, 교과별 학습지도계획 및 학습지도안 등의 자료와 한국을 소개하고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 등을 스캔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KOV 95기 김편금 / 초등교육 / 무산제 G.S NYAKINAMA SCHOOL 1

현지에서 보건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열악한 온라인 상황, 정보 부족의 오프라인 등의 환경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영어로 된 보건교육 자료나 보건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을 챙겨오면 좋습니다. 저는 양치질 교육에 사용할 치아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KOV 103기 백석영 / 간호 / 무산제 G.S Nyakinama

현지의 여건 상 정전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휴대용 빔 프로젝터와 3~4시간쯤 사용 가능한 휴대용 배터리,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KOV 82기 박한규 / 임업 / 후예 kabutare농업고등학교

본인의 경우 휴대용 스피커가 활동에 있어서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태권도 관련 미트, 보호대, 도화, 도복 등의 물품을 가져오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교본 및 태권도 품새에 관련한 서적 등을 가져오신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의 르완다 태권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9기 국제협력봉사요원 정지만 / 태권도 / 키갈리 르완다태권도협회(RTF)

5) 당부의 말

많은 분들이 Pre-Volunteer preparation - 파견 전 준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언을 해 주지만, 그 누구도 Post-Volunteer Life - 임기 종료 후의 삶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르완다에서의 적응보다 귀국 후의 적응이 훨씬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환경부터 시작하여 삶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이전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임기 종료 후의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28기 국제협력봉사요원 정다운 / 컴퓨터교육(일반) / 키갈리 키스트(KIST)대학교

저는 여러 가지에서 '다름'으로 인해 발생된 상황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우월감에 빠져 그들을 낮게 여긴 것은 아닌지, 스스로 불화를 일으킨 것은 아닌지 등의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내적 상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해진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 단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가면서 다양한 공동 협력활동 등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KOV 71기 이미나 / 체육교육(일반) / 무산제 냐마굼바초등학교

본인의 경우 공동 현장사업으로 르완다 최초 태권도 도장 신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만약 현장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고 비교하여 결정하면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계약이 아닌 명확한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칠은 몇 번인지, 어떤 전구를 쓸 것인지 등등 세부적으로 논의 되는 것들을 모두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기 국제협력봉사요원 정지만 / 태권도 / 키갈리 르완다태권도협회(RTF)

르완다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영어, 키냐르완다어, 프랑스어입니다.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말을 알맞게 선정한 후 암기하여 활용해야 하며 아프리카 영어를 듣고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KOV 95기 김편금 / 초등교육 / 무산제 G.S NYAKINAMA SCHOOL 1

학교에 파견되어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익숙한 봉사단원으로서 때때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럽형 교육 시스템을 따르는 르완다 교육과의 다른 점으로 인하여 서술형 위주의 시험문제 출제나 시험 결과에 따른 재시험제도, 수업료 미납입으로 인한 결석 시 보강하는 현지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이해 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여 코워커 현지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만든 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시스템이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맞추고 접목시키는 등의 현지 상황에 따라 더 좋은 효율성을 위함입니다.

KOV 76기 이문희 / 과학교육 / 키갈리 파웨여자중고등학교

현지에서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지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들과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자발적 선택으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때의 첫 마음과 의지를 기억하여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내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풍요로워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봉사활동 시간 외에 자기시간이 많음으로 가능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중요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가장 중요함으로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부지런히 나눔을 실천하는 활력 넘치는 단원들의 생활을 응원합니다.

선배 단원 일동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남헌, 김성구, 김편금, 박한규, 백석영, 윤여창, 이문희, 이미나, 정다운, 정지만 단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국 봉사단체 현황

르완다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약 300여 개의 정부, 비정부 기구가 교육, 농업, 축산업, 직업훈련, 보건의료, 지역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부 기구는 KOICA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서 온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비정부 기구로 월드비전(World Vision), 기아대책, 옥스팜(Oxfam), 월드티치(World Teach), 브리지 투 르완다(Bridge to Rwanda), 국경없는 의사회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지구촌 나눔운동, 열매나눔, 굿피플, 베터월드 등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주로 학교나 지방 관공서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방에 파견된 평화봉사단 단원들은 대다수가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집에 거주하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는 경우도 있다.

이따금 일본의 봉사단체인 JICA 단원과 함께 축구, 농구 등의 체육활동을 하지만 특별히 타 단체와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다. 종종 우연히 만나게 된 타국 단원들과 친구가 되기도 한다.


KOICA
WORLD
FRIENDS
KOREA


부록

응급상황별 현지어

1) 긴급도움을 요청할 때

의미	키냐르완다어	한국어 발음
도와주세요!	Muntabare!	문하바레!
도와주세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Muntabare, Umuntu aranyishe.	문하바레, 우문후 아란니쉐.
도와주세요! 도둑이 여기에 있습니다.	Muntabare, Hano hari umujura.	문하바레, 하노 하리 우무주라.
부탁입니다. 의사를 불러 주세요.	Ndakwinginze hamagarira muganga.	은다크윙진제 하마가리라 무강가.
부탁입니다. 경찰을 불러 주세요.	Ndakwinginze hamagarira police.	은다크윙진제 하마가리라 폴리스.
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Ivuriro ririhe?	이부리로 리리헤?
경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Police ririhe?	폴리스 리리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Nkeneye ko wanfasha.	은헤네예 코 완파샤.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Ndakwinginze hamagara iyi nomero.	은다크윙진제 하마가라 이이 노메로.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미	키냐르완다어	한국어 발음
부엌 콘센트가 불에 탔습니다.	Instinga zo mugikoni zahiye.	인칭가 조 무기코니 자히예.
소방서에 전화해 주세요.	Ndakwingize hamagara kizimya mwoto.	은다크윙진제 하마가라 키짐야 (치짐야) 모토.
물이 필요합니다.	Nkeneye amazi.	은헤네예 아마지 .
불이야!	Umuriro!	우무리로!

3) 성 관련 사고 발생 위험시

의미	키냐르완다어	한국어 발음
도와주세요! 옆집 사람이 저를 강간하려고 합니다.	Nimuntabare, umuturanyi wanjye arashaka kunsambanya kungufu.	니문하바레 우무투라니 와니예 아라샤카 쿤삼반야 쿤구푸.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택시를 불러 주세요.	Nimumpamagarire imodoka injyane kwamuganga.	니뭄하마가리레 이모도카 인쟈네 콰무강가.
그 사람이 제 몸을 만졌습니다.	Yafashe kumubiri wanjye.	야파쉐 쿠무비리 완제.
제발 그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Ndakwinginze mujyane. / mutware.	은다크윙진제 무쟈네./ 무트과레.

알아 두면 유용한 의학 용어

예방주사 : vaccinate	간염 : hepatitis (A형 간염- hepatitis A)	파상풍 : tetanus
장티푸스 : typhoid	알레르기 : allergy	두드러기 :urticaria
발진 : rash, eruption	화상 : burn	염증 : inflammation
감기 : common cold, 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인후염 : sore throat	콧물 : rhinorrhea
열 : fever	근육통 : myalgia	두통 : headache
천식 : asthma	결핵 : tuberculosis	설사 : diarrhea
폐렴 : pneumonia	변비 : consTipation	복통 : abdominal pain
위염 : gastritis	만성위염 : chronic gastritis	급성위염 : acute gastritis
위궤양 : gastric ulcer	소화불량 : indigestion	타박상(멍) : bruise
염좌(삠) : sprain	골절 : fracture	혈당 : blood sugar
당뇨병 : diabetes	혈압 : blood pressure	고혈압 : hypertension
저혈압 : hypotension	탄력붕대 : elastic bandage	부목 : splint

깁스 : cast	중이염 : otitis media	어지러움 : dizziness, vertigo
내과 :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일반외과 : general surgery	정형외과 : orthopedics
신경외과 : neurosurgery	피부과 : dermatology	안과 : ophthalmology
이비인후과: ear, nose and throat (ENT)	비뇨기과 : urology	부인과 : gynecology
정신과 : psychiatry	치과 : dental clinic	응급실 : emergency room
중환자실 : intensive care unit	약국 : pharmacy	치아 : tooth (pl. teeth)
치통 : toothache	사랑니 : wisdom tooth	잇몸 : gingiva, gum
눈병 : oculopathy	결막염 : conjuctivitis	생리식염수 : normal saline
생리불순 : dysmenorrhea	생리통 : cramps, period pain	경구피임약 : oral contraceptive, birth pill

르완다 참고 도서 및 영화

1) 도서

① 블루스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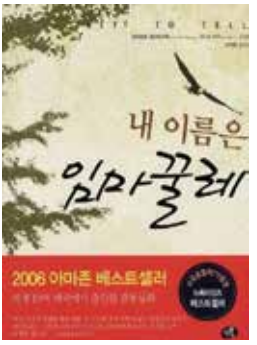


<도서 '블루스웨터'의 표지>

특별한 여성의 빈민구제 프로젝트 실천 경험담이자 빈민의 삶과 생각을 전달하는 생생한 다큐멘터리. 빈곤문제 해결의 진정한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저자가 선진적으로 창안하고 성공시킨 해결책을 제시한다.

국제은행 및 사기업에서의 경험과 아프리카 생활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단순한 자선사업과 완전한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중간 형태로 2001년 세계 최초의 비영리 벤처 캐피탈 '어큐먼펀드'를 설립해 28억의 지구촌 절대빈곤층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탈바꿈시킨 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② 내 이름은 임마꿀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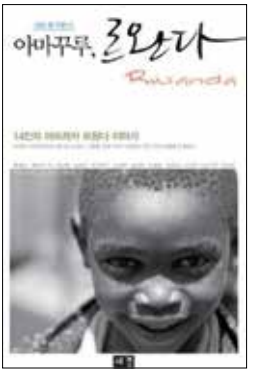


<도서 '내 이름은 임마꿀레' 표지>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 살아남아 학살과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돕는 데 힘써 온 '임마꿀레 일리바기자'의 수기. 르완다의 역사나 대학살에 대한 기록보다는 저자의 내면 변화를 중심으로 한 개인사에 가깝다.

당시 스물두 살의 대학생이던 저자는 부활절을 가족과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공교롭게도 그 날 저녁 르완다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석 달 동안 백만 명에 가까운 투치족이 희생당하는 악몽의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은 욕실에 8명의 동료와 91일 동안을 숨어 지냈고 끝내 살아남았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 신과의 대화를 통해 죽음의 공포와 분노와 복수심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길을 찾은 것. 내전이 종식된 후 지금까지 르완다의 민족 화해와 전쟁고아를 돕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③ 아마꾸루, 르완다



<도서 '아마꾸루, 르완다'의 표지>

아프리카 중앙의 작은 심장, 르완다. 지금도 4월이면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긴다. 1994년 한 달 사이 거의 백만 명이 살해되어 목숨을 잃은 '제노사이드' 추도기간이기 때문이다. 르완다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각계각층에서 모여든 사람들. 이 책은 기꺼이 자신을 던져 봉사한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다. ※ KOICA 단원들의 수기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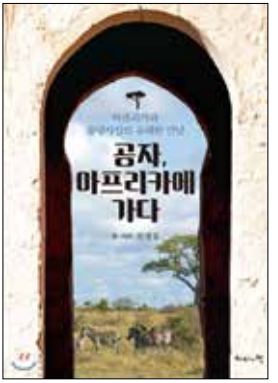
④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 : 르완다 키갈리 일기



<도서 '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의 표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장기 자문단에 지원해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자문활동을 펼치며 쓴 일기를 엮은 것으로, 페루 리마 일기와 더불어 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키갈리 시청에서 환경, 도시행정, 법률 등의 자문활동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성장동력을 고민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임하였다. 현지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개발도상국과 대한민국이 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그려 나가는 여정을 따라갈 수 있다. 저자의 글에 더해 르완다에서 살아가는 여러 한인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⑤ 공자, 아프리카에 가다



<도서 '공자, 아프리카에 가다'의 표지>

KOICA 중장기 자문관으로 활동하였던 IT정책자문관 권영동의 저서로 동양사상인 '논어'와 아프리카의 접점을 소개하는 에세이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부수며, 아프리카 인들의 생각과 모습을 동양의 그것들과 견주어 비교한다. 공자와 같이 르완다를 둘러보며 세계와의 통합과 공존을 모색하는 길을 따라가 볼 수 있다.

2) 영화

① 호텔 르완다



<영화 '호텔 르완다'의 포스터>

1994년 르완다 수도 키갈리. 후투족 출신 대통령이 두 부족의 공존을 위한 평화협정에 동의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후투족과 투치족의 대립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평화협정의 진행을 돕기 위해 UN군이 파견되고 수많은 외신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르완다로 몰려든다.

르완다 최고급 호텔 '밀 콜린'의 호텔 지배인인 폴 루세사바기나(돈 치들)는 평화협정과 관련해 밀려드는 취재기자와 외교관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장이자 지배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폴은 하루 빨리 협정이 체결돼 르완다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이 살해당했다. 큰 나무를 베라. 투치족을 쓸어 버리자!"

르완다의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상황은 악화된다. 후투족 자치군은 대통령 살해의 책임을 빌미로 투치족이면 아이까지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온건파 후투족까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협을 느낀 폴은 투치족 아내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호텔로 피신한다. 이후 그곳으로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모여드는데….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도 외면한 잔혹한 학살 속에서 차마 버릴 수 없었던 1,268명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 폴.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도전이 뜨거운 감동으로 당신의 눈시울을 적신다.

② 정글 속의 고릴라(Gorillas in the Mist)



<영화 '정글 속의 고릴라' 포스터>

중앙아프리카 르완다의 마운틴 고릴라가 멸종 위기에 처하자 인류학자인 다이안 포시는 고릴라를 연구할 목적으로 아프리카의 산악지대(루헹게리)로 떠난다. 아름다운 낙원의 숲속에서 고릴라를 연구하던 그녀의 관심은 서서히 열정으로 바뀌고 마침내 병적인 집착으로 변한다. 짐승 밀렵꾼으로부터 고릴라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마저 무릅쓰던 그녀는 연인인 사진가 캠벨조차 말릴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시고니 위버가 동물과 가슴 뭉클한 감정을 교류하는 고릴라 전문가로 출연해 골든글로브 여자 부문 주연상을 받았다. 영화를 통해 80년대의 르완다 풍경을 볼 수 있다.

3) 르완다 관련 영상

KBS - 아프리카 파워 1편 (20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2010)

EBS - 세계테마기행 르완다 편 (2011)

MBC - W (2008, 2010), KOICA의 꿈 (2013)

현장사업 결과보고서 견본

현장사업 결과보고서

사업명 : G.S. 냐키나마 1 초· 중고등학교 정보화 교육실 구축지원

국 가	르완다
사업기간	2014.11~2015.08
소속기관 (지역)	G.S. Nyakinama1 (Musanze)
단 원 명	박희숙 (인)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장 귀하

키갈리 시내 지도(출처 : Rwanda Development Board)



집필진 소개 및 후기

신영섭

KOICA자문단 7기, 전기/전력 분야

키갈리 IPRC 키추키로(IPRC Kicukiro)

"겨울에 입는 두툼한 내복 몇 벌 가져 오세요."

6년전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르완다에 갔을 때의 일이다. 세계지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자그마한 나라 르완다, 적도 근방의 열대 아프리카에서 무슨 겨울 내복일까? 의아해 하면서도 현지 선배 단원의 조언인지라 챙겨 갔다. 시니어 단원으로 3년, 중장기 자문으로 3년 있으면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겨울 내복. 아! 딱 한 번 입은 적이 있다. 4,507m의 르완다 최고봉 카리심비산을 오르면서 내복을 입고서도 추워서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다. 그 선임 단원은 고산지대 추운 곳에 있었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 책에 있을 수 있는 오류도 그렇게 보아 주시기 바란다. 내가 낀 안경은 그렇게 보였다.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를 통하여 르완다를 이해하고, 수월한 봉사활동, 보람 있는 봉사활동을 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르완다 안내 책자가 출판되도록 기획하고 추진한 KOICA와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조형래 소장님과 윤효정 코디네이터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광식

29기 국제협력봉사요원, 전기/전력 분야

기춤비 키바리 직업훈련원(KIBALI Vocational Training Centre)

'봉사'라는 너무나 이타적인 삶을 내가 살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았다. KOICA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땅으로 나오기 불과 6개월 전에서야 알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내 인생에 아프리카 땅이 끼어들 줄이야.

대부분의 봉사단원들은 나와는 조금 달리,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나눠주는 삶, 헌신하는 삶에 보다 생각이 트여 있거나, 누군가는 종교적인 이유, 누군가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에 대

한 관심으로 한국에서 나와 불편한 삶을 자청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고, 동시에 바보 같았지만, 그럼에도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에는 '나도 어쩌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작게나마 일어난다.

안내서 집필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에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후에 올 단원들을 위한 글을 쓰는 작업이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 버렸다.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적고 싶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직접 느끼는 것이 더 많고 다양할 것이라 생각했다.

르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의 삶에서 불편함과 온갖 짜증, 고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맑고 푸른 하늘과 다양한 동식물, 초록빛 차밭, 수많은 별들은 물론 정이 넘치는 르완다 사람들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아프리카로의 발걸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후회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다 즐겁고 보람된 활동이 되기를 기원한다.

현여은

KOV 93기, 음악교육 분야

키갈리 REB(Rwanda Education Board)

흑운 박차고 백운 무릅쓰고 거중에 둥둥 떠서 살피게 될 르완다는 녹음방초의 아름다운 나라이다. 창창한 숲속을 연상케 하는 좌르르르 깔린 푸르름. 그것은 과연 아프리카의 모든 틀을 깨 놓을 만하다.

르완다의 붉은 꽃, 파란 꽃, 노란 꽃 등의 각색 화초는 곳곳마다 금산을 만들고 향긋한 유칼립투스 나무의 향과 따사로운 햇살을 받노라면 과거 요임금 순임금의 태평성대 창평한 좋은 시절을 상상하기 충분하다.

르완다는 새로운 경험의 땅이고,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과거 제노사이드의 아픔을 딛고 새로이 일어서 나아가는 희망찬 르완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다.

이번 집필을 마감하면서 묵묵히 리더의 길을 걸으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김광식 단원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전한다. 그가 인내하고 채근하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어떤 글도 완성하지 못했으리라. 함께 힘든 노고의 시간을 보내 주신 신영섭 선생님과 박한규 선생님, 이덕수 선생님께도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봉사활동 안내서의 집필진으로 선정되어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KOICA 본부와 르완다 사무소 윤효정 코디네이터, 유찬영 인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 외 집필에 도움을 주신 많은 선배 단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다는 나를 믿고 르완다에 보내 주신 나의 부모님께 가장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사랑합니다.

▶ 감수진 소개

이덕수
KOICA자문단 11기, 도시개발 분야
키갈리 시청(Kigali City)

박한규
KOV 82기, 임업 분야
후예 카부타레농업고등학교(Kabutare Technical Secondary School)

안내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오피스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공하여 주신 윤효정, 정용희, 곽은옥, 조준형, 그리고 서은희 코디네이터님, 유찬영 인턴, 사진 촬영 및 제공에 선뜻 나서 주신 윤은진, 장경민, 정지만, 이지민, 이종혁, 강희상 단원, 더 베터월드 NGO의 정환문 인턴, 이 외에도 자료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KOICA 가족과 한인 동포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KOICA WORLD FRIENDS KOREA

교육자료 월드프렌즈 2016-22-133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 르완다편**

발 행	2016년 10월 19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월드프렌즈교육원
주 소	본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교육원)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다래골길 53
전 화	033) 834-5811
팩 스	033) 834-5840
홈페이지	http://kov.koica.go.kr
디자인/인쇄	한진상사 061) 373-6166

[무단복제 금함]

ISBN 978-89-6469-389-6 13320 <비매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662
http://kov.koica.go.kr